

사무엘상 6-14장 연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삼상 7:12)

사무엘상 6장 1-21절

[1]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2]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3]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4]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사무엘상 6장 1-21절

[5]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6]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7]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사무엘상 6장 1-21절

[8]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벧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10]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 여호와의 궤와 및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사무엘상 6장 1-21절

[12] 암소가 벧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벧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13] 벧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5월말~6월초

[14] 수레가 벧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15]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벧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사무엘상 6장 1-21절

[16]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17]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18]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벧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사무엘상 6장 1-21절

[19] 벧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20] 벧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엠마오?
[21] 전령들을 기랏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사무엘상 6장 1-21절

- 여호와의 궤: יְהוָה אֲרוֹן 야훼=이름
- 이스라엘 신: לֵאלֹהֵי יִשְׂרָאֵל 엘로헤이=엘로힘=신(단수 보통명사)
  야훼께 '엘로힘'이라 부를 때를 일컬어 하나님의 위엄을 극대화하는 '장엄 복수'라고 부릅니다.
- 너희의 신들: אֱלֹהֵיכֶם 너희의 엘로힘(엘로헤이켐)=신들(복수 보통명사).
  블레셋 사람들의 신의 이름은 다곤(Dagon)=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한 인어 형태의 신 혹은 바알세붑(에크론의 신: 파리들의 주)
- 다섯 방백: וְחֲמִשָּׁה סַרְנֵי 방백들(사르네이)=주인들(lords)=시장(촌장)들=통치자들
- 젖 나는 소: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 소
- 벧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이름이 여호수아(예호수아)인 벧세메스의 한 농부가 소유한 밭.

블레셋인과 팔레스타인의 차이

- 블레셋인과 팔레스타인은 어원적인 연결고리는 있으나, 혈통 종교 역사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집단입니다.
-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은 과거 이 지역에 살던 '블레셋(Philistine)'인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한 후(AD 132-135),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 그들의 앙숙이었던 블레셋인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으로 명명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블레셋인과 오늘날의 현대 팔레스타인인은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 블레셋인 vs 팔레스타인 핵심 비교

구분	블레셋인 (Philistines)	팔레스타인인 (Palestinians)
민족적 기원	**에게해(그리스·크레타섬 등) 출신의 유럽계 해양 민족**	**아라비아반도 기원의 아랍계 셈족**
활동 시기	기원전 12세기 ~ 기원전 6세기 (고대)	7세기 아랍 정복 이후 ~ 현재 (현대)
주요 종교	다곤, 바알세불 등 고대 다신교 우상 숭배	이슬람교(대다수) 및 기독교
언어	인도유럽어족 계열 (이후 가나안어 흡수)	아랍어
현재 상태	바빌로니아 침공 이후 **역사 속으로 소멸**	팔레스타인국 및 요르단강 서안·가자 지구 거주

➢ 블레셋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유럽계 해양민족

유럽계 DNA: 성경에서 골리앗으로 잘 알려진 블레셋인은 본래 가나안 토착민이 아닙니다. 그리스, 크레타섬 등 에게해 문명권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철기 문화 기반의 이주민입니다.

민족의 소멸: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당하면서 다른 민족과 동화되어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 팔레스타인인: 아랍 계열의 현대 주민

아랍계 정체성: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인들은 7세기 이슬람 세력이 지중해 연안을 정복한 이후, 아라비아반도에서 이주해 오거나 현지에 정착해 아랍화된 민족입니다.

혈통적 무관함: 현대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에 사는 아랍계 팔레스타인인들은 고대 블레셋인과 혈통적·유전적 연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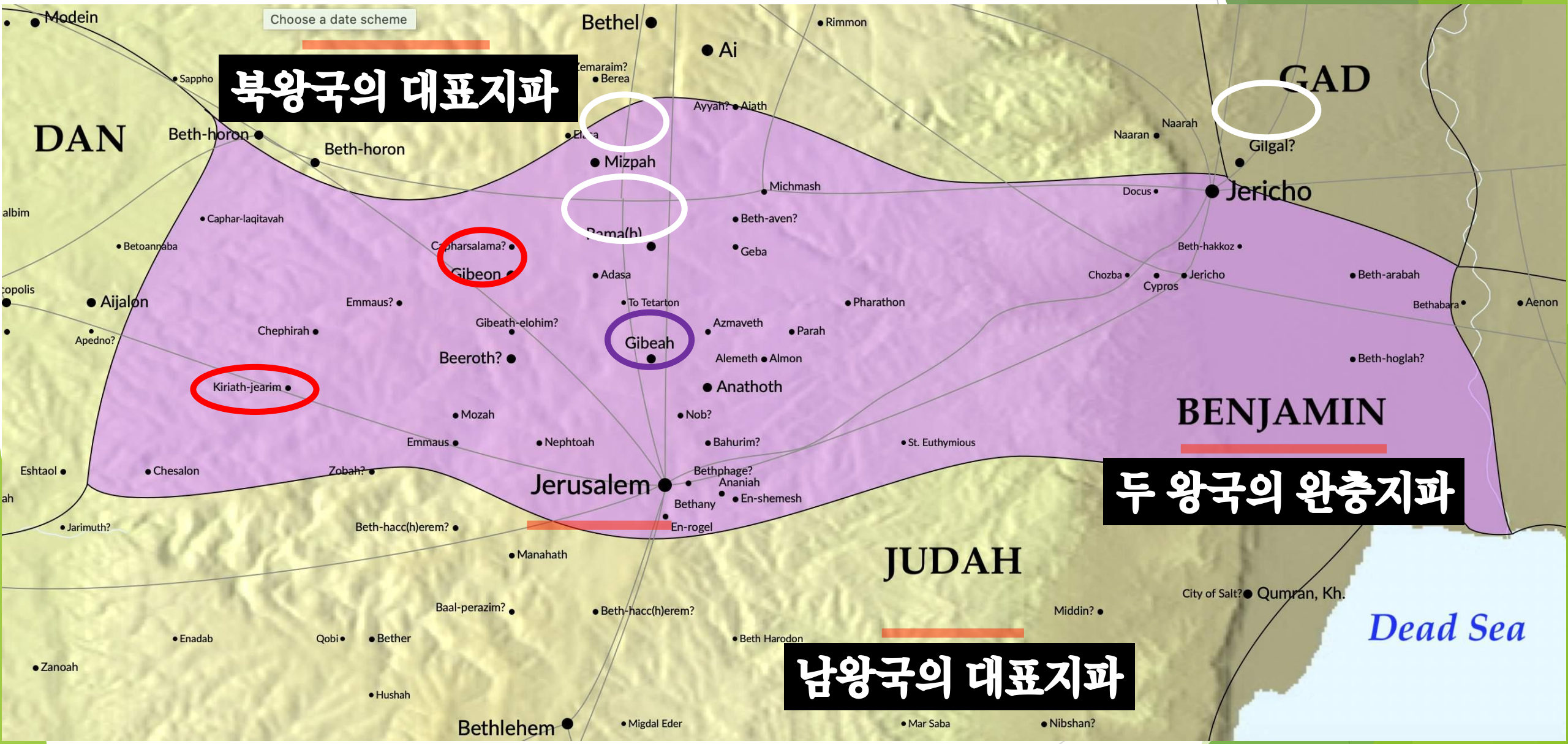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2
에발 산
그리심 산
5
아벡
에벤에셀
3
실로
욥바
4
벧엘
아이
1
여리고
8
에그론
6
7
가드
아스돗
9
벧세메스
10
11
예루살렘
기랏여아림
시내 산
에서 부터
사 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제작함!
이스라엘 수중에 있던 언약궤
블레셋 수중에 있던 언약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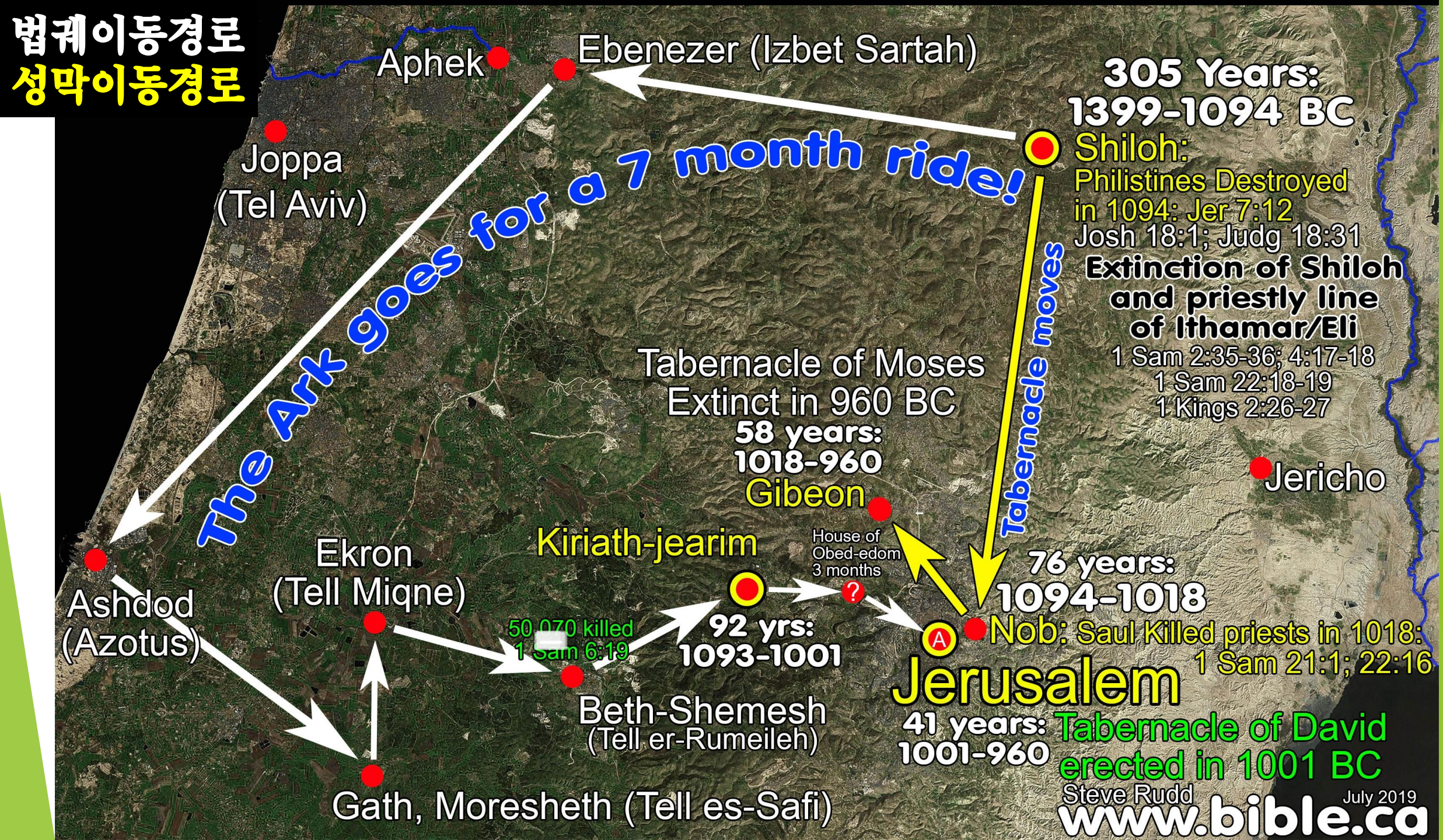

법궤이동경로
세겜
마하나임
비라돈
요단강
가드림몬
아벡
실로
욥바
에브라임
갓
단
벧엘
야셜
벧호론
길갈
엘드게
게셀
Ai
기브온
예리코
김브돈
베냐민
헤스본
아스돗
에그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느보산
아스글론
가드
야르뭇
유다
르우벤
라기스
헤브론
가자
블레셋


Choose a date scheme
북왕국의 대표지파
DAN
GAD
BENJAMIN
JUDAH
두 왕국의 완충지파
남왕국의 대표지파
Dead Sea
Modein
Bethel
Ai
Rimmon
Sappho
Beth-horon
Beth-horon
Mizpah
Ayyah?
Aiath
Naarah
Naaran
Gilgal?
Jericho
Michmash
Docus
Caphar-laqitavah
Beth-aven?
Betoannaba
Geba
Beth-hakkoz
Gibeon
Adasa
Chozba
Cypros
Jericho
Beth-arabah
Aijalon
Emmaus?
To Tetarton
Pharathon
Bethabara
Aenon
Gibeath-elohim?
Azmaveth
Chephirah
Parah
Apedno?
Gibeah
Beeroth?
Alemeth
Almon
Beth-hoglah?
Kiriath-jearim
Anathoth
Mozah
Nob?
Emmaus
Nephtoah
Bahurim?
St. Euthymious
Eshtaol
Chesalon
Zobah?
Bethphage?
Ananiah
Jerusalem
Bethany
En-shemesh
En-rogel
Jarimuth?
Beth-hacc(h)erem?
Manahath
City of Salt?
Qumran, Kh.
Baal-perazim?
Beth-hacc(h)erem?
Middin?
Enadab
Qobi
Bether
Beth Harodon
Zanoah
Hushah
Bethlehem
Migdal Eder
Mar Saba
Nibshan?

-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법궤(신권)가 이동함에 따른 왕권의 이동: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법궤이동경로
성막이동경로
Aphek
Ebenezer (Izbet Sartah)
305 Years:
1399-1094 BC
Shiloh:
Philistines Destroyed
in 1094: Jer 7:12
Josh 18:1; Judg 18:31
Extinction of Shiloh
and priestly line
of Ithamar/Eli
1 Sam 2:35-36; 4:17-18
1 Sam 22:18-19
1 Kings 2:26-27
Joppa
(Tel Aviv)
The Ark goes for a 7 month ride!
Tabernacle moves
Tabernacle of Moses
Extinct in 960 BC
58 years:
1018-960
Gibeon
Jericho
Kiriath-jearim
House of
Obed-edom
3 months
?
76 years:
1094-1018
Ekron
(Tell Miqne)
Ashdod
(Azotus)
50,070 killed
1 Sam 6:19
92 yrs:
1093-1001
A
Nob: Saul Killed priests in 1018:
1 Sam 21:1; 22:16
Jerusalem
41 years:
1001-960
Tabernacle of David
erected in 1001 BC
Beth-Shemesh
(Tell er-Rumeileh)
Gath, Moresheth (Tell es-Safi)
Steve Rudd
July 2019
www.bible.ca

사무엘상 6장 1-21절

-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성막과 법궤를 안치한 중앙 성소가 에브라임의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중앙 성소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마저 목숨을 잃음으로써 폐쇄된(c. BC 1094) 이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c. BC 960) 임시 성소(성막)가 베냐민 지역에 있었을 뿐입니다.
- 먼저 '놉'에 있었고(c. BC 1094-1018, 76년간), 대제사장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에 이곳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엘리의 증손자)으로부터 거룩한 떡(성소에서 물려낸 진설병)을 받았습니다(삼상 21:1-6). 성막은 이 일이 있고나서 얼마 후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졌습니다(c. BC 1018).

사무엘상 6장 1-21절

- 기브온에 에브라임의 실로에 있었던 성막과 놋제단이 있었고,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대하 1:2-6).
- 블레셋 지역에서 되돌아온 법궤는 '기랏여아림'에 대략 92년간(c. BC 1093-1001) 있다가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c. BC 1001). 이곳은 베냐민지파에 속한 성읍으로써 유다지파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 성막과 법궤가 북이스라엘의 실로 성소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두 거대 지파인 에브라임과 유다의 직접적인 충돌을 완충하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로 모두 옮겨졌고,

사무엘상 6장 1-21절

-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됨으로써(c. BC 960), 왕권이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에브라임과의 충돌 없이 베냐민을 거쳐 모두 남유다로 옮겨졌습니다.

벧세메스(בֵּית שֶׁמֶשׁ, 태양의 신전)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

유다 지파와 블레셋 국경 지대의 완충 지대에 위치하여 수많은 전쟁과 갈등이 일어났던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





텔 벧세메스(בֵּית שֶׁמֶשׁ, 태양의 신전)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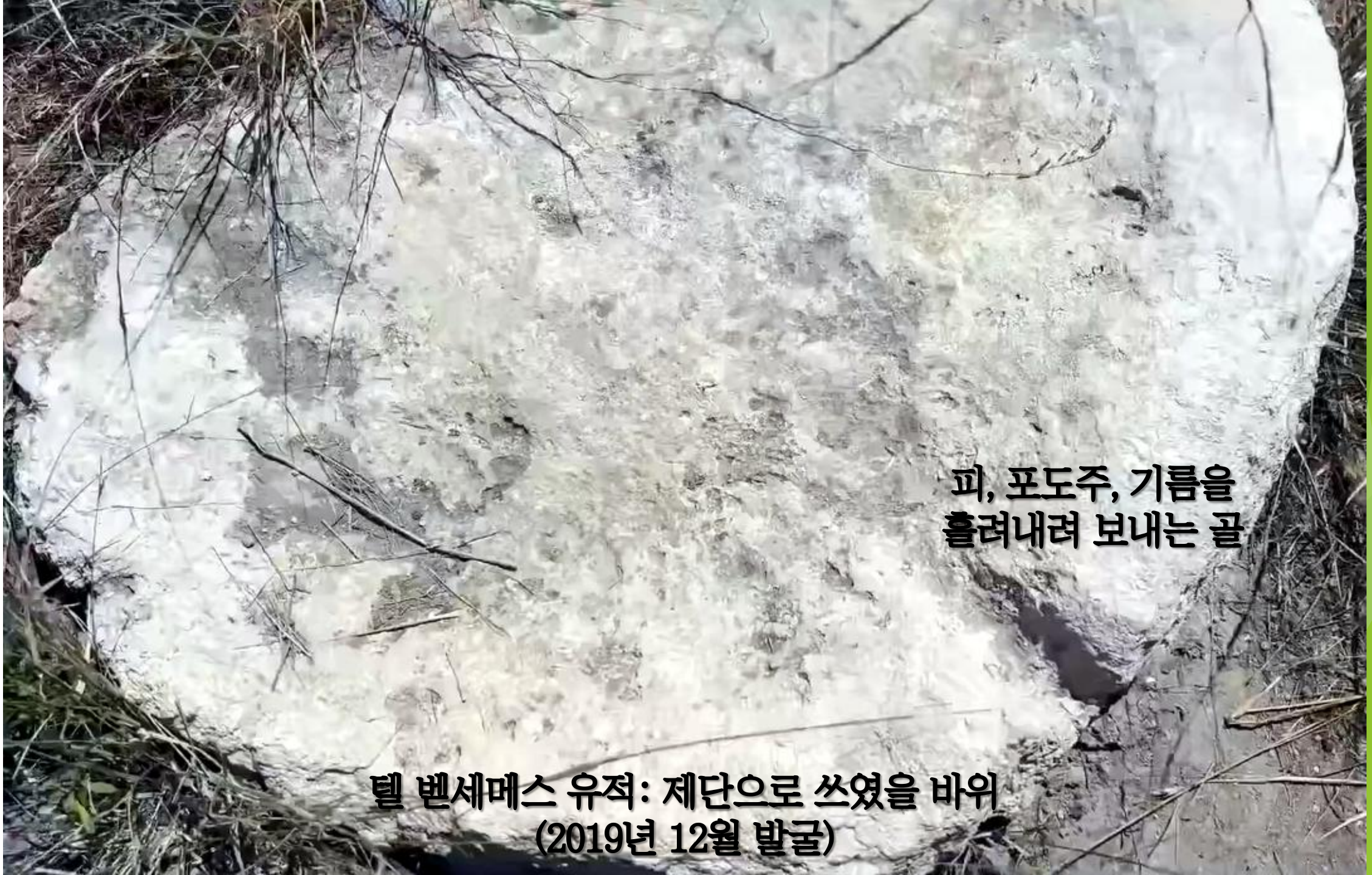


텔 벧세메스 유적

텔 벧세메스(בֵּית שֶׁמֶשׁ, 태양의 신전) 유적(2019년 12월 발굴) :

발굴 당시 이 신전은 두꺼운 짐승 배설물층으로 덮여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를 블레셋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가축 우리로 격하시킨 흔적으로 보았다.





텔 벧세메스 유적: 제단으로 쓰였을 바위
(2019년 12월 발굴)



텔 벧세메스 유적: 법궤를 안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위(2019년 12월 발굴,
바위 크기: 134cm x 75cm, 법궤 크기: 115cm x 6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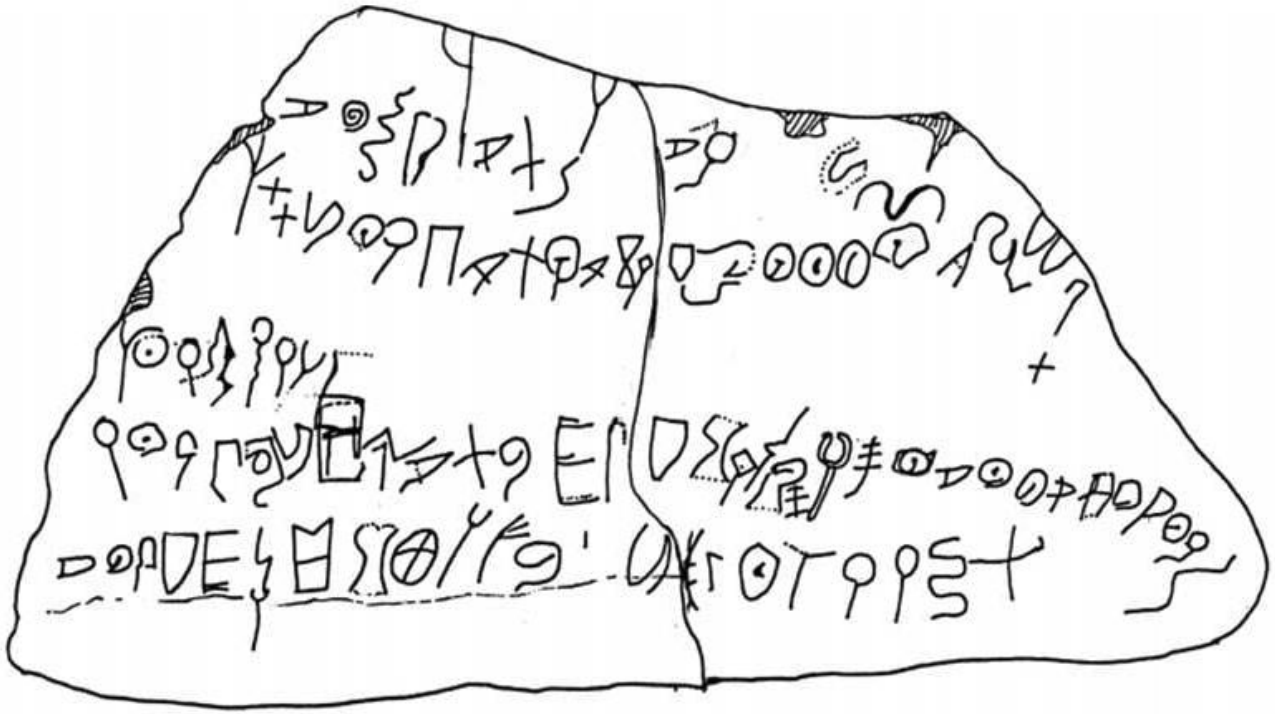
텔 벧세메스 유적: 법궤를 안치한 바위 주변에 앉을 수 있도록 마련된 돌 벤치(2019년 12월 발굴)


재와 뼈가 묻힌 지층(2019년 12월 발굴)
© Dr. Zvi Lederman

1976년 이스라엘 이즈벳 사르타(Izbet Şarţah , 아벡 근처, 에벤에셀)에서 ‘ 발견된 기원전 12-11세기 경(사사 시대)의 고대 가나안/히브리 문자가 새겨진 토기 조각.

이미지 출처: earlysemitic.weebly.com
이스라엘 박물관, 예루살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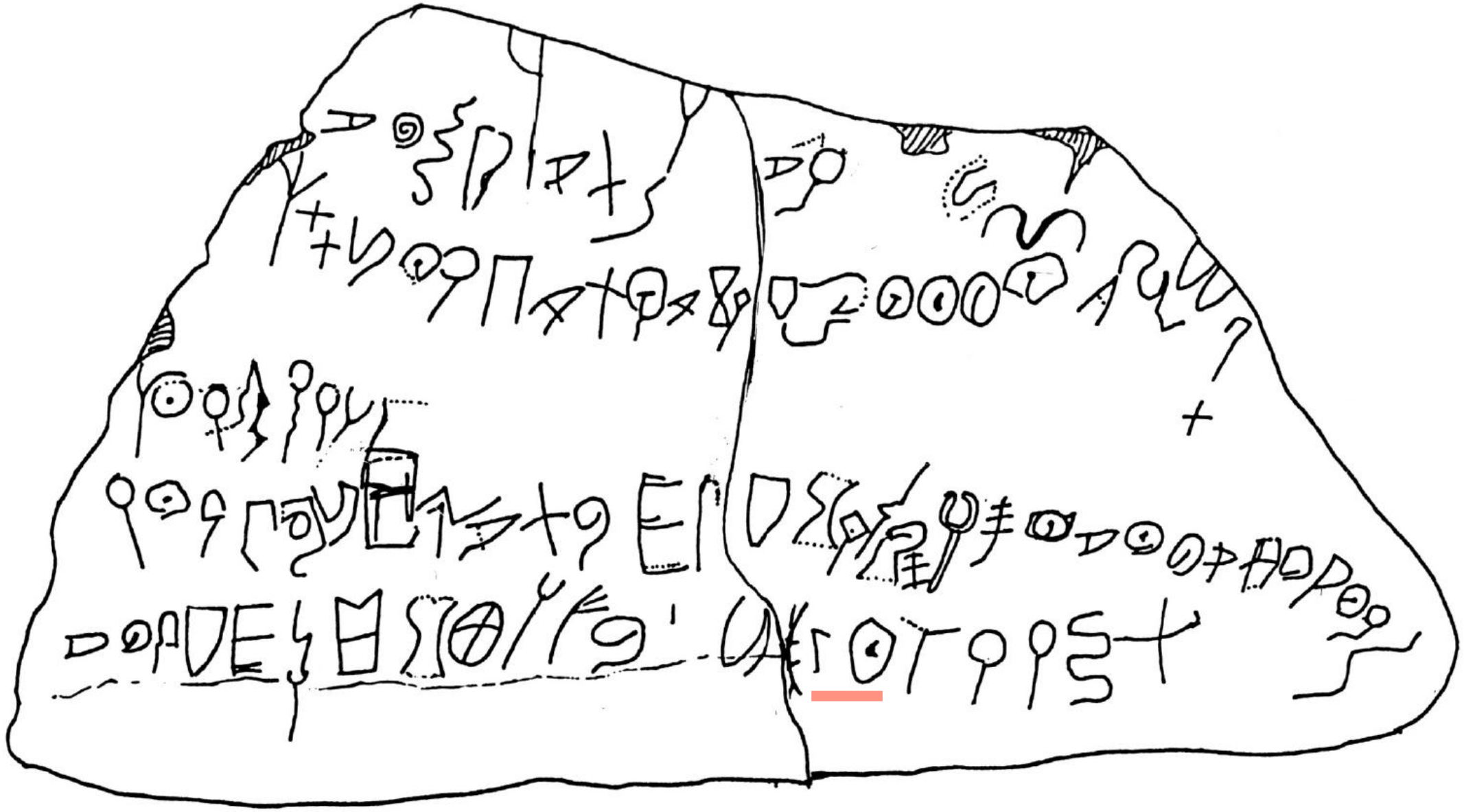


Figure 1. Drawing of ʿIzbet Ṣarṭah Ostracon (by William H. Shea).

윌리엄 H. 셰어(William H. Shea) 박사가 모사한 '이즈벳 사르타 오스트라콘'(Izbet Ṣarṭah Ostracon)의 도면.

1행: “우리는 들판으로 나아가, 실로(Shiloh)로부터 아벡(Aphek)에 이르렀다.”

역사적 배경: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아벡 근처(에벤에셀)로 진군한 성경 기록(사무엘상 4장)과 일치합니다.

2행: “깃딤(Kittim, 바다 건너온 사람/블레셋 사람들을 지칭)이 (언약궤를) 빼앗아 아조르(Azor)와 아스돗의 주 다곤(Dagon) 신전, 그리고 가드(Gath)로 가져갔다.”

역사적 배경: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아스돗과 가드로 언약궤가 이동했던 사건을 묘사합니다.

3행: “(그 후 언약궤는) 기랏여아림(Kiriath-Jearim)으로 돌아왔다.”

4행: “보병들의 동료인 홉니(Hophni)가 장로들에게 고하기 위해 와서 말하길, ‘말 한 마리가 돌아왔고 그 위에는 우리가 장사 지내야 할 내 형제가 있나이다’라고 하였다.”

역사적 배경: 아벡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전사한 사건(사무엘상 4:11)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셰어 박사 해석의 핵심입니다.

5행: 고대 히브리/가나안 자음 알파벳 (22자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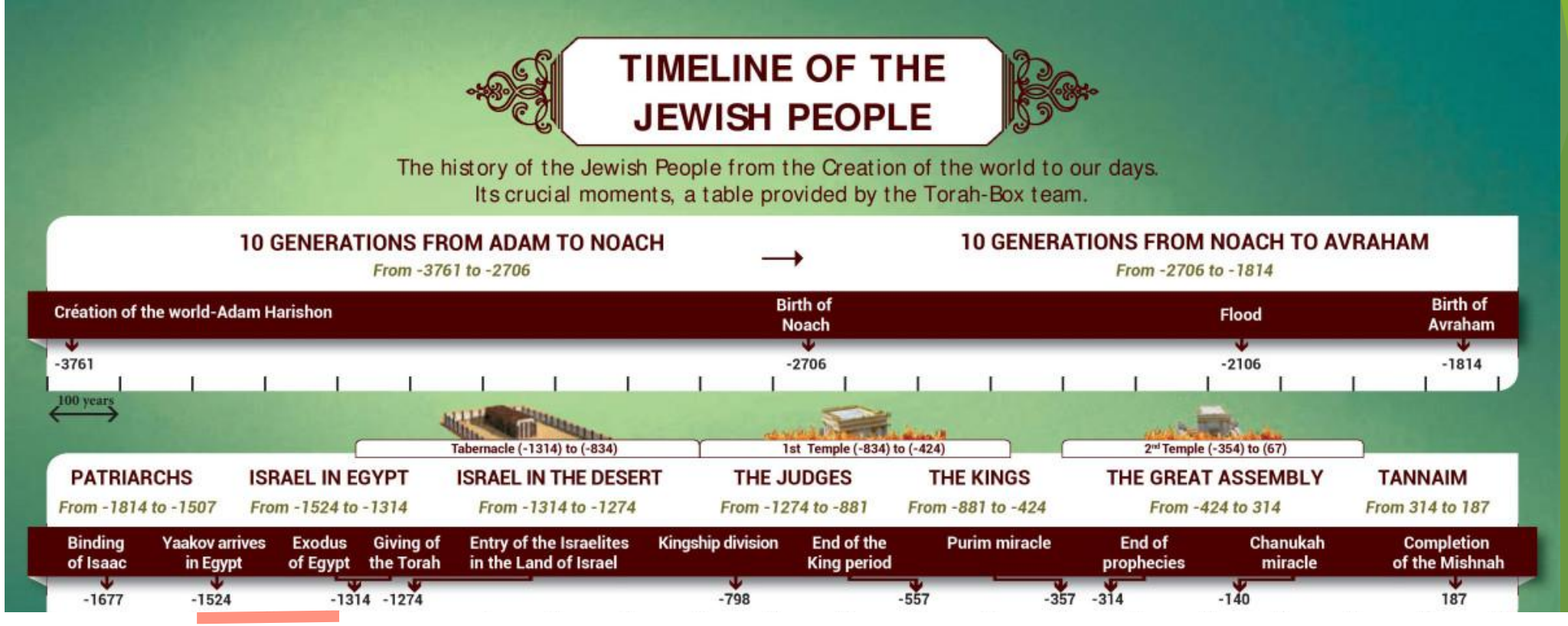


특징: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쓰였으며, 오늘날의 알파벳 순서와 달리 ‘페’와 ‘아인’의 배열순서가 뒤바뀐 초기 알파벳 배열 방식을 보여줍니다.

‘라암셋’(Rameses)

- 창세기 47장에서 등장하는 ‘라암셋’(Rameses, רַעַמְסֵס)이라는 지명은 피람세스(Pi-Ramesses, 람세스의 집)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 47장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에서 구체적으로 ‘라암셋’을 언급한 것은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밑밥으로 보입니다. ‘라암셋’이란 이름은 출애굽기 1:11, 12:37, 민수기 33:3,5에 나오며 람세스2세의 이름을 딴 지명으로써 그 이전 곧 요셉 시대에는 없었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 (출애굽기 1:11)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 (출애굽기 12:3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 (민수기 33:3) “그들이 첫째 달 열 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3월 20일 춘분이 지난 첫 보름날을 의미)
- (민수기 33:5)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숙곳에 진을 치고.”
- 이들 성구들은 출애굽(이집트 대탈출) 연대를 전통적인 1446 BC보다 대략 170년 늦은 람세스2세(1279-1213 BC) 시대로 추정하게 만듭니다.



가나안 땅의 점유권을 놓고 히타이트 제국과 전투가 잦았던 이집트 제18왕조 말기와 제19왕조 초기의 혼란한 틈을 타서 히브리인들이 탈출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유대교에서는 출애굽 시기를 군인 출신의 파라오 호렘헤브 (Horemheb, 1319-1292 BC, 투탕카멘이 후계자로 지명한 인물)의 통치 때인 1314 BC 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기는 제18왕조가 무너지던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투탕카멘의 관을 끄는 궁정 관리들을 보여주는 투탕카멘 무덤의 부조(룩소르 왕들의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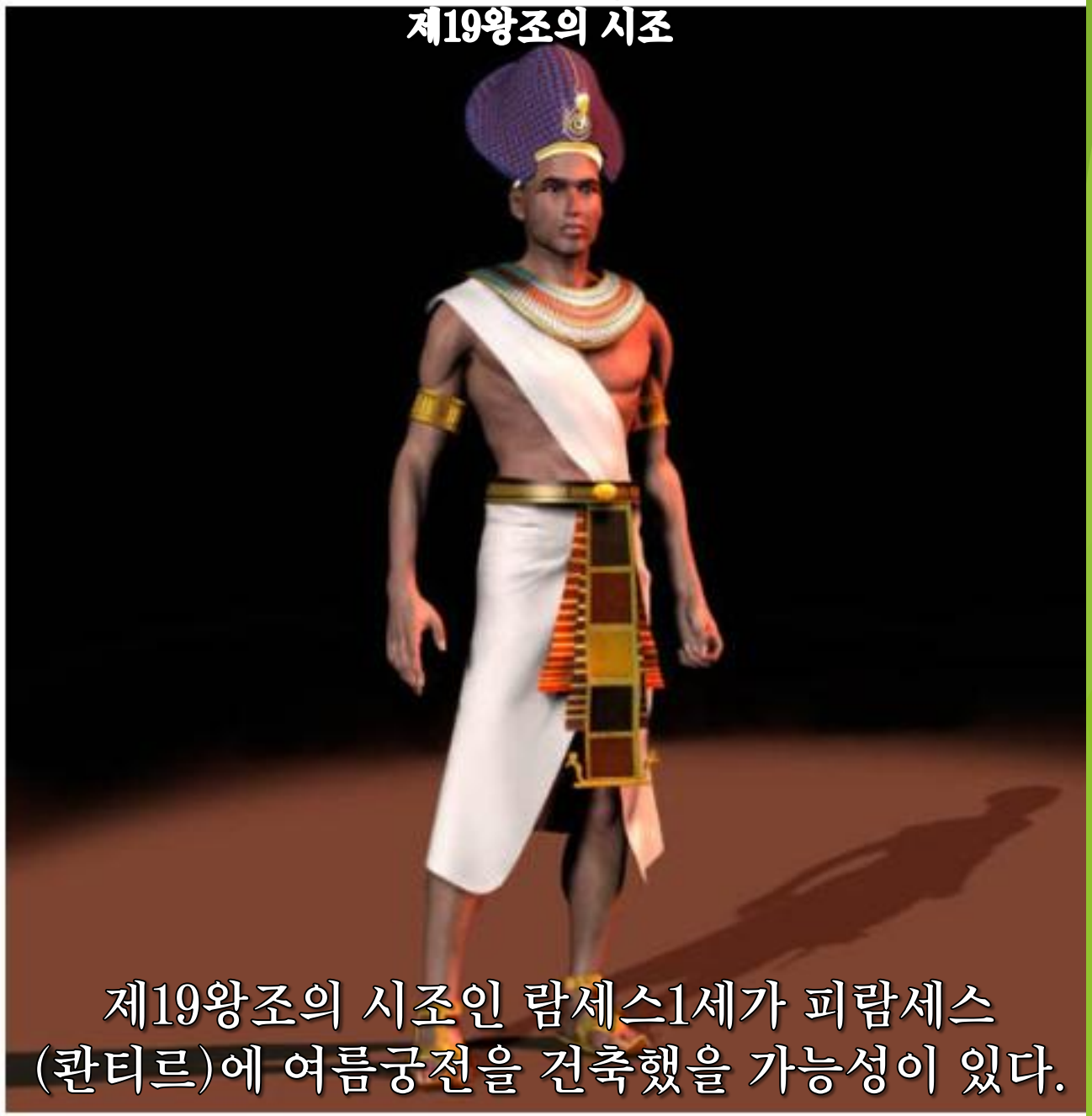
⑮호렘헤브(Horemheb · 재위 기원전 1319년 ~ 기원전 1292년)

호렘헤브, 군인 출신, 그의 부하 람세스1세를
후계자로 지목, 18왕조 마지막 파라오



①람세스 1세(Ramesses I · 재위 기원전 1292년~기원전 12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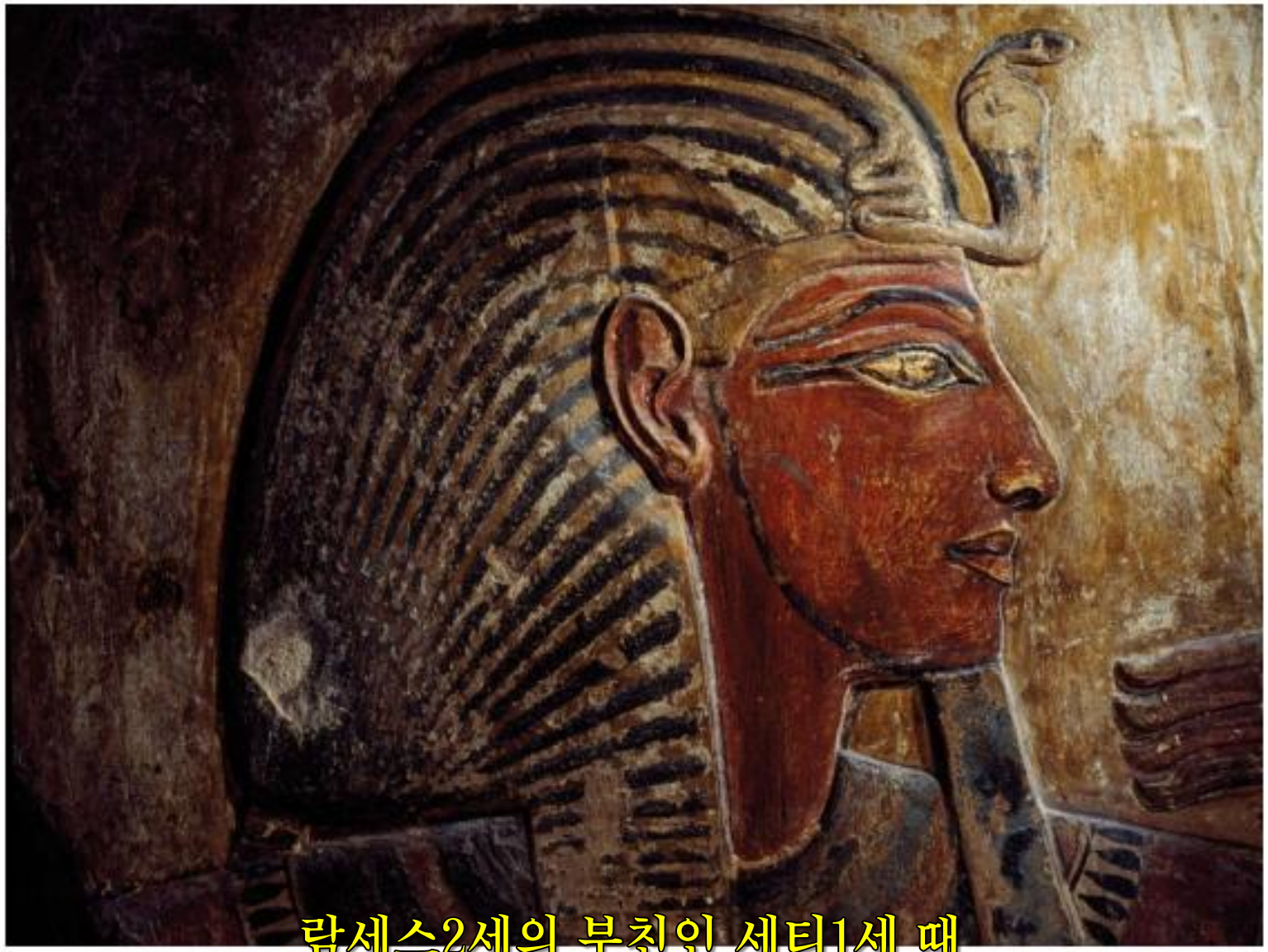
람세스2세의 할아버지(군인 출신, 그의 상관이 호렘헤브)
제19왕조의 시조



제19왕조의 시조인 람세스1세가 피람세스
(콴티르)에 여름궁전을 건축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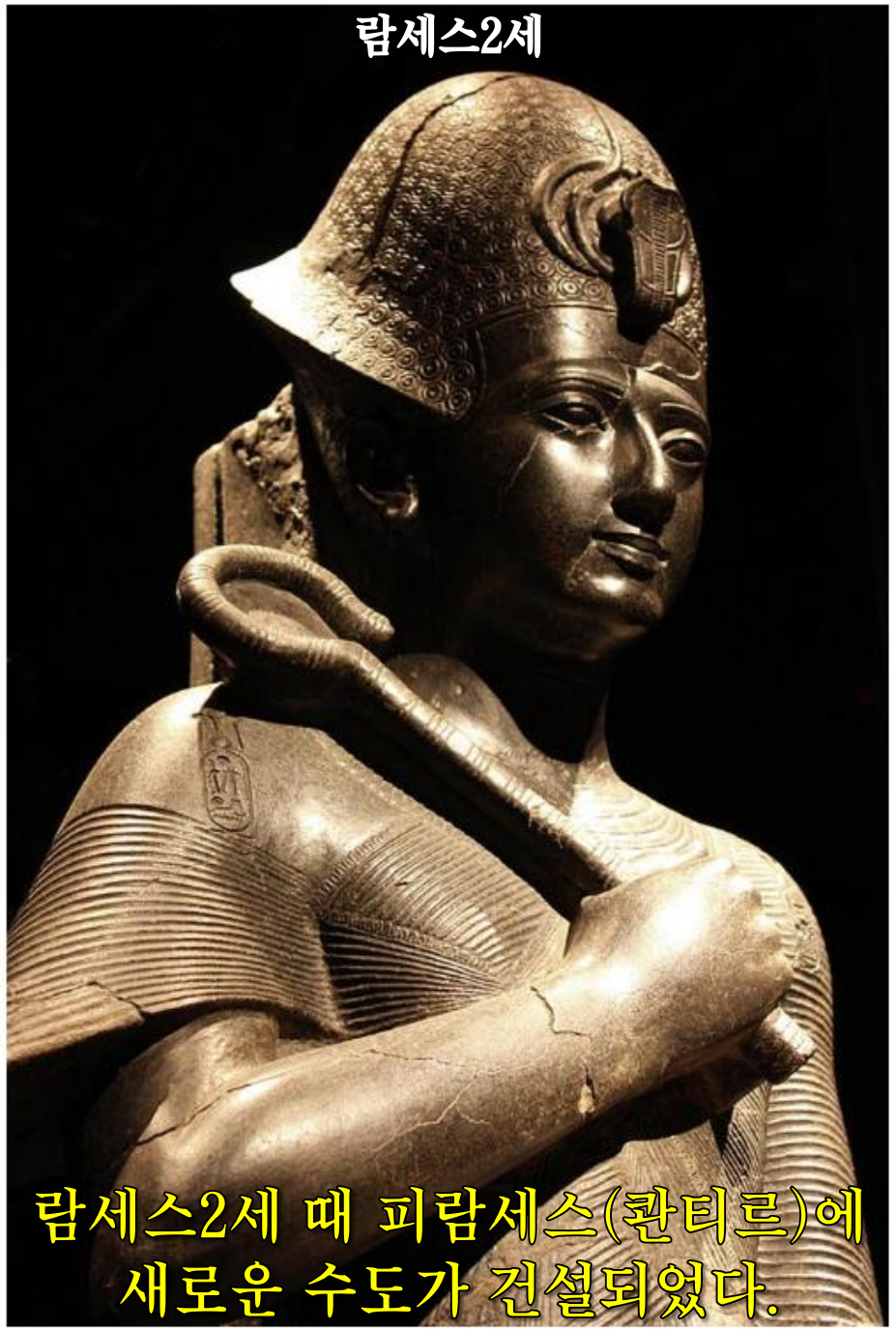
②세티 1세(Seti I · 재위 기원전 1294년-기원전 1279년)

람세스2세의 아버지



람세스2세의 부친인 세티1세 때
피람세스(콴티르)가 여름궁전으로 사용되었다.

③람세스 2세(Ramesses II · 재위 기원전 1279년-기원전 1213년)



람세스2세 때 피람세스(콴티르)에
새로운 수도가 건설되었다.

람세스2세는 히타이트 제국과 인류 최초의
평화 조약인 '카데시 조약'(1258 BC)을 체결했다.

히타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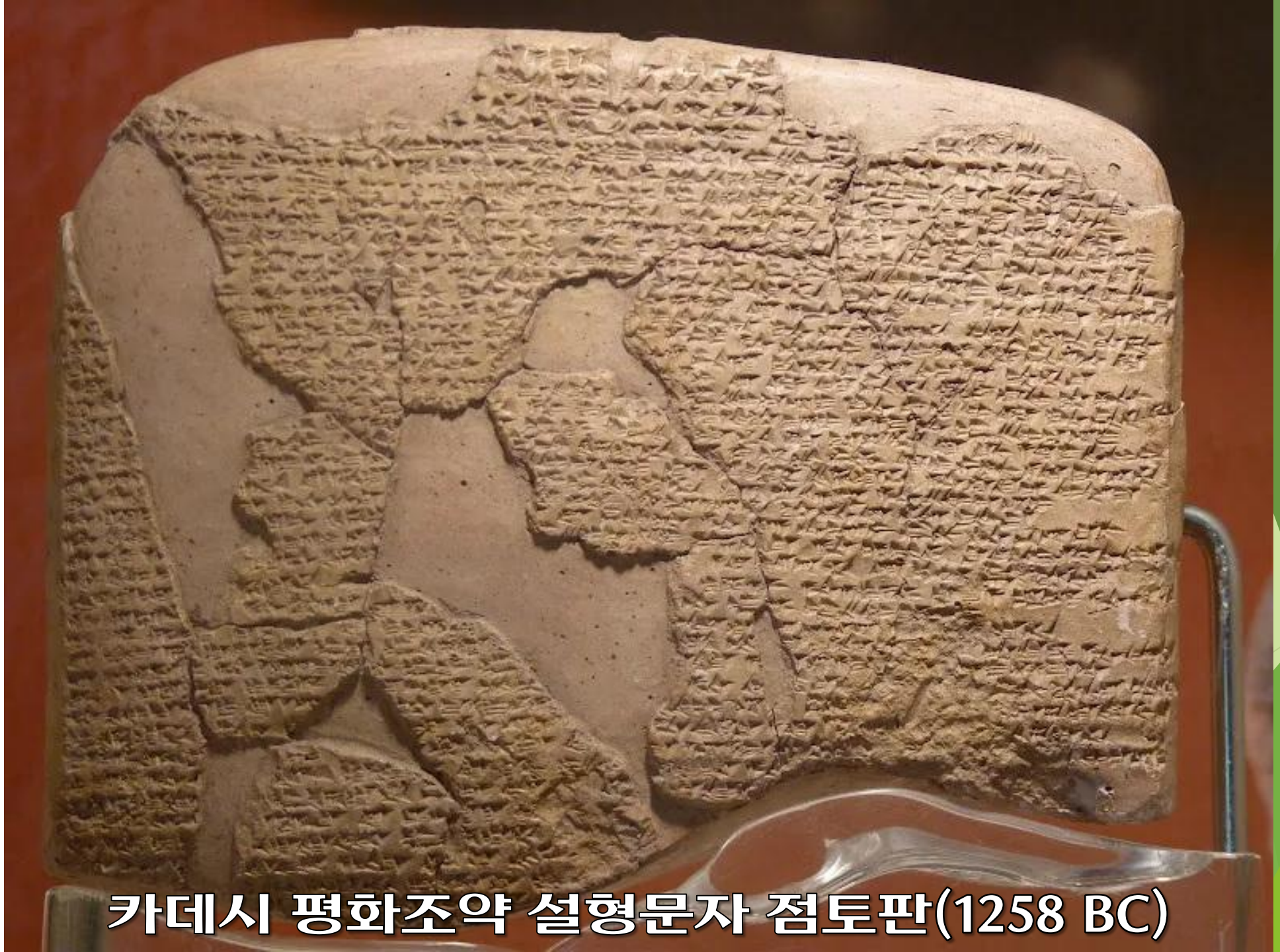
카데시 전투
1274 BC

적대적 관계를
계속할 순 없다!

이집트



람세스2세의 미라를 복원한 모습



카데시 평화조약 설형문자 점토판(1258 BC)

사무엘상 6장 1-21절

-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연도에 대해서는 주전 1446년 설도 있고, 그보다 늦은 주전 1200년대 설이 있습니다.
-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이스라엘 밖에 알려진 최초의 기록은 이집트 제19왕조의 '메르넵타'(1213-1203BC, 람세스2세의 13번째 아들, 람세스2세가 90세까지 장수하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가 세운 석비에 있습니다.
- 메르넵타 석비에 새겨진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국가를 가리키는 것인지, 단지 어떤 무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쓰는 민족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말해줍니다. 이 무렵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메르넵타 석비(Merneptah Stele,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



“이스라엘[이방민족]”이란 뜻

사무엘상 6장 1-21절

- 그러고 나서 주전 12세기경에 철기를 쓰는 해양민족인 블레셋이 에게해(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쳐들어와 이스라엘의 연안평야를 점령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들로 인해서 연안평야를 분배 받았던 단 지파의 상당수가 최북단으로 밀려났고,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방어에 유리한 산지에 정착하였습니다.
- 당시 이스라엘은 무기도 부실했거니와 동맹체제로서 지파의 독립성이 강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1절

- 사사기에 실린 사사(판관)들은 각각의 지파를 대표한 지도자들이었지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 블레셋은 지파들의 경계를 파고들었고 지파들의 연합을 차단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 엘리 사사 때 중앙 성소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엘리에게는 하나님과 예배를 만홀히 여긴 홉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 블레셋 군사들이 동서남북으로 길이 열리는 고대 해안 도로(왕의 대로)의 전략적 요충지인 아벡으로 올라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동편 에벤에셀에 방어선을 쳤습니다.

왜 아벡(곡창지대)
이 고대 전장터
였는지를 보여
주는 지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집결시킨 후
이스르엘(최대
곡창지대)을
삼키려 했습니다.



왜 아벡(곡창지대)이 고대 전장터였는지를 보여주는 사진.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집결시킨 후 이스르엘(최대 곡창지대)을 삼키려 했습니다.



왜 아벡(곡창지대)이 고대 전장터였는지를 보여주는 사진.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집결시킨 후 이스르엘(최대 곡창지대)을 삼키려 했습니다.




4개 주요 도로
다메섹
하솔
므깃도
벧산
세겜
실로
텔아비브-욥바
아벡
벧엘
여리고
암만
예루살렘
가자
베들레헴
사해
헤브론
①
브엘세바
②
페트라
③
엘랏
④
해안
족장
계곡
왕의
이스르엘 평야
갈릴리
므깃도
웨스트 뱅크
예루살렘
가자 지구
사해
이스라엘
고대 도시 텔 므깃도
Tel Megiddo
기원전 2700년 경
여호수아 정복 전의
가나안 시대의 원형 제단과 신전 터
제 3 초기 청동기 시대 신전
(BC 2,600-2,500 년 경)
© JoelLee



갈멜산에서 바라본 이스르엘 골짜기

사무엘상 6장 1-21절

- 이스라엘은 첫 교전에서 군사 4천명을 잃었고, 2차 교전 때 언약궤를 앞장세워 대대적인 공략을 펼쳤지만 군사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으며, 사사 엘리와 그의 두 아들과 며느리가 죽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 그 빼앗긴 언약궤가 일곱 달 후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사무엘상 6장입니다.
- 아벡 전투가 있었던 해는 주전 1102년경으로 봅니다.
- 아벡전투는 삼손이 죽으면서 다곤 신당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전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손의 활동무대였던 소렉 골짜기: 벧세메스, 소라, 딤나

사무엘상 6장 1-21절

-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의 보좌이자 발등상입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서 일곱 달 동안 블레셋의 신전 안 다곤 신 앞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싸움에 패한 나라의 신은 승전한 나라의 신에 통합되곤 하였습니다(예: 야훼-엘, 벨-마르둑, 제우스-아문, 등).
- 다곤은 물고기(다그) 신이자 풍요를 상징한 해양민족의 신입니다.
- 참고로 스타벅스의 로고가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과 블레셋의 풍요의 해양신 다곤을 합성한 것이란 주장이 있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어 세이렌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 그런데 승전국의 신인 다곤이 패전국의 언약궤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듯이 엎어지곤 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독종에 시달렸습니다.
- 이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해결책을 간구했고, 그들이 얻은 해답은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5절)는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라"(7-8절)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1절

- 참고로 속건제는 허물에 대한 보상(배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힌 본래 금액에 120%을 갚아야 했고, 이와 별개로 숫양을 속건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속건제=120%+속건제물
-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블레셋에서 구입했을 만큼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강하였고, 이스라엘의 사방천지를 들쑤셔놓곤 했지만 이스라엘을 결코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은 블레셋보다 강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야훼)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위기에 처하면 놀랍게도 여호와 신앙이 활력을 띠었습니다.
- 여호와는 그 어떤 세력에도 꺾이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가 여호와의 패배는 아니다'고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1절

-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단련시켜 최후 승리를 안겨준다고 믿었습니다.
- 이스라엘에게 위기는 회개하여 여호와께 대한 충성을 쇄신할 기회였습니다.
- 이 신앙쇄신이 수천 년간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작고 힘없는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게 한 힘의 원천입니다.
-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여호와가 무적의 신이신 것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1절

- 벧세메스는 '태양의 집' 곧 무적의 태양신전을 뜻합니다. 단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후에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그러나 유다지파의 경계에 놓인 지역입니다.
- 그러나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 있던 지역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담은 상자를 실은 새 수레를 끄는 암소 두 마리가 벧세메스로 갈 때에 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으며 벧세메스로 직진한 후에 큰 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1절

- 첫째는 암소들이 왜 울었는지, 둘째는 암소들이 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셋째는 암소들이 왜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는지 입니다.
- 첫째, 암소들이 울었던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이 암소들은 헤어진 송아지들이 걱정되어 울기도 했겠지만 자신들의 죽을 운명을 직감했기 때문에 울었을 수 있습니다. 소들은 영물에 가깝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와 속건제 제물을 실은 수레를 끄는 임무를 끝내는 즉시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과 그로서 다시는 송아지들에게 젖을 물릴 수 없게 될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1절

- 이 암소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사건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둘째, 암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벧세메스로 직진하였던 것은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 자갈길이라도 그분이 뜻하시면 가야 합니다.
- 셋째, 암소들이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춘"(14절) 것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유다 지파의 경계 안쪽이었을 뿐 아니라, 레위인들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그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린 후,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그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14-15절).

사무엘상 6장 1-21절

- "벧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은(19절) 호기심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 언약궤는 얇게 펼친 금으로 씌웠고, 상단에 정금 덩어리를 쳐서 만든 두 그룹이 배치(야훼의 보좌)되어 있었습니다. 또 블레셋이 속건제로 보낸 상자 속에는 금 쥐와 금 독종이 각각 다섯 개씩 들어 있었습니다.
- 벧세메스 사람들이 칠십 명이나 죽었던 것은 호기심과 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언약궤에 손을 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 가로 속 '(오만)'은 일부 사본에 없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1절

- 인근의 베냐민 지파 인구가,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전쟁 직후에, 살아남은 자가 남자 6백 명뿐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삿 20:47), 벧세메스에서 죽은 자가 오만 칠십 명이었다는 진술은 지나치게 많은 숫자입니다.
- 이 재앙이 있고나서 벧세메스 사람들은 위쪽 산지 사람들인 기랏여아림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기랏여아림은 '숲의 도시'란 뜻이며, 기브온 족속의 거주지였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곳이지만, 유다 지파의 경계 안쪽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기랏여아림은 엠마오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21절

- 벧세메스와 기랏여아림의 특징은 유다 지파에 속하면서 동시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서 두 거대 지파들의 완충지 역할을 했던 위쪽 산지의 베냐민 지파와 아래쪽 평원의 단 지파의 경계 지역이자 유다 지파 안쪽에 위치했다는 데 있습니다.
- 두 거대 지파들의 완충지 역할을 했던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블레셋의 침략이 매우 잦았던 곳들입니다. 블레셋이 두려워했던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 베냐민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 및 유다 산지 경계에 사무엘의 활동무대였던 벧엘, 미스바, 라마 및 기브아가 위치해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1절

- 에브라임 산지의 중앙 성소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 빼앗긴 후 블레셋의 도시들인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거쳐서 유다 산지의 경계지역인 벧세메스와 기랏여아림으로 옮겨진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충돌을 절묘하게 피하면서 다윗 성으로 옮겨간 과정의 일부를 보여준 것입니다.
-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북 왕국에서 남 왕국으로 옮겨간 과정을 미리 나타나 보이는 조짐이었던 것입니다.
- 이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벧세메스 사람들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삼상 13:14, 행 13:22)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아무도 능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6장 1-21절

- 성경의 가르침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모두 가짜 신 곧 우상들이니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 이스라엘보다 강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꺾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신 다곤이 사람의 생각 속에나 있는 가짜 신 곧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홀로 참신이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 벧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들처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21절

-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복 받는 비결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입니다.
-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은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로 옮긴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해야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6-14장 연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삼상 7:12)

사무엘상 7장 1-17절

[1] 기랏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 궤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상 7장 1-17절

[5]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상 7장 1-17절

[9]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벧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17절

[13]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4]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 해마다 벧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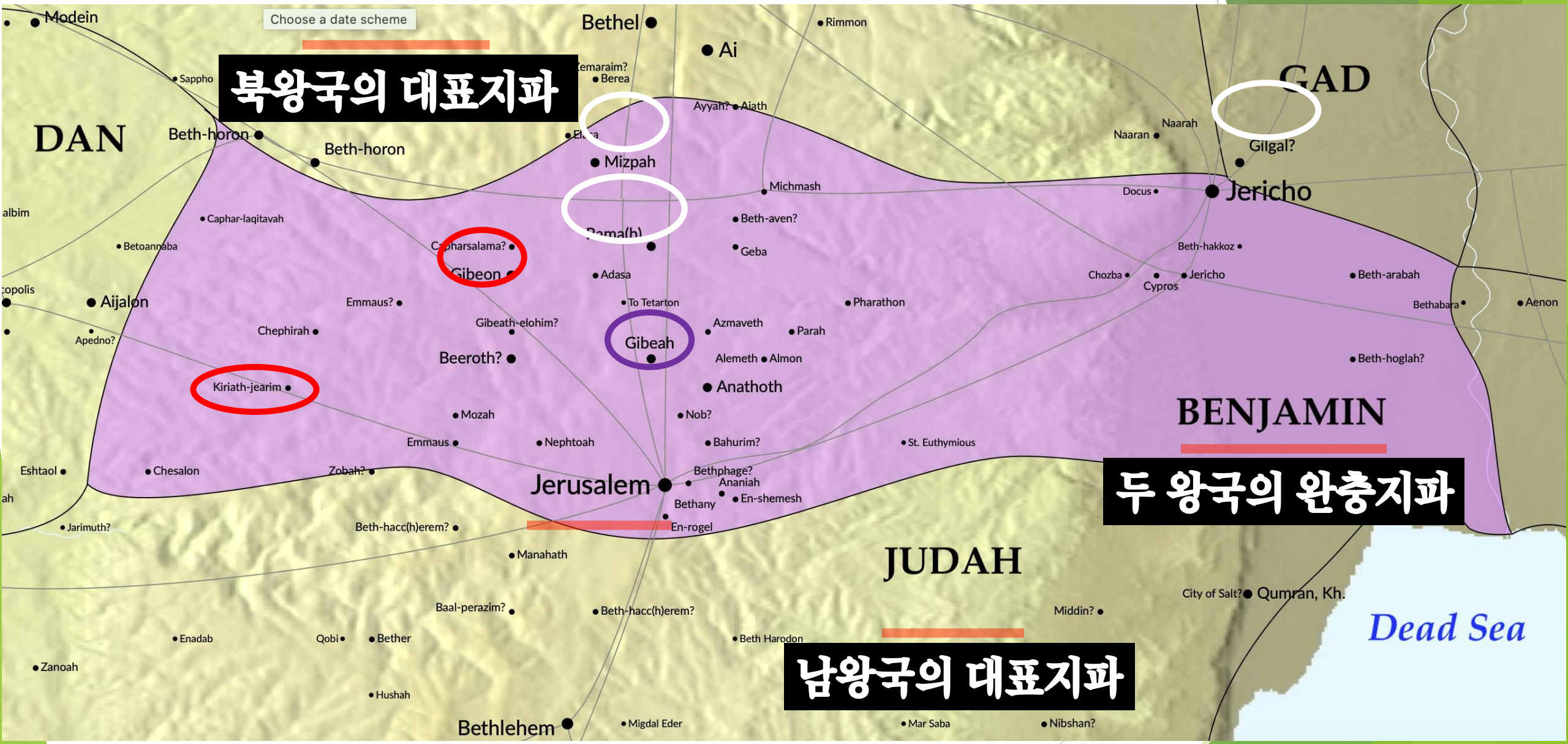
-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보다 무기도 부실했고, 동맹체제로서 지파의 독립성이 강했습니다.
- 게다가 사사들은 전체 지파동맹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대개가 자기 지파를 위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 반면에 사무엘(슈무엘, שְׁמוּאֵ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이름)은 양대 지파들의 산지 곧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의 완충지대에서 활동하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은 지파의식이 약한 곧 땅 분배에서 제외된 레위인이었습니다.
- 앞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도 실로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가 양대 지파들의 완충지대인 기랏여아림의 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1-17)

- 이스라엘의 중심(영광)이 서서히 북에서 남으로,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격변기의 중심에 레위인 출신 사사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 사무엘은 지파동맹 체제를 끝내고 통합 이스라엘 체제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사사기의 이야기를 끝내고 사무엘상의 이야기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슈무엘 = אֵל(하나님) + שְׁמוּ(들으셨다, 이름)

하나님이 들으셨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


Choose a date scheme
북왕국의 대표지파
DAN
GAD
BENJAMIN
JUDAH
두 왕국의 완충지파
남왕국의 대표지파
Dead Sea
Modein
Bethel
Ai
Rimmon
Sappho
Beth-horon
Beth-horon
Mizpah
Ayyah?
Aiath
Naarah
Naaran
Gilgal?
Jericho
Michmash
Docus
Caphar-laqitavah
Beth-aven?
Betoannaba
Geba
Beth-hakkoz
Gibeon
Adasa
Chozba
Cypros
Jericho
Beth-arabah
Aijalon
Emmaus?
To Tetarton
Pharathon
Bethabara
Aenon
Gibeath-elohim?
Azmaveth
Chephirah
Parah
Apedno?
Gibeah
Beeroth?
Alemeth
Almon
Beth-hoglah?
Kiriath-jearim
Anathoth
Mozah
Nob?
Emmaus
Nephtoah
Bahurim?
St. Euthymious
Eshtaol
Chesalon
Zobah?
Bethphage?
Ananiah
Jerusalem
Bethany
En-shemesh
En-rogel
Jarimuth?
Beth-hacc(h)erem?
Manahath
City of Salt?
Qumran, Kh.
Baal-perazim?
Beth-hacc(h)erem?
Middin?
Enadab
Qobi
Bether
Beth Harodon
Zanoah
Hushah
Bethlehem
Migdal Eder
Mar Saba
Nibshan?


사무엘의 일생
N
에벤에셀
실로
라마다임소빔
롯
벧엘
아래벧호론
미스바
길갈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킴
라마
기브아
베들레헴
해마다 벧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라마로 돌아왔으니(삼상7: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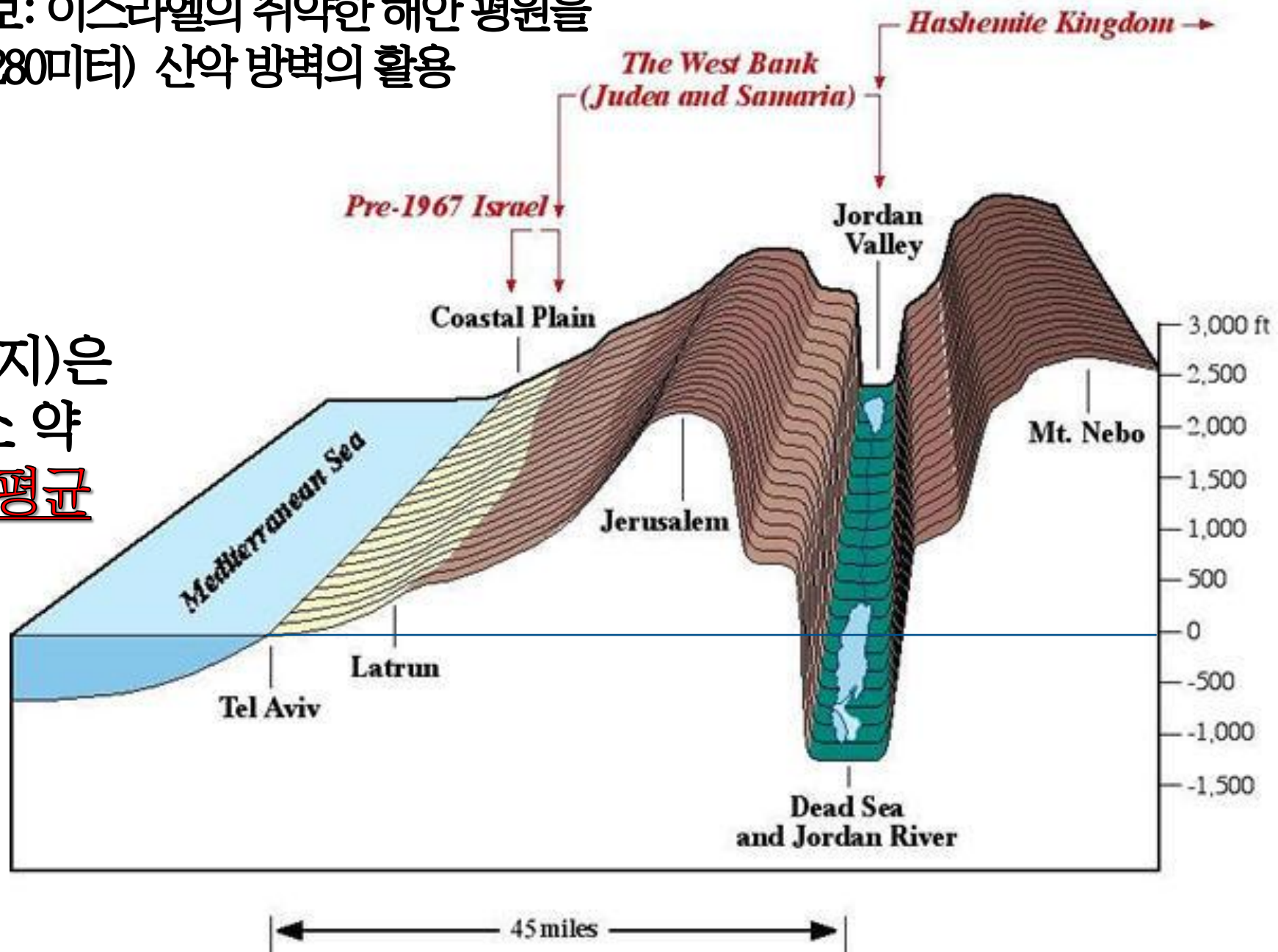


사무엘의 활동무대였던 베냐민 지파 지역의 지형

Map 7: Topography and Israeli Security: Utilizing the 4,200-Foot Mountain Barrier to Protect Israel's Vulnerable Coastal Plain

지도 7: 지형과 이스라엘의 안보: 이스라엘의 취약한 해안 평원을 보호하기 위한 4,200피트(약 1,280미터) 산악 방벽의 활용

이스라엘의 동서 간 폭(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은 최대 약 114km에서 최소 약 15km~50km 내외이며, 평균 50-70km 정도입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1-17)

숲 도시
'기랏여아림'(키르야트 예아림, קִרְיַת-יְעָרִים)은 '숲의 성읍'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벧세메스로 내려와 **여호와의 궤를 옮겨간 기랏여아림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 기랏여아림은 **기브온 족속**의 거주지였는데 궤를 옮겨간 사람들은 성읍 외곽의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인들**로 추정됩니다.
- 아비나답의 집이 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אֶלְעָזָ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1절).
- '**엘리아살**'은 당시 30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키랏 예아림 텔(Tel Kiryat Ye'arim) 정상에 위치한 '언약궤의 성모 마리아 성당.
해발 758미터 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부 고시(Abu Ghosh) 마을과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



키랏 예아림 텔(Tel Kiryat Ye'arim) 정상에 위치한 '언약궤의 성모 마리아 성당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1-17)

- 엘리아살(엘 아잘, אֶלְעָזָר)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עָזַר)'입니다. 그에게는 웃사와 아효라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삼하 6:3).
- 2절, "궤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에서 '사모'(히 nahah, נָהָה)의 뜻은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다'를 의미합니다.
- 이것은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기 직전까지의 상황 곧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이 극심했던 흑암과 혼돈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 특히 여호와의 궤가 옮겨진 지역들 곧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 사이의 완충지대는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1-17)

- 블레셋이 벧세메스로 옮긴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랏여아림으로 옮겨가는 것을 방관한 것은 기랏여아림이 완충지대에 있었고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는 영향권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 3-4절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초기 활동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무렵 사무엘의 나이는 아마도 30세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 사무엘의 전 생애 동안의 사역을 요약해서 미리 보여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로 인해서 사무엘의 나이가 50여세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아벡 전투가 있기 직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때는 사무엘이 아이 때였습니다(삼상 3장).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1-17)

- 여기서 '아이'는 계명의 아들 곧 종교적 성인이 되는 12-13세의 소년을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사무엘의 나이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는 연령 곧 30세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 사무엘이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 인간은 피조물이고 완전하지 못해서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 66권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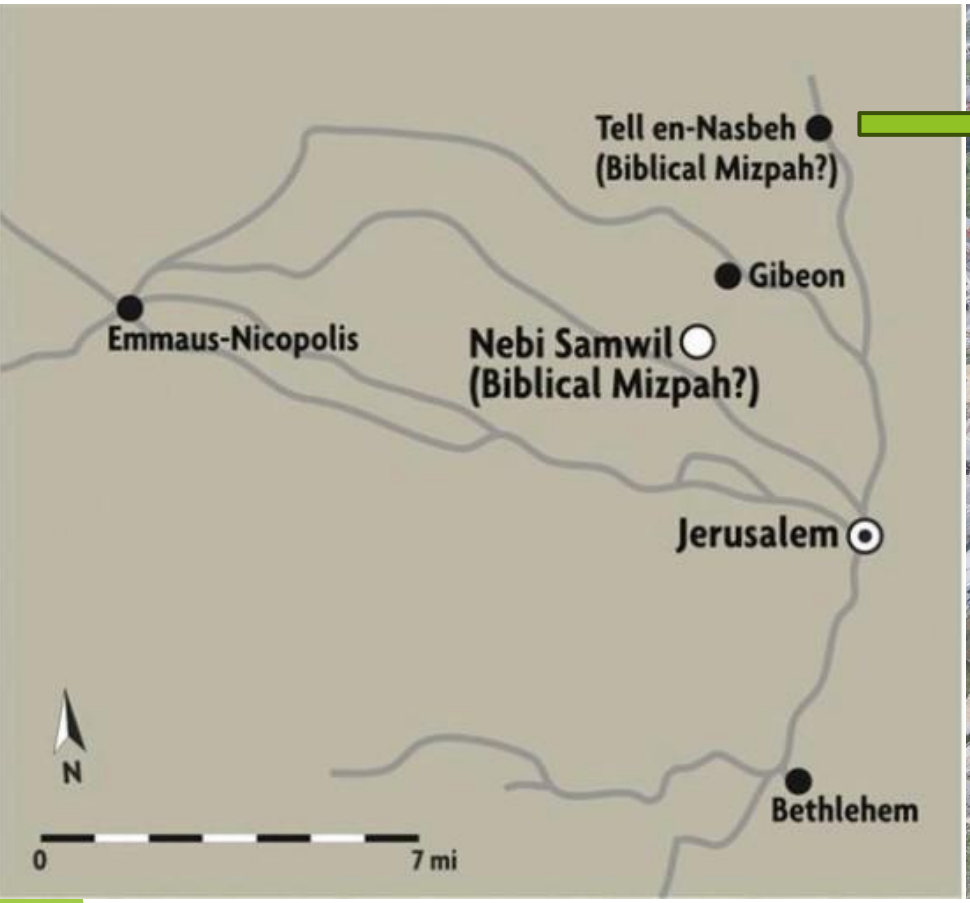
- 사무엘은 십계명 1-2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라고 온 족속에게 외쳤습니다.
- 회개의 방법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3절)고 하였습니다.
- 4절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블레셋을 밀어내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회복과 구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1-17)

-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이며 구원과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 5-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섬겼더니 그들에게 구원과 복이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5절)고 하였습니다.
- '미스바'는 '망대', '망보는 곳'을 의미합니다.
- 미스바는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 사이의 완충지대에 위치한 베냐민 산지의 성읍이었습니다.
-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6절).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물을 길어 제단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며 회개하였습니다.

미스바 특징: 망대, 망보는 곳

- 해발 고도: 약 908m (지형에 따라 885m~908m로 표기)
- 위치: 예루살렘 북서쪽 약 8~10km 지점
- 지리적 특징: 주변 평지와 예루살렘 접근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





6세기부터 사무엘의 매장지로 추정되는 Nebi Samwil. 미스바 또는 라마로 추정 됨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1-17)

- 그런데 **블레셋은 이 같은 연합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미스바 집회는 남과 북의 연합 곧 에브라임을 중심한 북쪽 지파들과 유다를 중심한 남쪽 지파들이 모인 **통합집회였기 때문**입니다.
- **블레셋의 전략은** 이스라엘의 약한 중앙 고리였던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공략하여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를 분리시켜 남북의 통합을 저지하고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 미스바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 그래서 블레셋은 지체 없이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미스바로 향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베냐민 산지에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재빠르게 저지대의 블레셋 성읍들에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전황은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점에서 유리**하였습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1-17)

- 첫째, 블레셋은 산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하여 공격해야 했기 때문에 철 병거(전차)를 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산 위쪽에서 방어했기 때문에 유리했습니다.
- 둘째, 미스바에는 약한 베냐민지파 사람들 뿐 아니라, 강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유다지파 사람들이 전례 없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 셋째, 아벡 전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셨습니다. 여호와는 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영웅호걸도 여호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 넷째,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산지로 올라온 블레셋을 향하여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산지에서의 큰 우레는 산들을 진동시켜 흔들림이 크고 공명을 일으켜 공기를 찢기 때문에 **병거를 끄는 말들에게 큰 두려움과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1-17)

-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도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섶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사 64:1-2)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 게다가 만일 병거를 끌고 왔다면, 말들이 놀라 뛰고 내달려 전열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비백산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벧갈 아래에 이르기까지”(11절) 몰아내었습니다.
-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여선지자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철 병거 900대에 맞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때도 “큰 우레”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1-17)

-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여호와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더니,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을 뿐 아니라,
- 13-14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을 추격한 방향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1-17)

- 사무엘은 미스바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12절)고 칭하였습니다.
- '에벤에셀' 곧 '에벤하에제르'(אֶבֶן הָעֵזֶר)는 '에벤'(돌, 바위)과 '에제르'(도움)에서 유래했으며, '도움의 돌'을 의미합니다.
- 사무엘상 4장 1절에 언급된 대로 아벡전투 때 에벤에셀은 아벡 맞은편에 위치한 지명입니다. 이곳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첫 교전 때 군사 4천명을 잃었고, 2차 교전 때 언약궤를 앞장세워 대대적인 공략을 펼쳤지만 군사 3만 명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1-17)

- 이토록 큰 패배의 쓴 잔을 마셨던 곳의 지명을 이번에는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을 몰아낸 지점에 큰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12절)면서 '에벤에셀'(אֶבֶן הָעֵזֶר) 곧 '도움의 돌'이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를 상징했던 여호와의 언약궤조차도 '에벤에셀'이란 이름의 '도움의 돌'조차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잘 말해줍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미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1-17)

-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잔틴시대에는 황제들조차 주화 전면에 복음서를 가슴에 앉고 강복하시는 예수님을 새기고,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혹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라고 새겼던 것입니다.
-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비록 현재는 지고 있고, 고난과 시련을 겪는 중이라 할지라도, 끝내 이기고 승리하는 최후 승리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IC XC



IC XC NIKA


ΙC
NI
XC
KA



사무엘상 6-14장 연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삼상 7:12)

사무엘상 8장 1-22절

[1] 사무엘이 늙으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2]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4]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상 8장 1-22절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9]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0]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11]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사무엘상 8장 1-22절

[12]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사무엘상 8장 1-22절

[17] 너희의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8]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19]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21]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삼상 8:1-22)

- 사람이 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대가(응보)가 따릅니다.
- 대가(응보)는 인과응보이며,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일부만 징계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 영웅들은 모두 신(신들)에게 쓰임을 받았지만, 신(신들)에게 징계도 받았습니다.
- 더글라스 A. 포스터, "그는(알렉산더 캠벨)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하나님께 징계도 받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알렉산더 캠벨의 생애〉에서).
- 인간은 죄와 허물을 통제해야 하지만, 징계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징계에 순응하는 동시에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의 반복(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칼립소(Calypso)가 뗏목을 타고 떠나려는 오디세우스에게 한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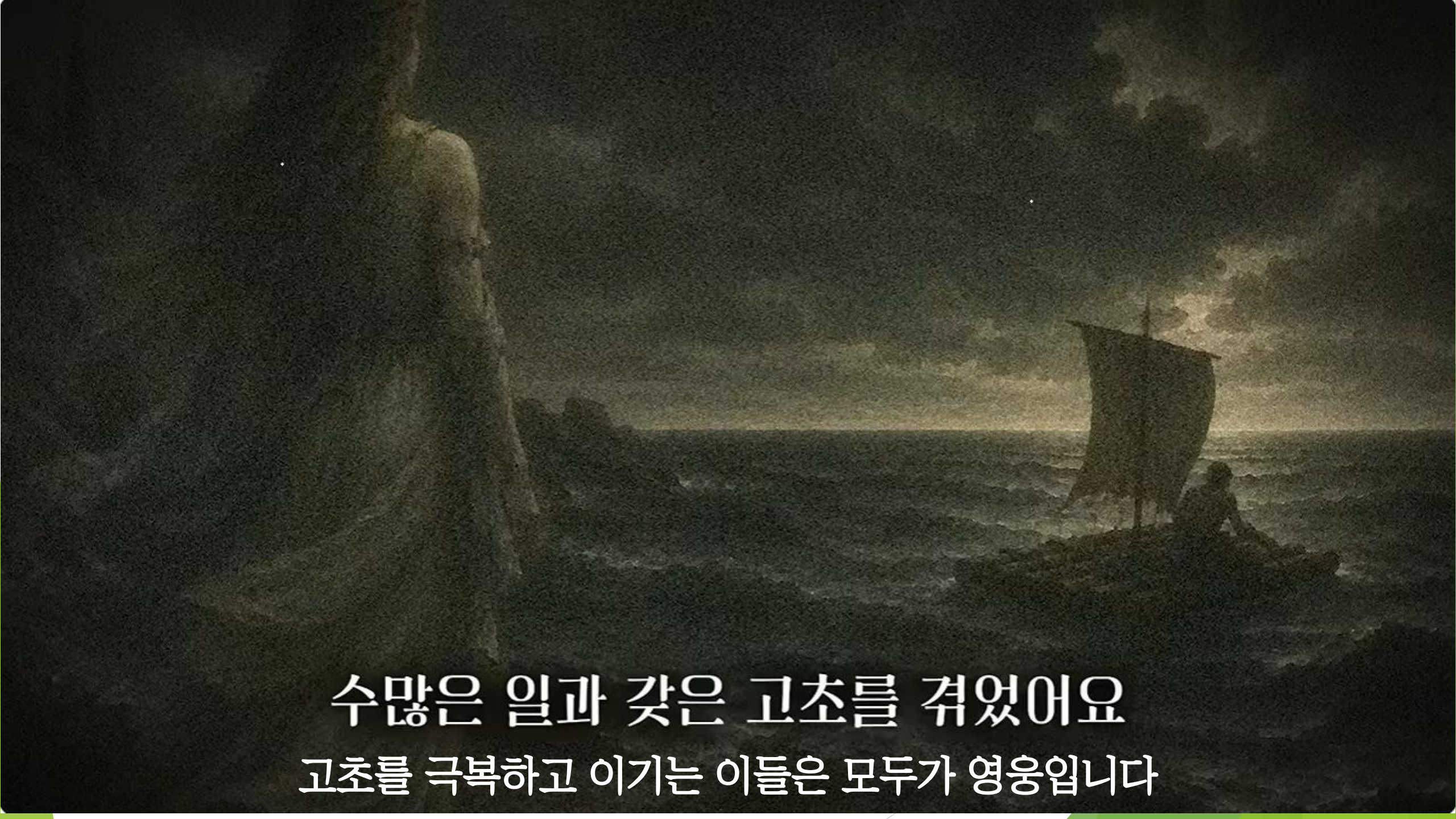
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 감독의 〈오디세이〉의 한 장면, 책에 나오는 말은 아님

You're a man who needs to control his fate. But you cannot control this. You must give yourself to the storm, give yourself to Poseidon. And take your punishment. Give up the fight, give up control and live. It is a leap of faith you haven't yet made, Odysseus.

-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해야만 하는 남자예요.
- 하지만 이것(징계) 만큼은 통제할 수 없죠.
- 폭풍에 온몸을 맡겨야 해요.
- 포세이돈에게 당신 자신을 내던지세요.
- 그리고 당신의 형벌(포세이돈의 외눈박이/키클롭스 아들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한 죄값)을 받아들이세요.
- 싸움을 멈추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남으세요.
- 오디세우스, 그건 당신이 아직 해보지 못한 믿음의 도약이에요.

칼립소: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해야만 하는 남자예요. 하지만 이것 만큼은 통제할 수 없죠. 폭풍에 온몸을 맡겨야 해요. 포세이돈에게 당신 자신을 내던지세요. 그리고 당신의 형벌을 받아들이세요. 싸움을 멈추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남으세요. 오디세우스, 그건 당신이 아직 해보지 못한 믿음의 도약이에요. - 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 감독의 〈오디세이〉의 한 장면




수많은 일과 갖은 고초를 겪었어요
고초를 극복하고 이기는 이들은 모두가 영웅입니다

좌측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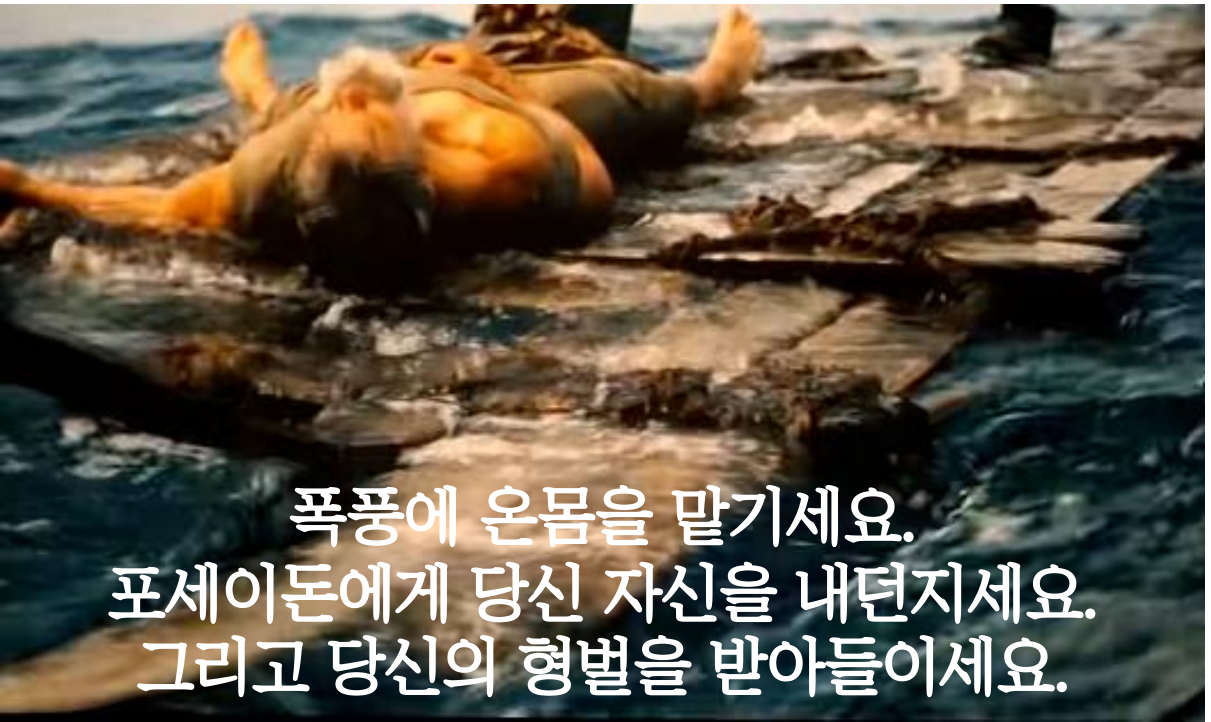
오디세우스의 뗏목(석판화)
The raft of Odysseus (Newell Convers Wyeth, 1929 -lithograph- Art of the 20th century)










폭풍에 온몸을 맡기세요.
포세이돈에게 당신 자신을 내던지세요.
그리고 당신의 형벌을 받아들이세요.



“오로지 나우시카만이 그대로 서 있었다.”
-스케리아(코르푸) 섬 해변-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어쩌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파도와 포세이돈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내맡기고, 흘러가게 하는 것, 20년 전의 전사 오디세우스가 아니라, 가릴 것 하나 없는 알몸 상태로 돌아가는 것....







-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란 것이 있다면, 그 운명이란 것은 피조물, DNA, 환경, 자유의지(자기 결정권) 등입니다.
-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자기 제한을 통해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이고 계명/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 율법이, 비록 사회계약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고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유익하므로 신성하게 여깁니다.
- 성경은 인간이 피조물이므로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응보를 받게 되고 고통과 시련을 겪습니다.
- 또 성경은, 인간이 자기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려면, 진실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조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삼상 8:1-22)

- 이스라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조건은 조상들의 출애굽사건과 광야생활의 신앙체험들을, 비록 그 체험들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비록 혈통이나 민족이 달랐더라도, 그 체험들을 기억하고 공감하며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로 수용하고 그 삶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땅(나라)을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언약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언약(토라)을 지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 같은 맥락에서 참 이스라엘(그리스도의 나라)의 구성원(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체험들을, 비록 그 체험들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비록 혈통이나 민족이 다르더라도,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삼상 8:1-22)

- 그 체험들을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로 수용하고 그 삶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승리와 영광과 하늘 땅(나라)을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여호와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 사무엘상 7장 13-17절은 미스바 전투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삼상 8:1-22)

- 그리고 이어지는 8장 1절에서는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최소 50세에서 70세까지 다양합니다. 탈무드(Talmud)는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52살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벡 전투(1102BC)로부터 사울이 즉위한 때(1050BC)까지가 52년입니다. 또 군사 3만 4천명을 잃고 여호와의 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겼던 아벡 전투가 있기 직전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때의 나이가 계명의 아들 곧 종교적 성인이 되는 12-13세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30세 초반 때 사무엘은 사사와 제사장 및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삼상 8: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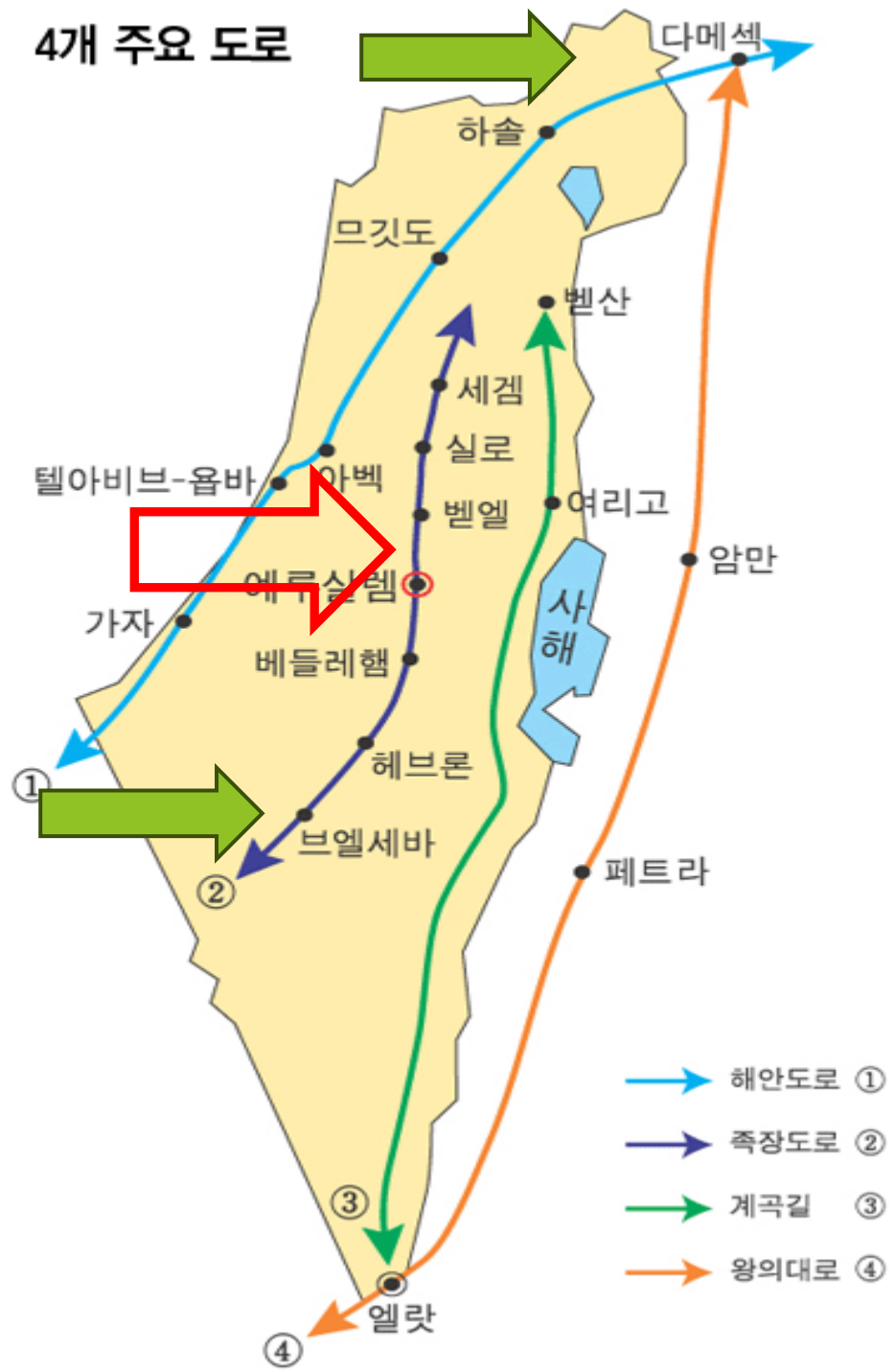
- 사무엘이 주도한 미스바 전투 때 블레셋과 싸워 대승을 거둔 후로 이스라엘에는 상당기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로부터 다시 불평이 쏟아진 것은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었기 때문이고, 사무엘이 보조 사사로 임명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기"(3절) 때문이며, 호시탐탐 블레셋이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아벡 전투가 있었던 주전 1102년에서 사울이 즉위한 주전 1050년을 빼면 52년이 됩니다. 거기에 아벡 전투 때 사무엘의 나이 13세를 더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을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65세쯤 됩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삼상 8:1-22)

- 출애굽 연도를 1446년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즉위한 해는 주전 970년이며, 다윗이 40년을 통치하였고(삼상 5:4, 대상 29:27) 사울 역시 40년을 통치하였으므로(행 13:21), 사울이 즉위한 해는 주전 1050년이 됩니다.
-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는 뜻은 사사직의 이양이나 계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사직이 계승된 사례가 없고 세습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늙어가면서 자신을 돕게 하려고 아들들을 보조 사사들로 임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문에는 사무엘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에 사사로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삼상 8:1-22)

- 반면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무엘의 두 아들 중 한 아들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 배치되었다고 말합니다(Josephus, Antiquities, VI, 3, 2).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2천 년 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을 수 있습니다.
- 또 두 사람이 처음에는 브엘세바에 함께 배치되었다가 부정문제가 불거지면서 떨어뜨려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4-5절)라고 탄원하였던 것입니다.


4개 주요 도로
다메섹
하솔
므깃도
벧산
세겜
실로
텔아비브-욥바
아벡
벧엘
여리고
암만
에루살렘
가자
베들레헴
사해
헤브론
①
브엘세바
②
페트라
③
엘랏
④
해안도로 ①
족장도로 ②
계곡길 ③
왕의대로 ④


지 중 해
시 리 아
헤르몬 산
단
헤몸호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하이파
갈멜산
티베라
거라사
나사렛
가나
수넴
가이사라
이스르엘평야
암 몬
므깃도
요
단
세겜
얍복강
텔아비브
욥바
사마리아
길르앗
길갈
암만
요 르 단
라말라
여리고
싯딤
★PLO 자치지구
예루살렘
얌멘비 출입국 관리소
쿰란
베들레헴
느보산
메드바
★가자
헤브론
엔게디
아르논강
맛사다
브엘세바
소금물짜기
고모라
소돔
모 압
길히라셋(카락성)
스바네아
네게브 사막
소알
바란광야
수르광야
호르산
에 돔
페트라 (셀라)
이 집 트
므리바물
에담광야
타바
출입국
시나이반도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삼상 8:1-22)

-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4절의 히브리 원문에는 '그래서'(So 혹은 Then)의 의미인 '와'(ו)로 본 절이 시작됨으로써, 3절의 내용이 4-5절의 내용을 유발시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의 이 탄원을 사무엘도 하나님도 모두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7절)고 하셨고,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9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삼상 8:1-22)

-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탐탐치 않게 생각하면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정 제도가 실시될 경우 필연적으로 야기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 첫째, 젊은 남녀들의 강제 징집에 관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은 백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을 강제로 징집할 것입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라는 말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국가 방위군으로서의 징집뿐 아니라, 왕 개인과 신하들의 사적 목적과 이익을 위한 임의의 징집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삼상 8:1-22)

- 둘째, 곡물과 가축의 징세 및 징용에 관한 것입니다.
- 셋째,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온갖 고초를 겪게 될 것에 관한 것입니다.
-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의 나라들과 동일한 형태의 권력형 군주로서, 사랑과 공의의 왕이시고 무적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그 욕심을 따라 스스로 택한 인간 왕의 모습입니다.
- 11-17절을 새번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들이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에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 떼 가운데서 열에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삼상 8:1-22)

- 이러한 제도는 사사시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사무엘은 왕들이 백성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알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 설사 왕이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평화를 보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평화는 피 흘림과 희생의 대가로 잠시 동안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샬롬'의 평화와 같지 않습니다.
- 그래서 사무엘은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18절)고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삼상 8:1-22)

- 백성들이 선택한 왕정제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고, 자신들의 평화와 안전을 무적의 신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에게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의지하고 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뜻)를 펼치시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하곤 합니다.
- 첫째는 목적의지이고, 둘째는 훈계(계명)의지이며, 셋째는 허락의지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삼상 8:1-22)

-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결코 모든 것의 원인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하나님의 의지(뜻)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목적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간이 결정하는 훈계의지도 있으며, 인간이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락의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당신을 낮추시고 제한하시는 분이시며, 피조물인 인간을 찾아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주권의 제한입니다. 피조물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피조물은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피조물이 필연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완전하지 못함 그 자체가 곧 죄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자기주권의 제한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를 두실 수 없고, 특히 배반을 일삼는 이성적 동물인 인간을 두신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피조물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만일 피조물이 완전하다면 하나님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결과의 원인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 만일 우리가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향유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삼상 8:1-22)

- 또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한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심으로써 그 책임을 인간에게 두시고도 자유에 따른 인간의 모든 우발적인 행동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사무엘상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제도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이 원한 왕정제도가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막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의지를 일컬어 하나님의 허락의지라고 말합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삼상 8:1-22)

- 하나님의 허락의지의 배경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물이 죄와 허물과 불행인 것입니다.
-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나라의 건국을 희망한 아브라함 이후 오늘날까지 4천여년 가운데 3천년을 떠돌이와 노예로 불행한 삶을 이어온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버젓이 살아남아 수천 년 동안 남의 나라의 땅이 되어버렸던 조상들의 땅을 되찾아 나라를 재건하고 세계인들에게 자신들의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실패와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 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할 의무를 수용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6-14장 연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삼상 7:12)

사무엘상 9장 1-27절

[1]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2]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3]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4]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 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무엘상 9장 1-27절

[5] 그들이 숩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6]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7]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8]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상 9장 1-27절

[9]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10]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11]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으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12]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무엘상 9장 1-27절

[13]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14]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15]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상 9장 1-27절

[17]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18]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19]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20] 사흘 전에 잃은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상 9장 1-27절

[21]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22]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삼십 명 가량이었더라.

[23]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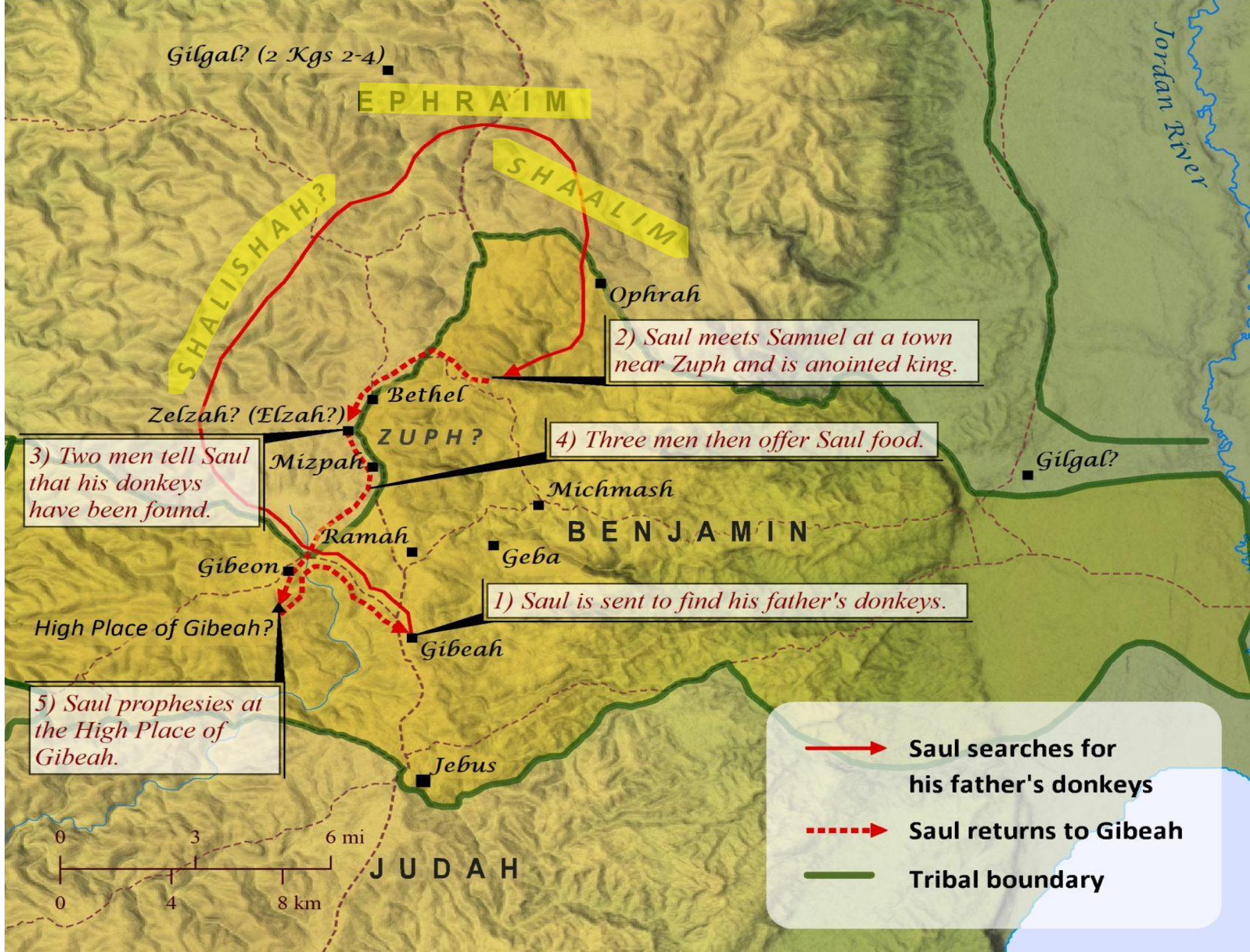
[24]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상 9장 1-27절

[25]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26]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27]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상
9-10장

사울이 아버지가 잃은 암 나귀들을 찾아 여러 날을 먼 길을 돌아 귀가한 배경에 <u>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u>이 있었습니다.







[8]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1 레바(¼ 세겔, רֶבַע שֶׁקֶל)는 약 2.85g

앞면: 보리/밀 이삭 밑에 '레바(¼) 셰켈' 이라고 새김.
뒷면: 화환 중앙에 'ד'(Dalet)을 새김. 해방(반란) 4년 차에 발행된 동전이란 뜻.



¼ 셰켈(רֶבַע שֶׁקֶל, 약 2.85g) 은화.
유대반란 중이던 AD 69년 이스라엘에서 주조된 것으로 유물 도굴꾼들이 예루살렘 남쪽 엘라 계곡(Elah 평원)에서 이 은화를 찾아 요르단을 통해 영국으로 반출하여 미국으로 수출했으나 2017년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경매직전에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압수하였다. 이 은화의 문화적 가치는 무려 100만 달러(13억5천만원)에 달한다.

בָּמָה(bamah)

“너는 내 앞서 산당(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Go up ahead of me to the high place”
(19절)





⬆므깃도의 산당

⬅석회암 바위를 깎아 만든 제단 (2.4m x 2.4m x 1.5m). 실로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

므깃도의 산당과 원형 제단



19세기 중동
마을의 사진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지붕에서 불러
이르되”
(25-26절)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 (삼상 10:1)
(Marc Chagall: c.1956; Paris in France,
매끈한 종이에 그린 애칭판화)





사무엘상 9장 1-27절

- 우리말 성경에서 '선지자'와 '예언자'는 모두 설교자입니다.
- '선지자'는 히브리어의 '로에'(רֹאֶה, ro'eh)나 '호제'(חֹזֶה, chozeh)에서 나온 말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렘 24:1, 겔 37:1, 암 7:1, 슥 3:1)을 전한 자들이었다면,
- '예언자'는 히브리어 '나비'(נָבִיא, nabi)에서 나온 말로써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 '호제'와 '로에'는 그 말뜻이 선견자(seer)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 '로에'는 '본다'라는 뜻이며, '호제'는 '환상을 보다', '꿈을 꾸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9장 1-27절

- 다음으로는 '나비(Navi 혹은 Nabi)'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카드어의 나부(Nabu)와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Nabu에는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고, 바빌론의 지혜와 글쓰기, 서기관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비'를 '부름 받은 자' 혹은 '알리는 자'(prophet, advocate)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나비'로 세우신 데서 볼 수 있듯이, 나비는 대언자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점치는 점성술사나, 복술자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출 7:1).

호제 · 로에 · 나비 차이표

구분	호제 (Chozeh / Hozeh)	로에 (Roeh)	나비 (Nabi / Navi)
번역	**선견자** (환상을 보는 자)	**선견자** (보는 자)	**선지자 / 예언자** (대언자)
어원 및 뜻	'환상을 보다', '꿈을 꾸다'	'보다', '분별하다'	'부름을 받다', '선포하다', '말하다'
인식 방식	시각적 (초자연적) 황홀경, 환상, 꿈을 통한 계시	통찰적 (이성적/분별적)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꿰뚫어 봄	청각 및 구두 (전달)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대언함
주요 역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묵시를 수령함	하나님의 뜻과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함	하나님을 대신하여 메시지를 백성에게 외침
사용 시기	초기~왕정 시대 (점차 '나비'로 통합)	구약 초기 (사무엘 이전 시대에 주로 사용)	왕정 시대 이후~선지자 시대의 대표적 칭호
성경 속 인물	아모스, 가드, 잇도 등	사무엘 등 (삼상 9:9)	모세, 아론, 엘리야, 예레미야 등

핵심 요약

- **로에와 호제(선견자)**는 주로 **'메시지를 받는 과정(수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와 뜻을 환상이나 영적 통찰로 '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 **나비(선지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전달)'**에 초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나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입이 되어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대변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 사무엘상 9장 9절("지금 선지자[나비]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로에]라 일컬었더라")에서 알 수 있듯이, 시대가 흐르고 예언의 형태가 환상(보는 것)에서 말씀(듣고 전하는 것)으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점차 **'나비'라는 칭호로 통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7절

- 사무엘상 8장부터는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외모가 출중하긴 하였으나 별 볼일 없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영성이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거주하면서 두 거대 지파가 충돌하는 것을 자의든 타의든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지파였습니다.
- 수적으로 매우 약했고, 수시로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만일 지파동맹의 초대 통합 왕으로 에브라임 지파사람이나 유다 지파사람이 뽑혔다면, 혹은 다른 강한 지파에서 뽑혔다면, 지파간의 큰 충돌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지파에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왕이 뽑힌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27절

- 북과 남사이의 완충 고리 출신의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멸시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은 그가 별 볼일 없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10:27).
- 하나님의 보좌이자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북쪽 실로에서부터 서서히 블레셋의 성읍들을 거쳐 두 거대 지파들 사이의 완충지대로 옮겨진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 이 궤는 머지않아 다윗 성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중심은 별 볼일 없는 베냐민 지파출신이면서 영성까지 부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사울로부터 유다 지파 출신이면서 영성까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사무엘상 9장 1-27절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 사울이 왕위에 오르기도 하고 폐위되기도 한 과정에는 순종이란 주제가 담겨있습니다.
- 백성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원한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 하나님은 단지 백성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회개의 기도, 16절)을 들으셨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적합한 인물이 왕이 되도록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7절

-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의지)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작정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 사울에게도 일정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만한 선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나 폐위되게 된 경위에는 모두 순종과 회개가 있습니다.
-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거나 입지 못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배경에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준수한 자였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7절

- 또 그가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3-10절까지를 보면, 그는 암나귀들을 찾으라"는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인 것을 봅니다.
-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자는 사환의 권고에도 귀를 기울여 선지자를 찾아 나섰던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지시대로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종이 바로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최우선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 고대세계의 왕들은 모두가 자칭 신의 현현(계시) 혹은 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신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7절

-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종(일꾼)에 불과하였습니다.
-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의 현현(계시)이 사람의 모습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 하나님은 구름기둥, 떨기나무의 불꽃, 등, 야곱과 씨름한 천사처럼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했으나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 하시곤 하였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7절

-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백성에게 그것을 대언하였습니다.
  - 예언자=대언자(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 성경=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적어놓은 책
- 히브리서는 1장 1-2절에서 "옛적에 선지자들(달빛)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햇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 구약성경="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적어놓은 책
  - 신약성경="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적어놓은 책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신약성경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7절

- 사울은 사환의 권고에 따라 사무엘을 찾아 나셨습니다.
- 사울은 여러 날 헤매며 고생한 그 먼 길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섭리였음을 몰랐습니다.
-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함("부르짖음", 16절)으로 사울을 왕으로 얻게 되었고, 사울은 순종함으로 바라지 않았던 왕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 당시 삼권(사사, 제사장, 선견자)을 가졌던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 출애굽기에서 강조된 말씀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만 무려 10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7절

- 출애굽기 39장 42-4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 성막 제작 과정에서 보여준 핵심사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뤄져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뤄지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 사무엘상의 핵심사상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삼상 15:22)는 것입니다.
- 사울이 순종했을 때 왕위에 올랐고, 불순종했을 때 폐위되었습니다.

- 사울이 순종했을 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볼 것 없는” 출신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초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삼상 15:17).
- 하지만, 불순종을 거듭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행 13:22) 다윗에게로 옮겨갔습니다.
-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감응(以心傳心, 感應=telepathy/멀다+감정)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마 22:36-40)
  -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 이웃을 자기를 위하듯 사랑하는 것
-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감응(感應, 以心傳心)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심이 천심(民心是天心), 백성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民淚是神淚)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는 러시아 격언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혹된 민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사무엘은 사울을 객실로 안내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실은 산당에 부속된 별실로써 화목제를 드린 후 그 제물을 함께 먹는 방이었을 것입니다(삼상 1:4,8,18).
- 화목제(和睦祭)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로써 예배자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 그리고 화목제는 예배자가 자기가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 이었습니다. 초대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 화목제의 특징은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데 있습니다. 화목제는 내장의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 제사장, 이웃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의 제사였습니다. 주의 만찬의 근거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7절

- 사무엘은 사울과 사환을 상석에 앉혔습니다. 사무엘은 이때 이미 사울을 왕으로 사환을 그의 신하로 예우했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된 30여명의 손님들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의 증인들로서 유력한 인사들이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의 몫으로 남겨둔 고기는 넓적다리였습니다. 화목제에서 우측 넓적다리는 제사장이 몫이었고, 좌측 넓적다리는 예배자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부위가 사울에게 주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여러 유력인사들의 상석에 앉히고 가장 귀한 음식을 미리 준비케 하였다가 그에게 준 것은, 아직 기름을 붓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에 버금가게 대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5절에서 말하는 지붕은 옥상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의 집은 평지붕이었습니다. 지붕은 테라스나 거실처럼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이자 더위를 피해 잠을 자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 아침 동틀 때쯤에 일어나 사무엘은 사울을 보내기 위해 성읍 끝까지 동행한 후에 사환을 먼저 보내고 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삼상 10:1).
- 사무엘이 비밀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지파간의 충돌이나 갈등을 우려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 비밀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된 사례가 열왕기하 9장에도 나옵니다. 엘리사가 제자 중 한 청년을 불러 기름병을 손에 들려 전장으로 보내 여러 신복들 가운데서 예후를 따로 불러 골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하기를,

사무엘상 9장 1-27절

-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놓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르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바로 문을 열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 선지자 엘리사가 쿠데타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27절

- 예후가 왕이 된 사례에서 보듯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유력한 지파들과 뛰어난 인물들 사이에서 가장 약한 지파출신의 아직 어리고 미력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시키기 위해서는 용의주도한 전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6-14장 연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삼상 7:12)

사무엘상 10장 1-27절

[1]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2]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3]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오려고 벧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사무엘상 10장 1-27절

[4]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5]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상 10장 1-27절

[8]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라.
[9]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무엘상 10장 1-27절

[12] 그 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13]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14]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15]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무엘상 10장 1-27절

[16]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17]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8]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19]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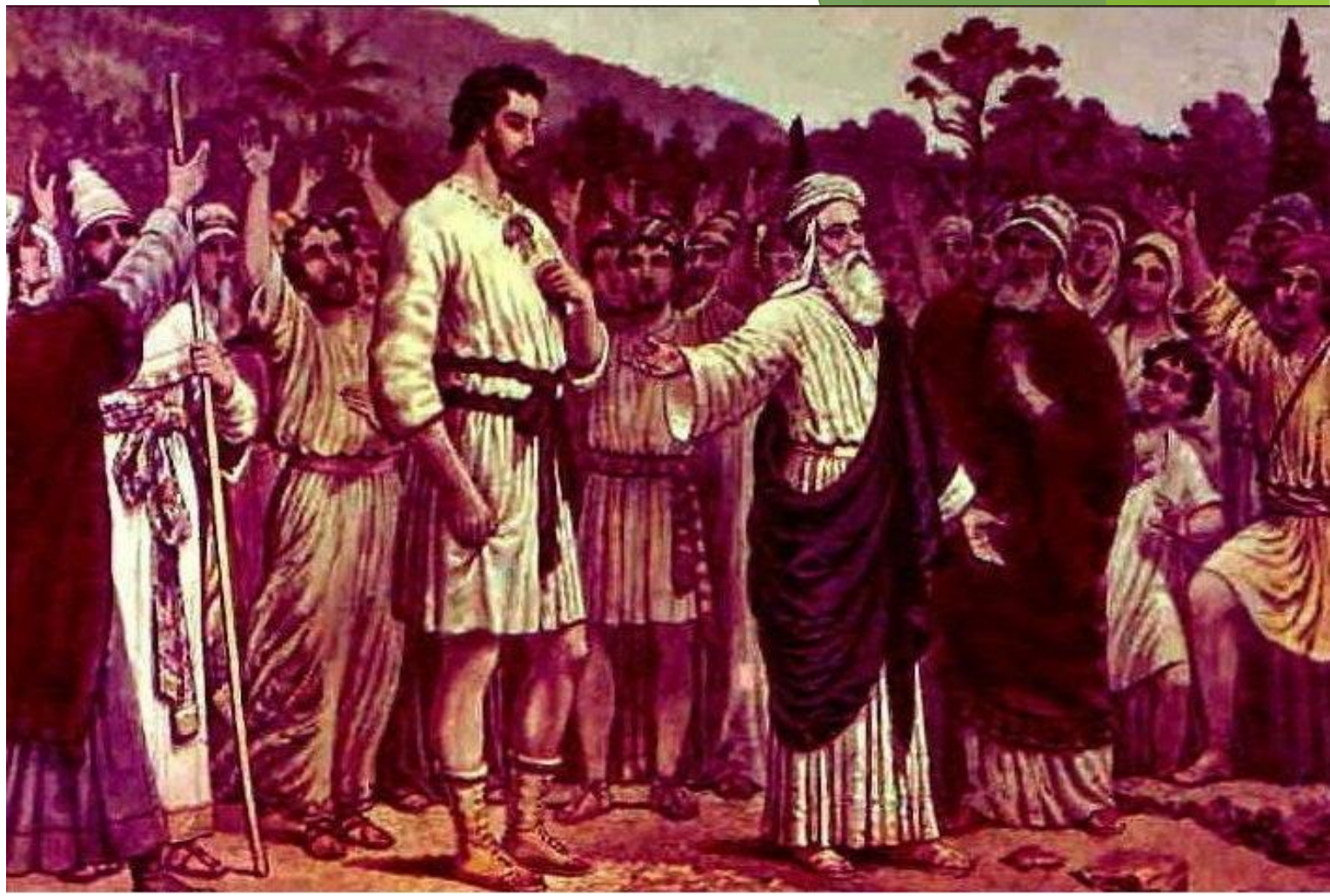
사무엘상 10장 1-27절

[20]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2]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23] 그들이 달려 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상 10장 1-2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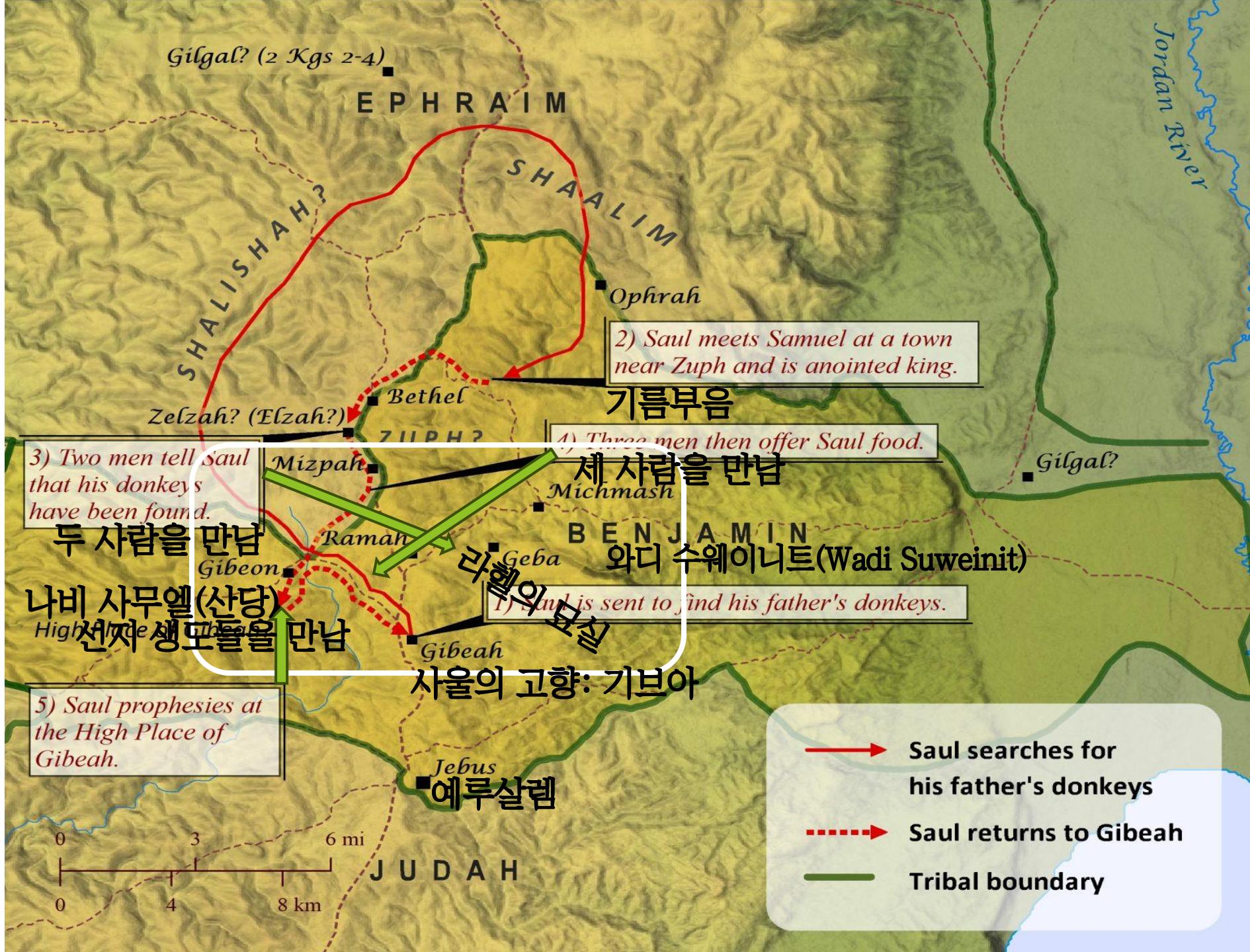
[24]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25]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26]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27]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헬의 묘실"(qəburat rachel, קִבְרַת רָחֵל, 거대한 돌무지), "다볼 상수리 나무"(엘론 타보르, (אֵלוֹן תָּבוֹר), "하나님의 산"(Gibeath-Elohim, גִּבְעַת הָאֱלֹהִים) 및 "블레셋 사람의 영문"(수비대)는 모두 랜드마크(이정표)였습니다. 사무엘은 지형지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야훼의 선견자임을 증명하였고, 사울에게 야훼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확증을 심어줍니다.

라마(높은 곳)와 게바 사이에 '쿠부르 바니 이스라엘'로 불리는 돌무더지가 있는데, 이 거대한 돌무지(이정표)가 라헬의 묘실로 추정된다. 라헬이 베냐민 난산직후 숨을 거두자 장사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며, 게바와 믹마스 사이의 계곡이 여리고까지 이어지는 와디(마른 강) 켈트로 연결되는 와디 수웨이니트(Wadi Suweinit)의 상류이다.




Ophrah
Mount Zemaraim?
Bethel?
Beth-horon (Lower)
Jeshanah?
Ebenezer Monument?
Beth-horon (Upper)
Mizpah
Michmash
Geba
To PHILISTIA
Ramah
Gibeon
Aijalon
Gibeah
Kiriath-jearim
0
2
4 mi
0
4 km
Jebus (Jerusalem)

쿠부르 바니 이스라엘 (Qubur Bani Isra'il):

'이스라엘 자손의 무덤'이란 뜻. 라마와 게바 사이에 중기 청동기 시대의 4개(이전 5개)의 돌무지가 있으며, 이곳이 라헬의 묘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쿠부르 바니 이스라엘 (Qubur Bani Isra'il):

'이스라엘 자손의 무덤'이란 뜻. 라마와 게바 사이에 중기 청동기 시대의 4개(이전 5개)의 돌무지가 있으며, 이곳이 라헬의 묘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큰 나무가 드물었던 이스라엘 산지에서 이정표(landmark) 역할을 한 상수리 나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블레셋의
해안 도시
아스글론(Ashkelon)의 영문



블레셋의
해안 도시
아스글론의
영문



라마와 게바 사이에 '쿠부르 바니 이스라엘'로 불리는 돌무더지가 있는데, 이 거대한 돌무더지(이정표)가 라헬의 묘실로 추정된다.
라마 일대는 주전 586년에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집결했던 곳이며, 예레미야가 풀려난 곳이다.





와디 수웨이니트(Wadi Suweinit): 믹마스(Michmash)와 게바(Geba) 사이에 있으며, 와디 파라(Wadi Farah)를 거쳐 와디 켈트(Wadi Qilt)에 합류하는 거대한 단층 계곡.
Gibeath-Elohim(גִּבְעַת הָאֱלֹהִים, 5절, 하나님의 산, hill of God).



와디 수웨이니트(Wadi Suweinit): 믹마스(Michmash)와 게바(Geba) 사이에 있으며, 와디 파라(Wadi Farah)를 거쳐 와디 켈트(Wadi Qilt)에 합류하는 거대한 단층 계곡.

믹마스(Michmash)와 게바(Geba) 근처에 있는 협곡



믹마스(Michmash)와 게바(Geba) 근처에 있는 협곡



와디 수웨이니트(Wadi Suweinit): 믹마스(Michmash)와 게바(Geba) 사이에 있으며, 와디 파라(Wadi Farah)보다 약간 북쪽에 치우쳐 시작되어 와디 켈트(Wadi Qilt) 본류로 합류하는 거대한 단층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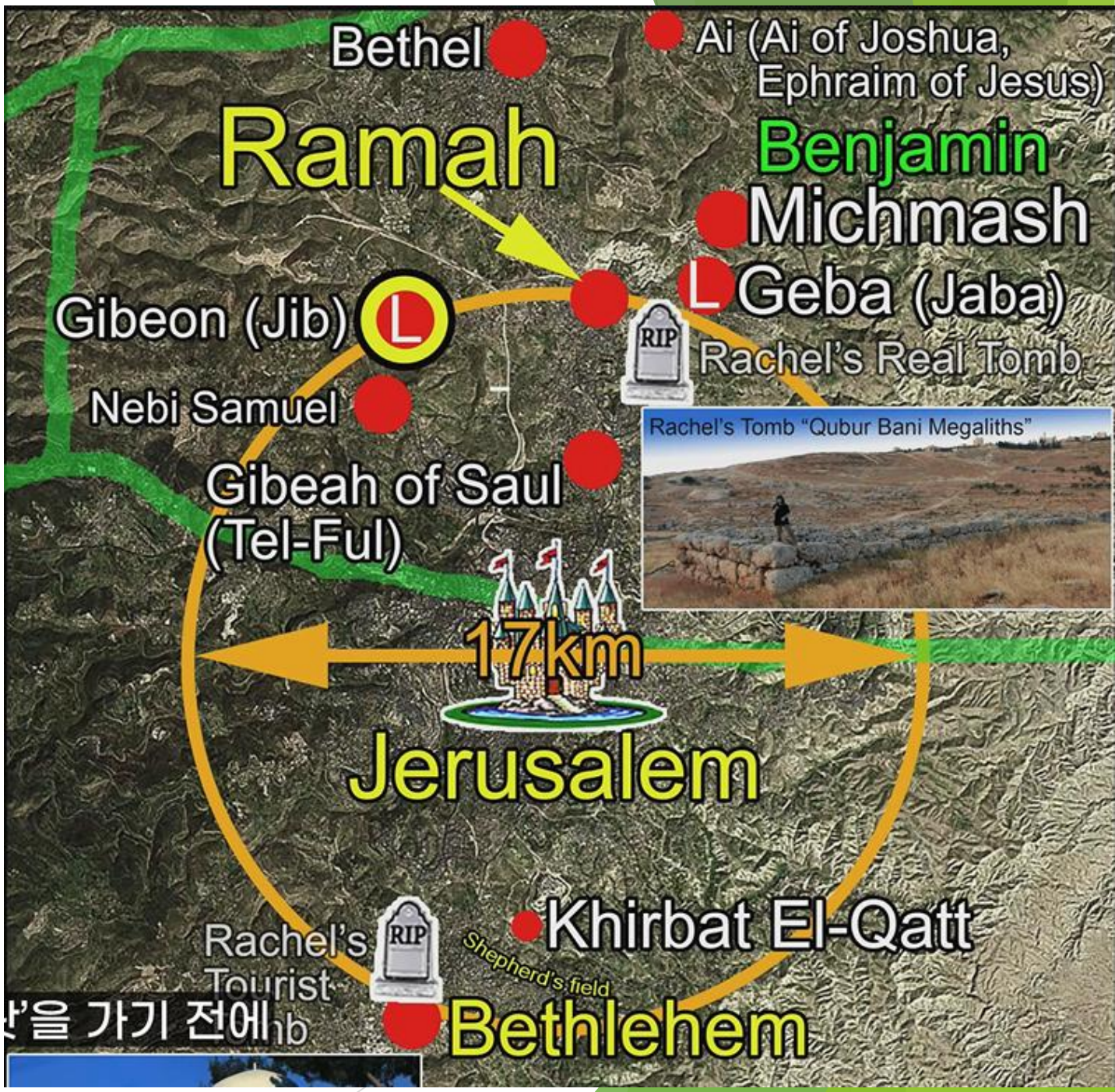


와디 수웨이니트 (Wadi Suweinit): 믹마스(Michmash)와 게바(Geba) 사이에 있으며, 와디 파라(Wadi Farah)보다 약간 북쪽에 치우쳐 시작되어 와디 켈트(Wadi Qilt) 본류로 합류하는 거대한 단층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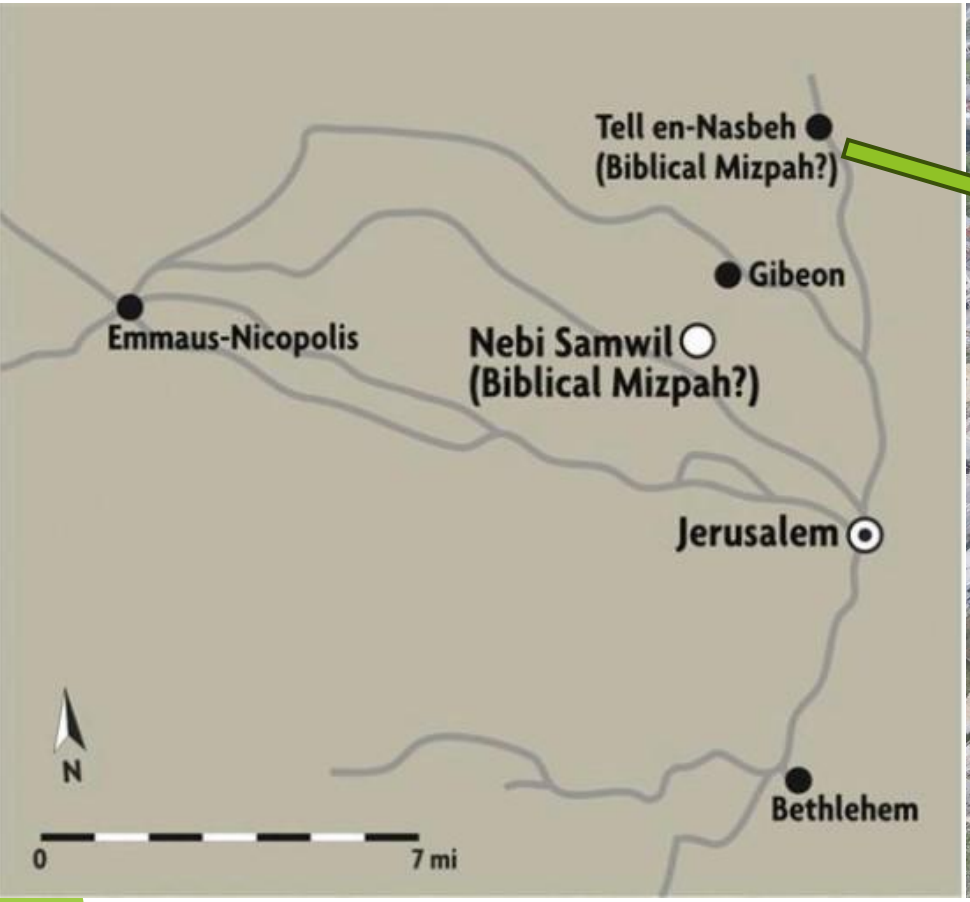
라마는 라헬이 베냐민 난산 후 사망한 곳일 가능성이 높다(창 35). 라마가 자식 잃은 슬픔과 통곡의 원형이 되었기 때문이다.

- 예레미야는 라헬의 죽음을 유대인들의 바빌론 유배상황에 비유하여, "…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렘 31:15)고 하였고,
- 마태는 "이에 헤롯이 … 사내아이를 …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마 2:16-18)라고 풀었기 때문이다.



미스바 특징: 망대, 망보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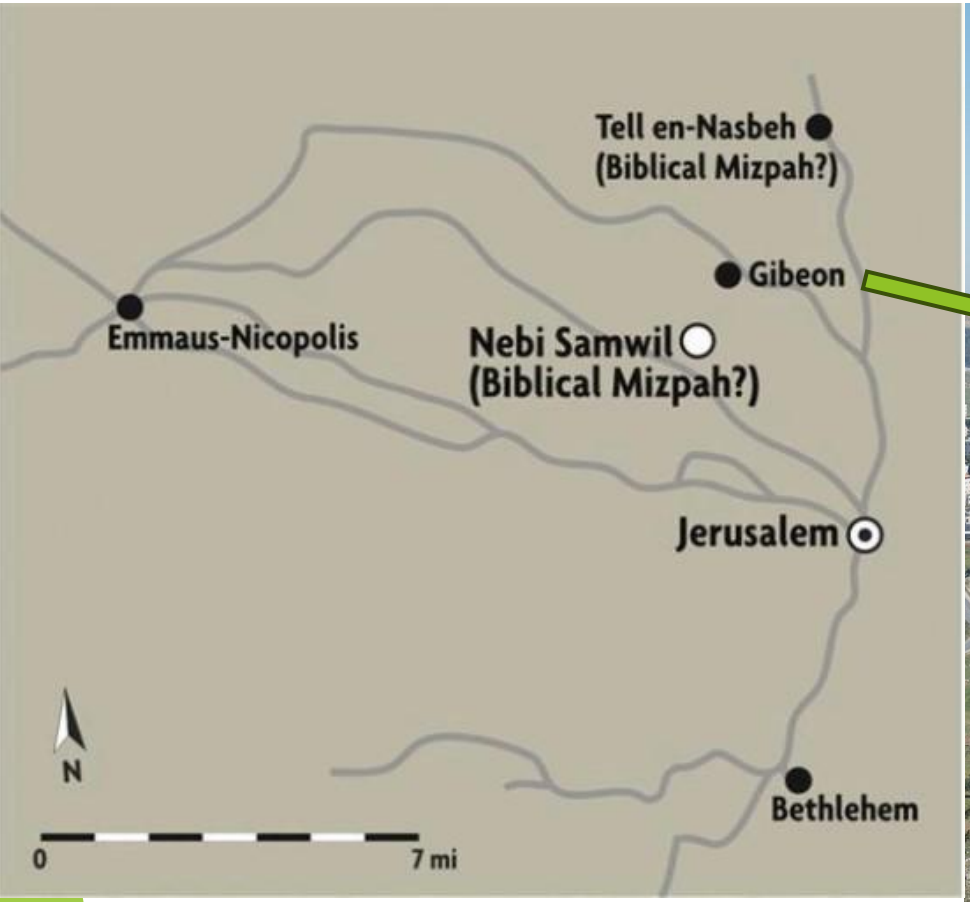
- 해발 고도: 약 908m (지형에 따라 885m~908m로 표기)
- 위치: 예루살렘 북서쪽 약 8~10km 지점
- 지리적 특징: 주변 평지와 예루살렘 접근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





기브온: 현재의 El-Jib(알집)

- 해발 고도: 약 730-770m
- 위치: 예루살렘 북서쪽 약 9~10km 지점
- 지리적 특징: 베냐민 평지 지대로 이어지는 요충지





나비 사무엘: 기브온(기브아) 산당, 선지 학교, 기베앗 엘로힘(하나님의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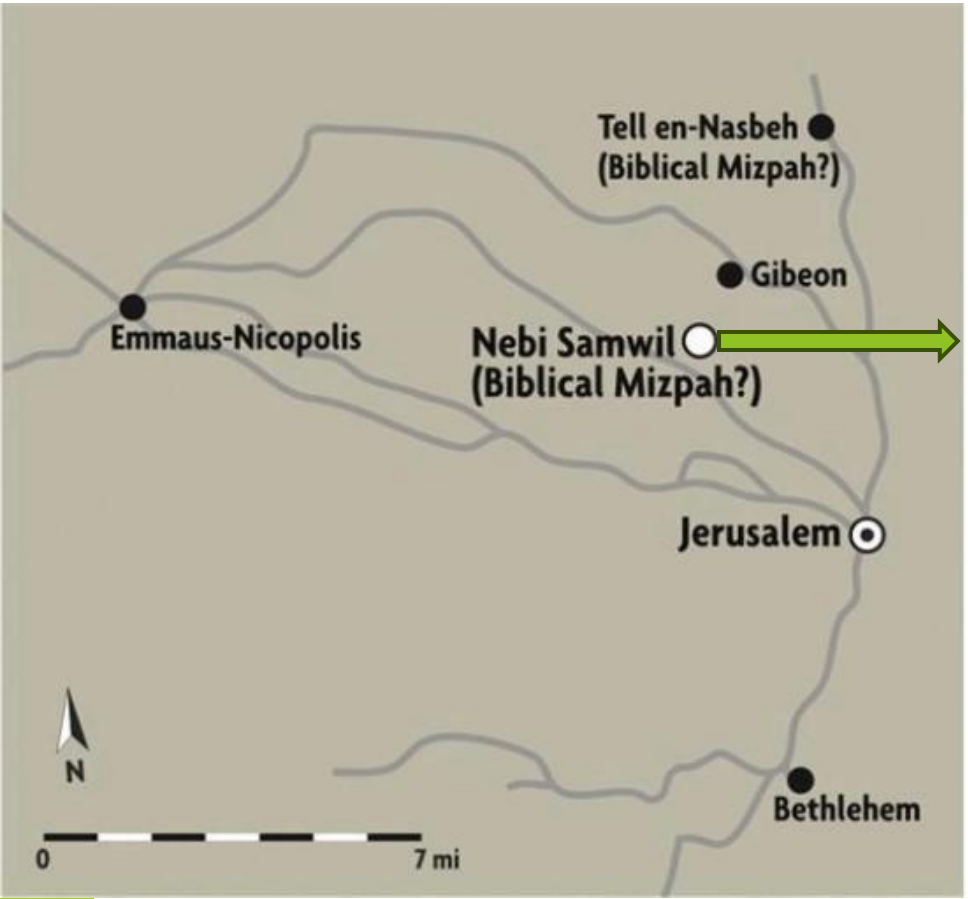
- 해발 고도: 약 885-908m
- 위치: 예루살렘 북서쪽 약 5~8km 지점
- 지리적 특징: 기브온에서 남쪽으로 1~1.5km 떨어진 높은 산지, 미스바로 추정되기도 함.





나비 사무엘: 기브온(기브아) 산당, 선지 학교, 기베앗 엘로힘(하나님의 산)

- 해발 고도: 약 885-908m
- 위치: 예루살렘 북서쪽 약 5~8km 지점
- 지리적 특징: 기브온에서 남쪽으로 1~1.5km 떨어진 높은 산지, 미스바로 추정되기도 함.





-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테레사 수녀, 십자가의 성 요한 등 갈멜회 수도자들이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던 경구입니다.
- 1866년 3월 30일 성금요일에 충청수영(갈매못)에서 군문효수를 당한 가톨릭교회의 프랑스 선교사 다블뤼 주교도 가족을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 경구를 문장 첫머리에 썼고, 주교품을 받을 때에도 주교 문장 안에 이 경구를 새겼다고 합니다.
- 다블뤼 신부는 조선 후기 박해가 한창이던 1845년 페레올 주교 및 김대건 신부와 함께 중국 상해에서 돛단배를 타고 고초 끝에 금강뱃길을 통하여 익산시 망성면 소재 황산나루터(나바위 성지)에 이르러 상복차림으로 조선에 입국하여 목이 베이는 순간까지 21년간

사무엘상 10장 1-27절

- 질병과 배고픔과 싸우며 수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순교한 해는 개신교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기 19년 전이었습니다.
-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곧 하나님을 가졌을 때 모든 것을 누렸지만, 불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 사무엘상 10장에는 영성이 부족했던 사울의 신앙을 사무엘이 지도하여 높여 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 그로 인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걷지 못했던 왕의 길을 닦아 나갑니다.

사무엘상 10장 1-27절

-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춰 축하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행한 기름부음 의식이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부으심이었음을 명확히 일러주었습니다.
- 오늘날 교회에서 기름부음의 상징으로 행하는 안수례가 사람들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신약시대에는 침례가 기름부음을 상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그리스도 직에 임직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침례 직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마치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27절

-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는 임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침례는 교회의 출범 때부터 기름부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히뽈리뚜스의 〈사도전승〉을 번역하고 해제를 쓴 이형우 신부는 이를 일컬어 "제2의 그리스도(alter christus), 즉 그리스도인(christianus)으로 탄생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교가 처음부터 침례직후에 머리와 이마에 기름을 바르는 견진례 의식을 시행해왔던 것은 침례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27절

- 사무엘은 사울에게 부모를 만나 안심을 시켜드린 후에 길갈로 내려가서 칠 일간 숙고하며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왕이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식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필요한 제사였을 것입니다.
-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중대한 일들에 있어서 사울은 매우 수동적이고 사무엘은 매우 능동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이 대체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도 사명도 받지 아니한 일꾼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꾼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27절

- 참고로 번제(燔祭)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와 함께 세트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화제였습니다. 번제 때 제물이 불에 타면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의 몫이었고, 가죽은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번제를 통해서 온전한 헌신과 감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몫이 없었습니다. 가죽만 취했던 제사장은 번제와 함께 세트로 드리는 소제나 화목제 등을 통해서 필요한 몫을 더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27절

- 화목제(和睦祭)도 소제(素祭)처럼 자원해서 바치는, 불에 태우는 화제였지만, 다 태우지 않고, 내장과 기름만 상징적으로 태웠습니다.
-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상징하기 위해서 무교병과 함께 드려졌습니다. 번제와 고운가루로 만든 부침이나 전병이 함께 드려지듯이, 화목제도 무교병과 함께 드려졌습니다.
- 이는 속죄와 친교 의미를 갖는 주의 만찬에서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누룩 없는 마른 빵의 예표이자, 모형이며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특징은 예배자에게도 일정한 몫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27절

- 동물의 가슴은 요제로 흔들고, 오른쪽 뒤 넓적다리는 거제로 높이 쳐든 다음 가죽과 함께 제사장에게 주어졌고, 나머지는 예배자가 가져다가 가족친지 또는 이웃들과 함께 그날로 다 먹어야 했고, 먹다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화목제로 드린 고기는 예배자든, 제사장이든 그것을 결코 혼자서 독식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드시 제사 드린 바로 그 날에 모두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和睦祭)의 중요성

친교, 구제(가난한 자들에게 회식의 기회가 주어짐), 야훼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내려 주신 뜻에 공동체가 참여한다는 의미

사무엘상 10장 1-27절

- 길갈(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 -230~250m)은 여리고 인근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이곳에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고(수 4:19), 요단강을 통과한 것을 기념하여 비석을 세웠던 곳이며(수 4:19-24),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켰던 곳입니다(수 5:2-11).
- 유월절을 지킨 후 이곳 길갈에서 만나가 그쳤습니다(수 5:12).
-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길갈에 내려가 칠일을 기다리고 한 것은 사무엘 자신에게도 백성들을 소집할 시간이 필요했고, 사울도 자신을 성별할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27절

- 사무엘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길갈로 사울을 보내 새 출발과 헌신을 다짐할 기회를 갖게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길갈은 라마, 기브아, 미스바, 벧엘 등과 함께 사무엘의 주요한 활동무대였습니다.
- 9절은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다 듣고 길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이미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 날로 다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 또 10절은 사울과 사환이 '하나님의 산'(Gibeath-Elohim, גִּבְעַת הָאֱלֹהִים)도착했을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27절

-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견진/확증(confirmation)에 해당됩니다.
- "선지자의 무리"는 사무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 사울을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은 선지자의 무리에 섞여서 예언을 하는 사울을 보고 그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11-12절)며 수군거렸습니다.
- 사울은 예언하기를 마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산당으로 갔습니다(13절).

사무엘상 10장 1-27절

- 참고로 여기서 말한 "예언"은 예언자들의 예언 곧 미래에 있을 사건이나 일 곧 하나님의 뜻인 회개와 회복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여기서 말한 "예언"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 신령하고 특별하며 특이한 찬양을 의미했다고 봐야 합니다.
-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 혹은 '하나님의 신'은 대개가 삼위일체 신앙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과 쓰임이 같지 않습니다.
- 구약성경에서 야훼 하나님은 유일하신 성령(거룩한 영)이십니다.

- 사울이 예언했다는 히브리어 동사 '나바(נִבָּא)'는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나타난 '강렬한 종교적 황홀경 상태'와 '찬양과 선포 행동'을 의미합니다.
  - '나바(נִבָּא)'의 본래 뜻: "선지자처럼 행동하다."
  - 선지생도들이 수금과 소고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영에 깊이 몰입해 노래하고, 춤추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동적인 행동
  - 미래의 일을 말하거나 신비한 방언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신적 임재로 인해서 미친 듯이 날뛰거나 쓰러져 찬양하는 통제 불능의 상태
  - 하나님의 주권을 소리 높여 고백하거나 대언(代言)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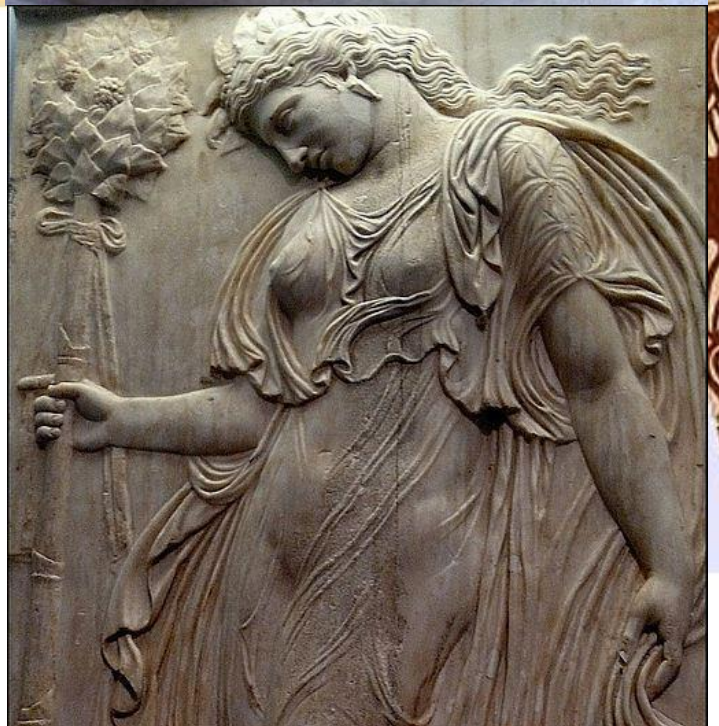


피리소리에 맞춰 소고치며 춤추는 디오니소스 여사제들 (주전 450년경, 파리 루브르). 이 광란의 축제 때 억눌려 살던 여성들이 마음의 치유와 해방을 맛보았다.











바쿠스(디오니소스)축제 때 여성사제들이 광란(헤드뱅잉)하는 모습
기도나 예언하는 여성들에게 옷차림을 단정히 할 것과
주의 만찬을 질서를 갖춰하라는 바울의 권면과 대조를 이룬다.

고대 로마의 바쿠스 축제(Bacchanalia)에서 여사제들과 추종자들이 경험한 엑스터시(Ecstasy, 황홀경)는 <u>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종교적 무아지경</u>을 의미했다.

사무엘상 10장 1-27절

- 14-16절은 사울과 사환이 산당에서 내려와 자신들의 집에 도착한 사실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고 숙부가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숙부가 사울 왕국에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의 숙부는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된 '아브넬'의 아버지 '넬'이었기 때문입니다(14:50-51, 대상 8:33). 숙부 넬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16절)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27절

- 숙부 넬은 암나귀 사건(9:3-4) 이후 확실히 변화된 모습과 행동을 보인(10절) 사울에게서 어떤 예감을 갖고, 그에게 일어난 일의 자초지종을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기름부음까지 받았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 하나님의 계획이 공개되는 순간 사울이 위험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잘못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단단히 일러줬을 것입니다(9:25-27).

사무엘상 10장 1-27절

- 사무엘은 백성을 다시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는 두 거대 지파들 곧 에브라임과 유다의 완충지대인 베냐민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모이기에 적합한 지리적 이점이 있었고(7:5), 이스라엘을 오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했던 기념비적 장소(7:6)였으며, 사무엘의 활동무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백성"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동맹으로 구성한 각 지파에서 천 명씩 뽑힌 대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숫자만도 일만 이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 17절의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은 종종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나 성막 또는 대제사장의 우림이나 둠밈(출 28:30) 앞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27절

- 사무엘은 18-19절에서 모인 대표자들에게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고 책망하며 장차 그 왕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고통도 그들 자신이 감내해야 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8:9-18).
- 20절에서는 어느 지파, 어떤 가문, 어떤 인물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 제비뽑기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수 18:6, 8, 욘 1:7, 행 1:20-26). 성경에 언급된 제비뽑기는 그 결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곧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잠 16:33)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27절

- 제비뽑기에서 선택된 지파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는 사울 가문이 뽑혔습니다.
- 그리고 사울 가문에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마도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있었습니다. 사울이 사람들 앞에 등장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키가 컸고 풍채가 우람하였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고 만족한 모든 사람들이 "왕의 만세" 곧 '만세수를 누리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27절

- 이에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설명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 곧 여호와의 권위아래에 둔 후에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25절).
- 사울도 기브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행로에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26절)였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군사 정치 모든 면에서 사울 왕을 보필하기에 적합한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 반면에 사울에게 반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 가장 강했던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27절

-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그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일종의 갑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 왕에게 충성심을 표하지도 않았고, 공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 반면에 아직 기반이 약했던 사울은 때를 기다리며 귀먹은 사람처럼 못들은 체하며 그들의 반발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유명한 경구에서 보듯이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얻었지만, 불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 사무엘상 10장에는 영성이 부족했던 사울의 신앙을 사무엘이 지도하여 영성을 높여 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전에 아무도 오르지 못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 반면에 사울이 왕이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일부분 그의 출중한 외모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긴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구하여진' 혹은 '요청하여진'입니다.
- 그의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셨고, 사무엘이 꼭 필요한 부분을 준비를 시킨 것은 맞지만, 여전히 그는 준비된 왕이 아니었고, 백성이 구해서 된 왕이었습니다. 그 점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지 못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 사울의 사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인간의 요청으로 이뤄진 일들은 이미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로 끝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그러나 사울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빛과생명교회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With this faith=이 믿음으로!

- "이것, this"이란 바라는 것들이 이뤄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실체가 된다는 확신 곧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티크바'(그 희망)와 '에무나'(신실함)을 말합니다.
- "믿음, faith"이란 주어진 것에 더해질 때 '시너지'(synergy) 곧 협업, 상승, 기적 등을 일으키는 힘을 말합니다.
- "시너지, συνεργός"란 σύν(함께)+ἔργον(노동) 곧 협업을 뜻합니다.



사무엘상 6-14장 연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삼상 7:12)

사무엘상 11장 1-15절

[1]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2]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3]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4]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사무엘상 11장 1-15절

[5]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6]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8]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사무엘상 11장 1-15절

[9]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10]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11]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 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12]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상 11장 1-15절

[13]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4]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고대의 전령들

- 고대의 전령들은 러너들(runners)이었습니다. 산지가 많고 도로가 험한 이스라엘에서는 러너들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참고: 삼하 18장, 러너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구스(쿠시, 수단) 사람
- 전령들은 필요에 따라 말, 병거, 낙타를 이용했습니다.
- 고지대에 세워진 파수대의 신호(횃불, 연기, 깃발)를 통해서 적의 침입 같은 긴급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벤야민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실로로 달려왔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삼상 4:12, 가톨릭성경)-
옷을 찢고 흙먼지를 날리며 혼신을 다해 달렸다는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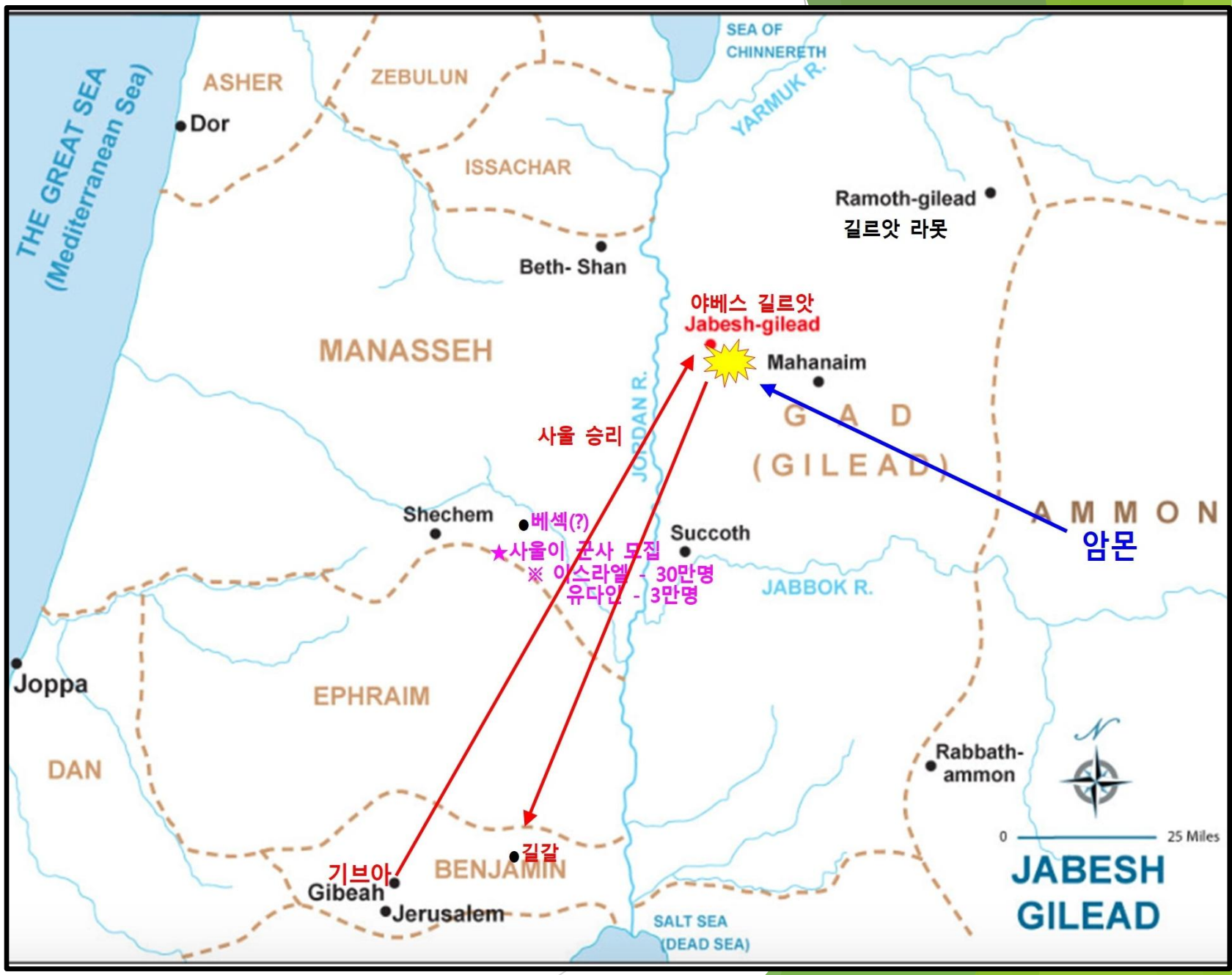
고대의 전령들

- 이 구절은 언약궤를 앞세운 아벡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삼만 명이 살륙당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한" 참담한 패배 소식을 베냐민 지파 소속의 러너인 한 전령이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며 달리고 달려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알렸다는 내용입니다.
- 그가 이날 달린 거리는 42.2km였다고 합니다.
- 6일 전쟁 이후, 마카비아 경기(유대인 올림픽)의 선구자였던 요셉 예쿠티엘리는 로쉬 하아인(아벡)에서 고대 실로까지의 경로를 측량했는데, 그 거리가 현대 마라톤 코스의 길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고대의 전령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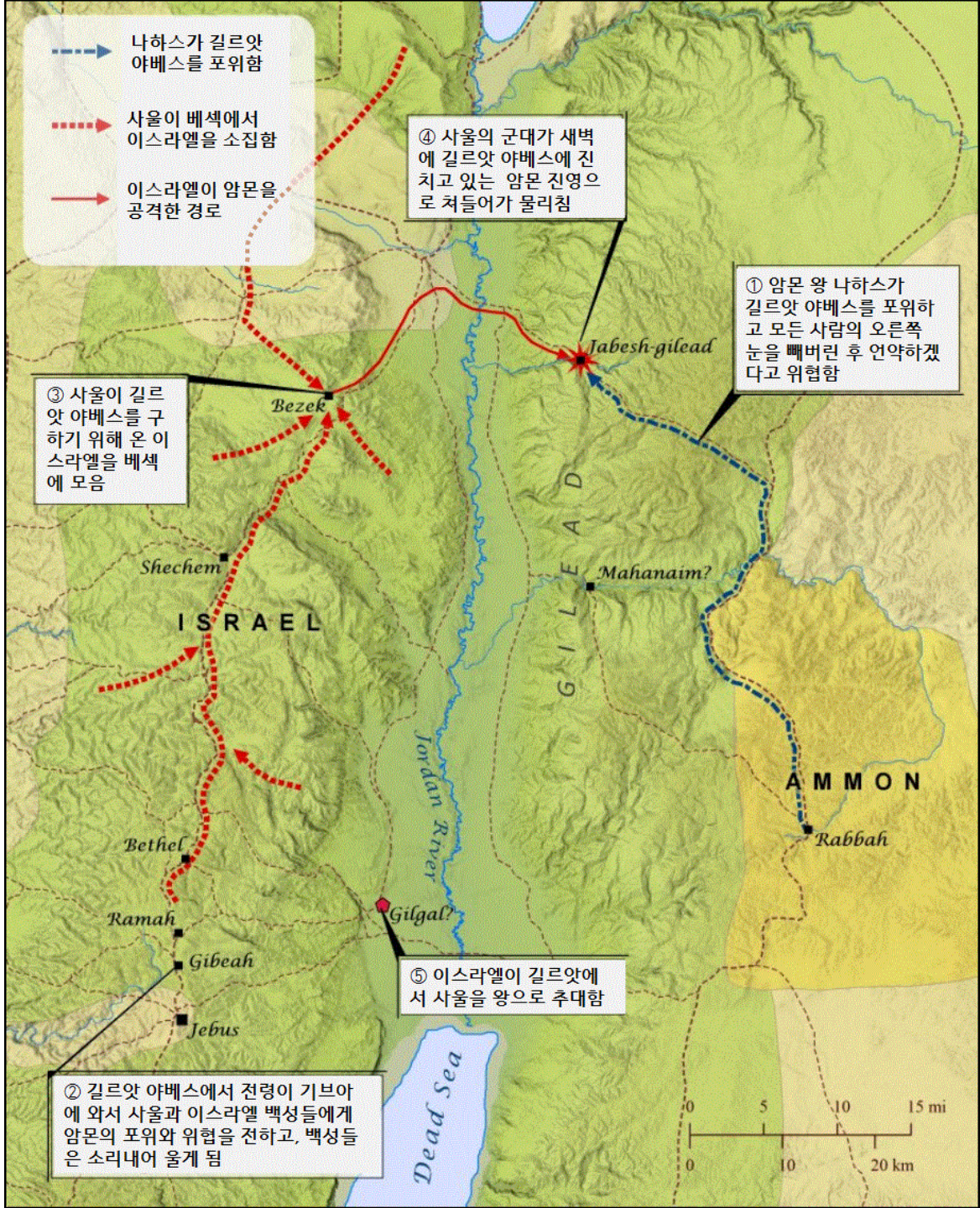
- 이 사건은 그리스의 마라톤 전투보다 무려 수백 년 앞선 기록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경 속 전령의 루트를 그대로 달리는 '바이블 마라톤(Bible Marathon)' 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 바이블 마라톤은 로쉬 하아인(성경 속 아펙)에서 고대 실로까지 이어진 역사적인 달리기를 재현하는 놀랍고 다채로운 국제 스포츠 행사입니다. (전문 선수부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고대 세계에서 전령(Messenger)이란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자를 넘어, 한 국가와 군대의 운명을 짊어지고 심장이 터질 때까지 달렸던 '마라톤 선수'이자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아람
ARAM
NAPHTALI
납달리
ASHER
아셀
스불론
ZEBULUN
갈릴리
MANASSEH
므낫세반
잇사갈
ISSACHAR
길르앗 라못
Ramoth Gilead
MANASSEH
므낫세반
야베스 길르앗
Jabesh Gilead
갓
GAD
에브라임
EPHRAIM
AMMON
암몬
단
DAN
베냐민
BENJAMIN
르우벤
REUBEN
유다
JUDAH
사해
시므온
SIMEON
MOAB
모압
EDOM
에돔


THE GREAT SEA
(Mediterranean Sea)
ASHER
ZEBULUN
SEA OF
CHINNERETH
YARMUK R.
Dor
ISSACHAR
Ramoth-gilead
길르앗 라못
Beth- Shan
야베스 길르앗
Jabesh-gilead
MANASSEH
Mahanaim
JORDAN R.
G A D
(GILEAD)
사울 승리
AMMON
암몬
Shechem
베섹(?)
★사울이 군사 모집
※ 이스라엘 - 30만명
유다인 - 3만명
Succoth
JABBOK R.
Joppa
EPHRAIM
DAN
Rabbath-
ammon
0
25 Miles
길갈
기브아
Gibeah
BENJAMIN
Jerusalem
SALT SEA
(DEAD SEA)
JABESH
GILEAD



야베스-길르앗 거주민들의 구원(주전 1035년)





암몬의 신 밀콤 (몰렉, 말캄: 왕이란 뜻). 인신공양 (child sacrifice): '통제불능의 강렬한 종교적 무아지경' 에서 인신공양 하는 모습



사무엘상 11장 1-15절

나라를 새롭게 하자.

- 사사기 10장 7-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 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 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 이스라엘이 서쪽의 블레셋으로부터 동쪽의 암몬으로부터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암몬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암몬 족속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Lot)과 그의 작은딸 사이에서 태어난 벤암미(Ben-Ammi)입니다.
  - 벤**암미**(Ben-**ammi**: 내 백성의 아들)
    벤암미 ➡ 암몬
- **모압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큰딸입니다.
  - 모압(Mo**ab**: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주셨다)
- **에돔의 조상**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Esau)입니다.
  - 에돔(Edom: 붉다)



사무엘상 11장 1-15절

- 그리고 이때만 해도 사울은 일국의 왕이라기보다는 최고 지도자 또는 전쟁 사령관에 불과했습니다.
- 다윗과 솔로몬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파동맹체체를 중앙집권 체제로 바꾸지 않았고, 세금도 부과하지 않았으며, 상비군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왕궁도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고향 기브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 전쟁이 발발하면 각 지파에서 군사를 소집하여 대응하였습니다(삼상 13:2, 14:52). 무기도 빈약하여 철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대항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5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정초기에 여호와께 충실하였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14절)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무엘이 암몬을 혼줄 낸 사울의 리더십에 고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5절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삼상 11:1-5)

- 암몬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민족들 중 하나로서 현 요르단 땅인 요단강 동편, 모압의 북편에 거주했습니다.
-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 약 3.2km 거리에 있는 길르앗의 마을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을 때 (밀 수확기), 야베스의 주민들은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섬길 것이니 화친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제안에 나하스는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화친하겠다고 윽박질렀고 온 이스라엘을 같은 방법으로 모욕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5절

- 그러자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면 가부간에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고, 전령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어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 야베스의 전령들이 사울이 거주하는 기브아에 도착하여 이 소식을 알렸을 때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4절)고 했습니다.
- 기브아의 주민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던 것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 사사기 20-21장에 관련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변태성욕자들로 인해 죽은 사건으로 야기된 전쟁, 곧 지파동맹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파동맹연합군에 불참했었습니다(삿 21:8-9).

사무엘상 11장 1-15절

- 지파동맹연합이 남자 600명만 남기고 진멸시킨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염려하여 처녀들을 구해주기를 원했지만, 자신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삿 21:1)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 600명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생각해낸 복안이 지파동맹연합군에 불참한 길르앗 야베스를 쳐서 처녀 400명을 잡아와 숨어 지내던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고 그들과 평화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 나머지 200명은 실로에서 명절축제 때 춤추는 여자들을 보쌈하여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5절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삼상 11:6-11).

- 사울이 암몬의 침략소식을 접한 것은 밭일을 마치고 한 겨리의 소를 몰고 오던 중이었습니다.
- 이때 사울은 사사시대에 성전(聖戰, just war)을 앞두고 사사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삿 3:10, 6:34, 11:29, 13:25, 14:6, 15:14),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רוּחַ אֱלֹהִים)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무렵 사울은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로 변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울의 마음에 의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이거나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 ‘루아크 엘로힘’(רוּחַ אֱלֹהִים) 혹은 ‘루아크 야훼’(רוּחַ יְהוָה)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으로 번역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역동적인 표현이며, ‘바람’ 혹은 ‘숨결(호흡)’을 말합니다.
- 구약에서 이 표현은 야훼와 분리할 수 없는 ‘야훼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뜻한 것이지만,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을 믿는 정통(orthodox) 혹은 보편(catholicity) 그리스도교에서는 제3위격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 유대교인들은 구약성경을 문자 그대로 유일신을 믿는 실천 종교이므로 제3위격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유일신론을 배격합니다. 이는 구약을 이해하는 두 종교의 신학적 차이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인이 유대교 방식으로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 사울은 그날 밭을 갈았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7절)고 하였습니다.
- 사울이 자신의 소들을 잡아 조각을 내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낸” 것은 군대의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면, 죽임을 당한 소처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한 위협적인 경고였습니다.
- 게다가 이 전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길르앗 야베스가 지파동맹연합군에 불참한 후에 연합군에 진멸당한 사건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왔던” 이유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5절

- 8절에 의하면, 군사들이 야간행군을 위해서 '베섹'이란 곳에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3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 '베섹'은 기브아에서 멀리 떨어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성읍 세겜 동북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잇사갈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었습니다.
- 베섹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는 내리막길로 약 22.5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밤새 걸어 동트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9절에서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전령을 통해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내일 정오 무렵이면 전쟁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Saul gathers his army at Bezek,
15 miles (24 km) west of Jabesh,
almost directly across the river.
Sea of Galilee
Jezreel Valley
Bezek
Khirbet Ibziq
Mt. Gerizim
Beth-shan
EAST MANASSEH
Ramoth Gilead
Jabesh-gilead
Tell Maqlub
Mt. Ebal
Shechem
Zaphon
Jabbok River
Adam
Succoth
Popular ford across Jordan River
EPHRAIM
GILEAD
GAD
land taken from Ammon centuries earlier, i n t me of Moses
Bethel
Gibeon
Gilgal
Jordan River
Rabbah
now Jordan's capital Al
ISRAEL
Gibeah
Jericho
Abel-keramim
Naur
Jebus
Jerusalem
Heshbon
Medeba
Dead Sea
"Sur
But you giv

야베스 길르앗



오늘날의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고고학 발굴지



- 야베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안도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10절)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일 우리가 항복할 터이니, 눈을 빼든지 봐주든지 당신들 좋을 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암몬이 경계심을 풀게 하여 이스라엘 군대에 유리하게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음날 이른 새벽에 길르앗 야베스에 도착하였고, 협공을 위해서 군대를 셋으로 나눈 후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갔습니다.
- 사울은 방심과 자만심에 빠져 깊이 잠들어 있는 암몬 군대를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싸움은 정오 무렵까지 이어졌는데 암몬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11절)고 하였습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삼상 11:12-15).

- 백성들은 고무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전투를 통해서 자신이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왕인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한방으로 사울의 왕권은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 백성들은 일제히 미약한 베냐민 지파의 일개 농사꾼이 자신들의 왕으로 뽑힌 일에 대해 불만을 품고, 노골적으로 사울에 대해 불복종과 거역의 뜻을 나타내었던 불량배들을 처단하자고 외쳤습니다.
- 그러나 사울은 13절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이 같은 관용의 태도는 왕국 출발 초기에 사울의 도덕적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 사무엘도 암몬과 싸워 거둔 대승에 대만족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14절, KJV, NASB)며 백성들을 초대하였습니다.
-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무슨 뜻일까요? "나라(the kingdom)"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루카'(הַמְּלוּכָה)는 왕의 신분, 왕위,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다쉬'(חָדַשׁ)는 '새롭게 하다', '새로 만들다', '수리하다'를 의미하는 말로써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말 성경 개역과 개정 및 영어 성경 KJV와 NASB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로 번역했고, 새 번역과 NIV 성경은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로, 공동번역은 "즉위식을 올립시다"로, 가톨릭성경은 "왕정을 새롭게 다집시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5절

-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졌던 길르앗 야베스에서 길갈까지는 강변길로 6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 장정들의 걸음으로 꼬박 이틀을 걸어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반면에 길갈은 사무엘의 주요한 활동무대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 15절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고 하였습니다.
- 여기서 "왕으로 삼고"는 무슨 뜻일까요? "왕으로 삼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라크'(מָלַךְ)는 '왕이 되다' 혹은 '통치하다'의 뜻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15절

- 이 단어를 영어성경 NIV는 "왕으로 확정하고"(confirmed as king)로 번역하였습니다.
- 사울은 왕으로 기름부음도 받았고, 미스바 집회에서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미스바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는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 반면에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는 한 마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5절

- 불행히도 사울의 겸손과 관용은 왕국이 공고화되고 왕권이 강화된 후에 점차 퇴색되고 사라져 결국 영적 도덕적 정치적인 면에서 실패하게 되고 맙니다.
-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효성(9:1-4), 사환의 충고에 귀 기울이는 포용성(9:5-10), 자신의 가문과 혈통을 낮추어 소개한 겸손(9:21),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영성(10:9-13),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양(10:16, 22, 27), 의로운 분노(11:6),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아니한 관용(11:13)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5절

- 반면에 사울이 실권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드린 망령된 제사(13:8-14), 경솔한 맹세(14:24, 29, 43-45),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의 불순종(15:18-19), 왕위에 대한 집착, 다윗을 시기함으로써 하나님께 행한 반역(18:7-9), 다윗을 일곱 번이나 죽이려고 한 시도(18:11, 25, 19:1, 10, 11, 20, 20:31), 망명한 다윗을 죽이려고 네 번이나 행한 추격(23:13, 24, 24:1, 26:2), 하나님께서 엄금하신 무당을 찾아감으로써 영적으로 타락한 것(28:8)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14장 연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삼상 7:12)

사무엘상 12장 1-25절

[1]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2]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상 12장 1-25절

[4]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5]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6]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7]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상 12장 1-25절

[8]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곳에 살게 하셨으나
[9]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10]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사무엘상 12장 1-25절

[11]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12]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3]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4]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마는

사무엘상 12장 1-25절

[15]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6]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17] 오늘은 밀 베는 때(오순절, 5월말 6월초)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상 12장 1-25절

[19]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0]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상 12장 1-25절

[22]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4]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5]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상 12장 1-25절

-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작별설교입니다.

- 설교내용은
  -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
  -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
  - 마귀를 무찌를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
  -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이시니,
  - 우리가 누구 아래 서야 겠느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5절

-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왕이든 백성이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명예우상, 권세우상, 황금우상)을 따르지 말라"(21절)는 것입니다.
- "오직 그(여호와 하나님)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24절)는 것입니다.
-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25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권 사상과 이스라엘의 독창성

-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태양신 라(Ra)의 아들이자 살아 있는 호루스(Horus)로 여겨졌습니다.
- 근동의 왕들은 마르두크·아수르 등 국가 수호신의 대리자이자 신적 권위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 반면에 백성은 신(왕)의 노예로서 신전 건축과 운하 건설, 제의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종속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왕조차 야훼의 종으로 이해 되었으며, 왕권 역시 하나님의 계명(토라)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을 신격화 하던 고대 근동의 정치·종교 체계와 구별되는 이스라엘 신앙만의 독보적이고 차별적인 우월성이었습니다.



태양신 라(Ra)가 파라오(바로)에게 앙크(ankh)를 건네는 부조.
앙크는 생명/생명의 숨결이란 뜻의 상형문자. 이집트 룩소르 신전







신 (Deity)	핵심 머리장식 (Headdress)	상징하는 개념 (Symbolism)	주로 쥐고 있는 도구 (Attributes)
라 (Ra)	붉은 태양 원반 + 코브라 (우라에우스)	우주 창조, 낮의 태양, 절대적 빛	생명의 십자가(앙크), 와스 지팡이(홀)
호루스 (Horus)	이중 왕관 (W:상이집트) (프셴트) (R:하이집트)	하늘, 파라오의 왕권, 정당한 통치	생명의 십자가(앙크), 와스 지팡이(홀)

호루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 분석

고대 이집트 신화와 기독교 신학의 대표적 구원자 상징 비교



비교 항목	호루스 (이집트 신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학)
기본 성격	신화적 존재 (태양과 왕권의 신)	역사적 인물이지 신앙의 대상 (메시아)
핵심 사명	세트를 물리치고 지상의 왕권과 질서 회복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
신분적 상징	파라오의 살아생전 신성한 정체성	유일신의 독생자,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문화적 영향	성모자상 등의 시각 예술적 모티브 제공	서구 문명 및 기독교 신학 체계의 근간



이시스와
호루스
688-525 BC
이집트
제26왕조
개인소장

마리아와
예수
미켈란젤로
의 벨기에
브뤼헤
노트르담
성당
AD 1504



신성의 참칭
False Claims to Divinity



카르낙 신전의 양(아문, 아몬, 암몬)머리 스핑크스 거리



룩소르)







1925년 발굴된 투탕카멘의 가면

정수리 부분에 코브라 뱀(여신 우제트)과 흰 독수리(우제트의 자매 네크베트) 머리가 이집트 왕권의 상징(수호신)으로 장식되었다. 바로는 라의 아들이자,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호루스의 환생이라고 여겨졌으며, 매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좌측의 조각상은 시카고 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박물관에 소장된 사르곤 2세(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의 왕좌실 입구 양쪽에 세워졌던 한 쌍의 라마수들 가운데 하나이고, 우측의 조각상 한 쌍은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두르샤루킨(Dur-Sharrukin, 사르곤 2세가 건설한 도시명)의 사르곤 2세 궁전의 라마수이다.



라마수(Lamassu) 석상(넴루드 출토, 대영박물관 소장).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721-705 BC) 궁전 코르사바드
(Khorsabad)의 수호신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약
4천년 전에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 도시의 성문이나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황소 몸체에 세쌍의 날개와 사람의
두상을 가진 이 라마수는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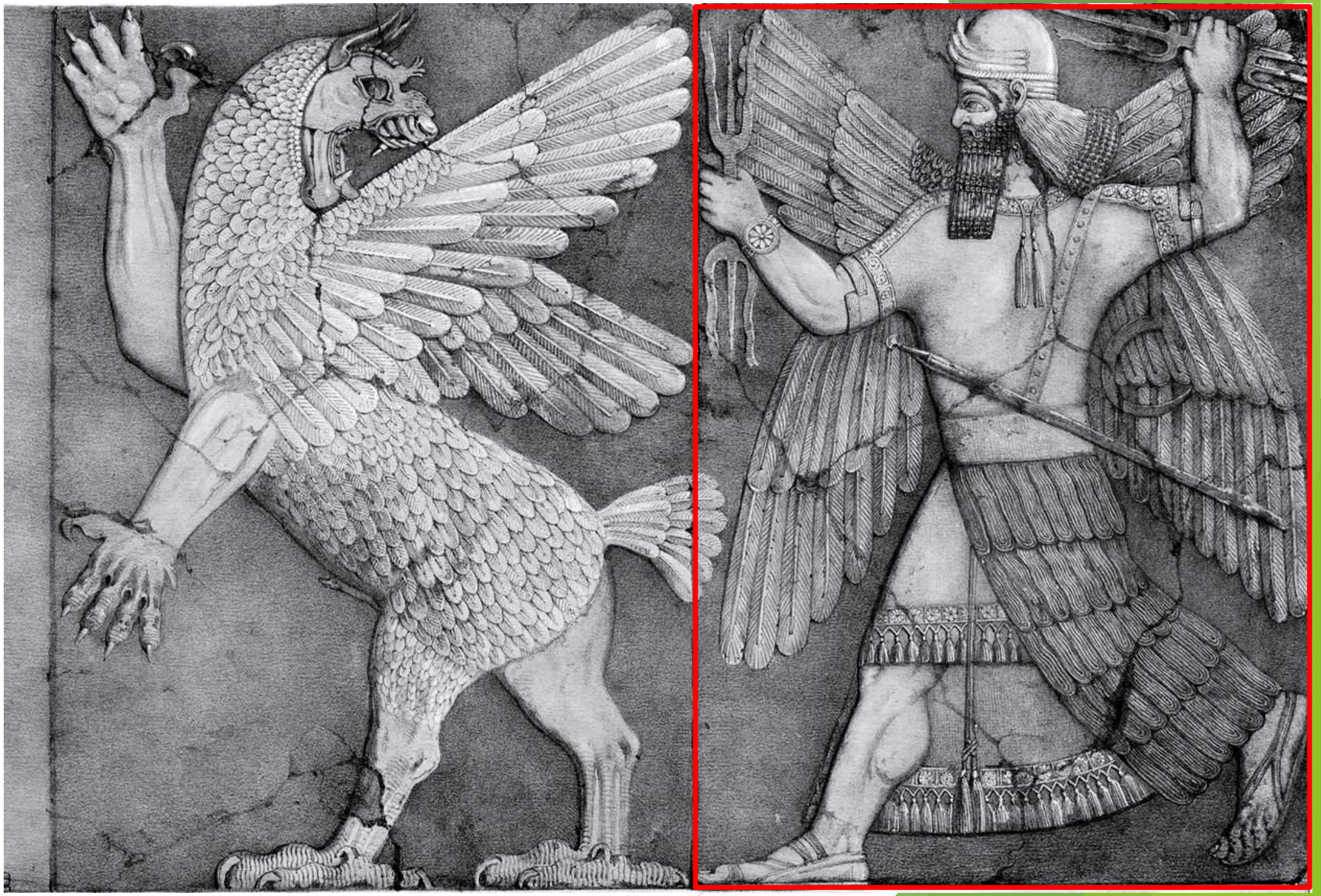


메소포타미아의 신족에 속하는 마르두크(Marduk)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람(폭풍)의 신이다. 또한
창조신이자 네 개의 날개를 가진 바빌론의 수호신이다.
손에 통과 솔방울을 쥔 이 마르두크는 바빌론왕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 Nebuchadnezzar)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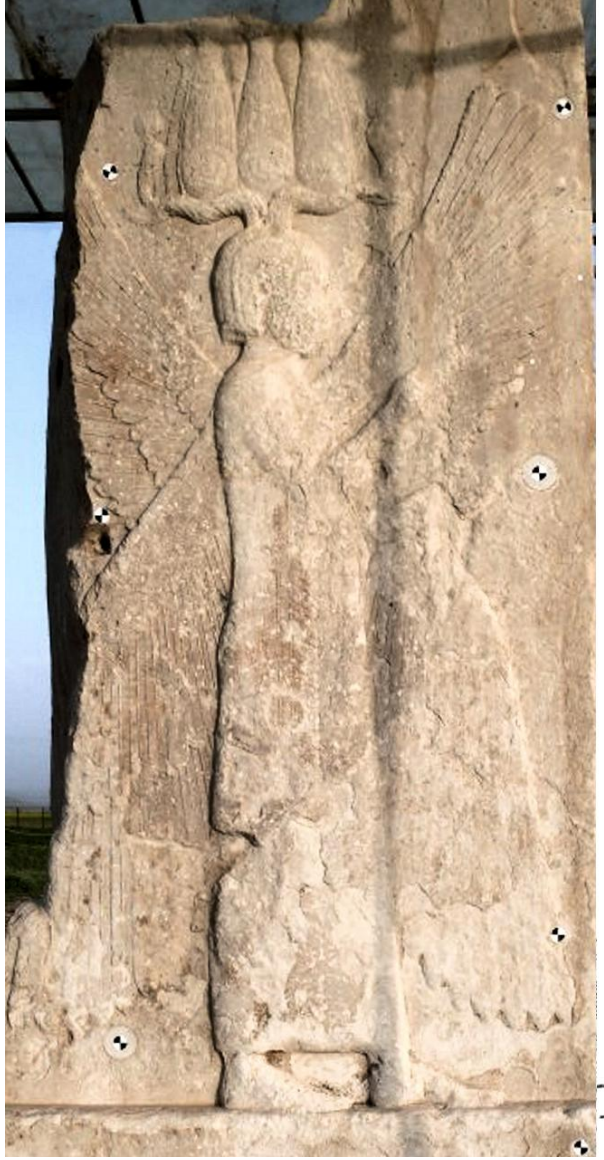


다리우스 대왕의 수사 궁전의 스핑크스(480 BC, 루브르)
사자 몸체에 세쌍의 날개와 사람의 두상을 가진 이
스핑크스는 페르시아의 수호신이자 다리우스 대왕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오른쪽의
부조는
바빌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이다.
그러나 이
부조에서
마르둑은
느부갓넷살
자신이다.









퀴루스 초상과 아케메네스 제국의 수도 파사르가다에(Pasargadae)에 문기둥 부조. 오른쪽 비석에 새긴 문자는 “나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퀴루스 왕이다.”라는 뜻이다. 이 부조에서 세 쌍의 날개와 세 개의 뿔은 퀴루스가 페르시아의 수호신임을 나타낸다.

신성
신의 아들



이집트의 신 아몬(산양) 뿔이 달린 알렉산더 대왕과 아몬-제우스.
알렉산더는 아몬 또는 아몬-제우스로 불렸다. 다니엘서 7-8장에 나오는
뿔과 계시록 13장, 17장의 뿔이 신성을 참칭하는 제왕들을 상징한다.

신성
신의 아들



알렉산더 사후에 트라키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를
통치한 리시마코스(Lysimachos, c. 360-281 BC)의 주화.
전면에 최고 신 암몬(Ammon, 산양) 뿔을 가진 알렉산더를 새겼고,
뒷면에 어깨에 창을, 오른손바닥에 여신 승리를, 왼팔을 방패에 올려
놓은 자세로 앉아 있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새겼다.
그리고 아테나 앞에 ΛΥΣΙΜΑΧΟΥ를 뒤에 ΒΑΣΙΛΕΩΣ, 곧
'리시마코스 왕'이라고 새겼다.

신성
신의 아들



옥타비아누스 데나리온(32-29 BC)
전면에 옥타비아누스의 얼굴을, 뒷면에 평화의 월계수와 풍요의 뿔을 손에 쥔 여신 평화를 새겼고, 좌우에 CAESAR DIVI F(카이사르 신의 아들)이라고 새겼다.

신성
신의 아들



옥타비아누스 테트라드라크마(28 BC)
전면에 월계관을 쓴 옥타비아누스의 옆 얼굴과 그 둘레에 IMP CAESAR DIVI F COS VI LIBERTATISPR VINDEX(임페라토르 카이사르 신의 아들 집정관 6회, 자유와 로마시민의 보호자)를 새겼고, 뒷면에 평화전달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손에 쥔 여신 평화(PAX)와 비밀상자에서 올라오는 건강(치유)을 상징하는 뱀과 월계관을 새겼다. 황제 카이사르가 백성에게 평화와 풍요와 건강(치유)을 가져다 주는 신의 아들임을 홍보한 것이다.

신성
신의 아들



로마제국에 인두세를 부치는데 쓰인 예수님시대의 '데나리온'
앞면에 월계관을 쓴 티베리우스 황제(A.D.14-37)를 새겼고, TI
[berivs] cAESAR DIVI AVG[vsti] F[ilivs] AVGVSTVS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성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적었다.
뒷면에 황태후 리비아(Livia)를 평화의 여신(Pax)으로 묘사하였고,
오른손에 홀과 왼손에 평화와 신성의 상징인 올리브가지를 들렸으며,
PONTIF MAXIM(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적었다.

신성
신의 아들



로마황제 칼리굴라(Caligular, 주후 37-41년 재위)의 주화 전면에 월계관을 쓴 칼리굴라를 새겼고, 원둘레에 "C CAESAR DIVI AVG PRON AVG P M TR P III P P"(가이우스 카이사르 신성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의 증손자, 대신관, 집정관 3회, 국부)라고 썼으며, 뒷면에 의자가 놓인 연단에 선 칼리굴라가 출정을 앞둔 군단을 향해서 연설하는 장면과 군단의 선봉에 선 5명의 군인들이 투구와 칼과 방패를 무장한 채 4개의 금빛 독수리군기를 들고 선 장면을 새겼다. 상하단에 "ADLOCVTIO COH"(군단에게 연설)이라고 새겼다. 칼리굴라는 주후 4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라고 명령하였으나 이듬해에 암살됨으로써 무산되었다.

신성
신의 아들



주전 54년에 주조된 금화

전면에 "아그리피나 아우구스투스 신성 클라우디우스 네로 케사르 가족 어머니"(AGRIPP AVG DIVI CLAVD NERONIS CAES MATER)라고 새겼고, 뒷면에 "네로 클라우디우스 신의 아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황제 공화국의 권력"(NERONI CLAVD DIVI F CAES AVG GERM IMP TR P) 이라고 새겼고, 중심에 "원로원의 법령에 의해서"(EX S C)라고 새겼다.

신성
신의 아들



주후 55년경에 주조된 금화

전면에 "네로 클라우디우스 신의 아들 케사르 가족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황제 공화국의 권력 집정관"(NERO CLAVD DIVI F CAES AVG GERM IMP TR P COS)이라고 새겼고, 뒷면에 "아그리피나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클라우디우스 네로 케사르 가족 어머니"(AGRIPP AVG DIVI CLAVD NERONIS CAES MATER)라고 새겼고, 중심에 "원로원의 법령에 의해서"(EX S C)라고 새겼다.

신성
신의 아들



주후 54년에 주조된 금화
전면에 "신성한 클라우디우스 아우구스투스"(DIVVS CLAVDIVS AVGVSTVS)
라고 새겼고, 뒷면에 "원로원의 법령에 의해서"(EX S C)라고 새겼다.

신성
신의 아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데나리온(주후 81-84년)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DOMINVS ET DEVS)으로 부르게 하였고, 죽은 자신의 아들까지 신격화하였다. 전면에 월계관을 쓴 얼굴 둘레에 IMP CAES DOMITIANVS AVG PM(황제 카이사르 도미티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대신관)이라고 썼고, 뒷면에 자신의 죽은 아들을 하늘("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계시록 1:16 참고)과 땅(지구에 올라 앉음)을 다스리는 자로 새겼다. 그리고 그 둘레에 DIVVS CAESAR IMP DOMITIAN IF(신성 카이사르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들)이라고 새겼다.

신성
신의 아들



도미티아누스 황제(AD 81-96)의 데나리온, AD 79년경 주조되었다. 전면에 월계관을 쓴 도미티아누스의 옆얼굴과 둘레에 CAESAR DIVI F DOMITIANVS COS VII(카이사르 신의 아들 도미티아누스 집정관 7회)라고 새겼고, 뒷면에 화환으로 장식된 불꽃이 핀 제단과 둘레에 PRINCEPTS IVVENTVTIS(Principi Juventutis) 곧 Prince of Youth(성년의 왕자)라고 새겼다. 주화는 황제들에게 중요한 대국민 홍보수단의 하나였다.

신성
신의 아들



도미티아누스 황제(AD 81-96)의 데나리온, AD 80년경 주조되었다. 전면에 월계관을 쓴 도미티아누스의 얼굴과 둘레에 CAESAR DIVI F DOMITIANVS COS VII(카이사르 신의 아들 도미티아누스 집정관 7회)라고 새겼고, 뒷면에 투구가 놓인 옥좌와 둘레에 PRINCEPTS IVVENTVTIS(Principi Juventutis) 곧 Prince of Youth(성년의 왕자)라고 새겼다. 주화는 황제들에게 중요한 대국민 홍보수단의 하나였다.

신성
신과 주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의 주화(c. 215-164 BC)
전면에 안티오코스 4세의 얼굴을 새겼고, 뒷면에 보좌에 앉은 제우스가 오른손에 여신 승리(Nike)를, 왼손에 삼지창을 쥔 모습을 새겼으며, 헬라어로 오른쪽에 ΘΕΟΥ ΕΠΙΦΑΝΟΥΣ ΝΙΚΗΦΟΡΟΥ(신의 현현, 승리를 지닌자), 왼쪽에 ΒΑΣΙΛΕΩΣ ΑΝΤΙΟΧΟΥ(왕 안티오코스)라고 새겼다.

신성
신과 주



티베리우스 황제의 주화(AD 20-29, 비잔티움)
전면에 "ΘΕΟΣ ΣΕΒΑΣΤΟΣ"(황제 신),
후면에 "ΘΕΑ ΣΕΒΑΣΤΑ"(황후 여신)이라고 새겼다.
전면의 인물은 황제 티베리우스(Tiberius, 재위 AD 14-37년)
이고, 후면의 인물은 모친 리비아 드루실라(Livia Drusilla)이다.
리비아는 아우구스투스(38 BC-AD 14)의 아내로 AD 29년에
사망한 로마의 첫 번째 황후였다.

신성
신과 주



티베리우스 황제의 주화(tetradrachm, AD 27-28, 알렉산드리아) 전면에 "[TI]BERIOS KAISAR SEBASTOS"(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황제), 후면 아우구스투스 두상 둘레에 "ΘΕΟΣ ΣΕΒΑΣΤΟΣ"(신 황제)라고 새겼다.

신성
신과 주



티베리우스 황제의 주화(tetradrachm, AD 14-37, 알렉산드리아)
전면에 "TIBEPIO∑ KAI∑AP ∑EBA∑TO∑"(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황제),
후면 아우구스투스 두상 둘레에 "ΘEO∑ ∑EBA∑TO∑" (신 황제)라고 새겼다.

신성
신과 주



티베리우스 황제의 주화(tetradrachm, AD 14-37, 시리아)
전면에 "TIBEPIOΣ ΣEBAΣTOΣ KAIΣAP"(티베리우스 황제 카이사르),
후면 아우구스투스 두상 둘레에 "ΘEOΣ ΣEBAΣTOΣ KAIΣAP"(신 황제
카이사르)라고 새겼다.

신성
신과 주



바울시대의 데살로니가 주화(주후 41-54년)
전면에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세바스토스 게르마니쿠스"(TI KLAU SEBASTOS GERM),
후면에 데살로니가의 신 세바스토스(THESSALONEIWN THEOS SEBASTOS)라고 새겼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살후 2:4)

신성
신과 주



아우렐리아누스(주후 270-276년 재위)
전면에 황제의 얼굴을 둘레에 DEO ET DOMINO NATO AVRELIANO AVG(타고난 신과 주, 아우렐리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고, 뒷면에 월계관을 수여받는 모습을 새겼다.

신성
신과 주



카루스(Marcus Aurelius carus, AD 282-283)
전면에 무적의 태양신(왼쪽)을 마주보고 선 카루스(오른쪽)를 새겼고,
DEO ET DOMINO CARO INVIC AVG(신과 주, 카루스 무적의 아우구스투스)라고 썼으며, 뒷면 오른손에 평화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왼손에 홀을 들고 서있는 여신 행복을 새겼다. 그리고 그 둘레에 FELICITA S REI PVBLICAE ·X·I·I·(행복, 공화국 원로원, 은 함량 10퍼센트)라고 적었다.

하버드대학교 하비 콕스 교수의 세속화 4대 원칙

저서《세속도시 (The Secular City, 1965)》에 나타난 성서적 세속화

하비 콕스 교수는 출애굽 사건이 갖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고 숭배의 대상이 아니란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를 포함하여 거짓 신들은 두려움이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란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탈주술화

성서적 원천: 창조 (Creation)

구약의 창조 기사는 자연을 신성한 숭배 대상으로서 인간이 관리·개발·보존할 객체로 전환했습니다. 자연의 마술적 요소를 제거하여 과학적 탐구의 길을 열었습니다.



정치의 비신성화

성서적 원천: 출애굽 (Exodus)

출애굽 사건은 고대 이집트 바로와 같은 지배 권력의 신성화를 무너뜨렸습니다. 정치는 신이 정한 운명이 아닌 인간의 선택과 책임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가치의 비절대화

성서적 원천: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을 통해 인간 세계의 특정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를 절대화·영구화하는 것을 배격했습니다. 인간의 가치관은 역사 속에서 상대화됩니다.



역사의 탈운명화

성서적 원천: 성숙한 책임

세계는 우상 신들의 변덕이나 결정론적 운명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역사의 주체로서 야훼신앙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개척해 나가야 할 성숙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5절

-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인간들의 요구를 대체로 허락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욕심에 따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 '허락'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내버려 두사"(롬 1:24, 26, 28. 신약성경에 119-20회 등장)입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사"는 헬라어 '파라디도미'(paradidomi, παραδίδωμι)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전수하다,' '넘겨주다,' '전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사"는 '넘겨주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 예를 들어, 예수님은 유다에 의해(막 14:10) 산헤드린에, 산헤드린에 의해 빌라도에게(막 15:10, 빌라도에 의해 백성들의 뜻에 따라(눅 23:25) 로마 군인들에게(막 15:15) 넘겨 지셨습니다.

-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죄범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파문'시키듯이, 교회에서 '파문'시켰다는 뜻입니다.
- "내버려 두사"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버림'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 "내버려 두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참 뜻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 서성이며 멀리 길 끝을 응시하는 것과 같은 하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또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을 최고의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대한 아버지와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5절

- 이것이 사무엘이 행한 고별설교의 핵심메시지입니다. 사무엘은 1-5절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청렴 결백했고 공명정대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강조는, 사무엘이 항상 올바르게 처신한 것처럼, 사울 왕과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처신하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솔(Hazor)

-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하나님의 허락 의지) 그들이 저희를 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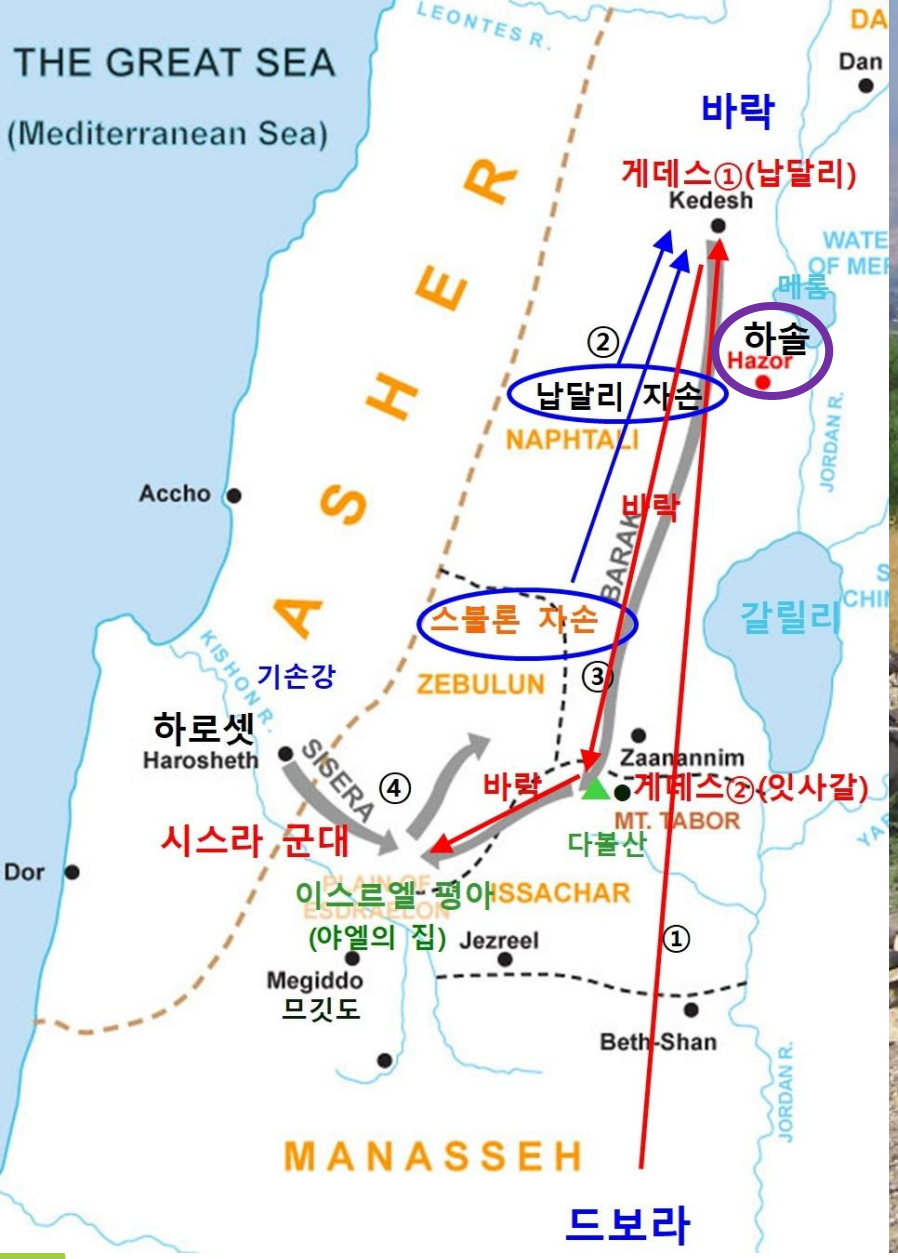
하솔(Hazor)은 가나안 북부의 강력한 도시국가였다. 여호수아 시대에 파괴되었던 하솔이 재건된 후, 야빈(왕의 호칭)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했고, 철 병거 900대를 보유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세워 곡창지대인 이스르엘 평원을 점령 하고자 했을 때에 여사사 드보라(에브라임지파)와 지휘관 바락(납달리지파)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파동맹 군대가 야훼의 도우심으로 다볼산과 기손강 전투에서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격파했다. 도망친 군대 장관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서 죽임을 당했다(삿 4~5장).



하솔(Hazor: 므깃도, 브엘세바와 함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서 고고학 유적지, 국립공원)

하솔(Hazor: 므깃도, 브엘세바와 함께 유네스코 (UNESCO)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성서 고고학 유적지, 국립공원)







하솔과 전투 참여 지파

하솔(Hazor)의 기둥의 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005년 지정)

- **암몬 족속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Lot)과 그의 작은딸 사이에서 태어난 벤암미(Ben-Ammi)입니다.
  - 벤**암미**(Ben-**ammi**: 내 백성의 아들)
    벤암미 ➡ 암몬
- **모압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큰딸입니다.
  - 모압(Mo**ab**: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주셨다)
- **에돔의 조상**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Esau)입니다.
  - 에돔(Edom: 붉다)



- 학자들은 사무엘의 설교 6-15절이 고대 중근동 지역의 종주권 조약 문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봉신들에게 지속적인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봉신들에게 지난날 베풀었던 선행을 강조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 같은 맥락에서 사무엘은 출애굽 구속 사건에 근거하여, 과거 미천했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크신 은총을 강조하였고,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버리고 또 다른 왕(인간)을 요구한 사실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가를 깨우쳐 주는 동시에 백성은 물론이고 왕조차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15절에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5절

- 사무엘이 출애굽 구속 사건과 지난날의 일들을 언급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에 한 마음으로 화답한 데는 나름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였습니다.
- 열 두 지파가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이 되는 조건은 조상들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생활과 사사시대의 구원체험들을, 비록 그 체험들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비록 혈통이나 민족이 달랐더라도, 그 체험들을 기억하고 공감하며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드리고 그 삶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땅(나라)을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언약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언약(토라)을 지킬 의무를 받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5절

-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옳고 그름의 잣대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토라, 옛 언약,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 같은 맥락에서 참 이스라엘인(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체험들을, 비록 그 체험들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비록 혈통이나 민족이 다르더라도, 그 체험들을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드리고 그 삶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승리와 영광과 하늘 땅(나라)을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 곧 새 언약(복음)을 받아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5절

- 또 그것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삼는데 있습니다.
- 바로 이 잣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회복하고 실천하여 신약성경교회의 순수성과 본래성 및 그 능력을 회복하자는 것이 그리스도의교회들이 3세기에 걸쳐서 펼치고 있는 환원운동인 것입니다.
- 16-18절은 여전히 마음에 의심을 품는 이들을 위해서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확실히 심기 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밀을 베는 시기는 오순절 시기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5절

-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한 달 보름이 지난 시반(셋째 달) 초하룻날에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5일간의 준비 끝에 50일째 되는 첫 오순절 날(시반 6일)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언약식을 치렀습니다(출 24장). 이 때 곧 첫 오순절 날에 지키기로 한 율법(토라)이 구약(옛 언약)입니다.
- 이 시기 곧 5월말 6월초에 수확하는 작물은 밀입니다. 이미 수확을 끝낸 보리와 함께 밀을 탈취하려는 욕심이 암몬에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건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비는 12월부터 2월까지 내립니다.

사무엘상 12장 1-25절

-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오순절 시기에 “우레와 비를” 본다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 그러므로 17절에서 사무엘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고 했던 것이고, 18절에서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5절

- 이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19절)고 회개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자 사무엘은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단순히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 하나님을 …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삼상 10:19)고 요구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한 사실도 회개하였습니다(삼상 8:8, 12:10).

사무엘상 12장 1-25절

-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로 인해서 고통의 수렁에 빠지곤 했고, 그때마다 울부짖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곤 하였습니다.
-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고통의 수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담긴 귀중한 교훈입니다.
-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구약성경의 첫 다섯 권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는 총 613개의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248개가 "~를 하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365개가 "~를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 죄는 크게 죄와 허물로 구분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25절

-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주로 십계명 중 제1-4계명을 범한 것을 말하고, 허물(건)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것을 말하며, 주로 제5-10계명을 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십계명중 제1-4계명에 해당되는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주로 이웃과의 관계, 곧 십계명 중 제5-10계명에 해당되는 허물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 그리고 613개 계명의 핵심은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우상숭배는 자기 남편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5절

-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삿 3:7),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삿 10:6) 섬기곤 하였습니다.
- 이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삿 10:13)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삿 10:10)고 **회개하면**, 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삿 10:10)을 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이 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든지간에, 자신의 능력이나 재력이 많든 적든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오직 그 분께만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25절

- 백성들 앞에서 작별설교를 행한 사무엘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쯤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때가 65세쯤 되었을 때란 점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사울이 암몬을 물리친 때가 왕이 된지 얼마나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무엘의 나이가 이때 대략 70세를 넘긴 때였을 것으로 추정만 해볼 뿐입니다. 한 평생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온 사무엘의 결론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22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5절

-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결코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무엘은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23절)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24절)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6-14장 연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삼상 7:12)

사무엘상 13장 1-23절

[1]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년에
[2] 이스라엘 사람 삼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이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벧엘 산에 있게 하고 일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4]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사무엘상 13장 1-23절

[5]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삼만이요, 마병이 육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벧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 치매,
[6]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8]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상 13장 1-23절

[9]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1]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13장 1-23절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5]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육백 명 가량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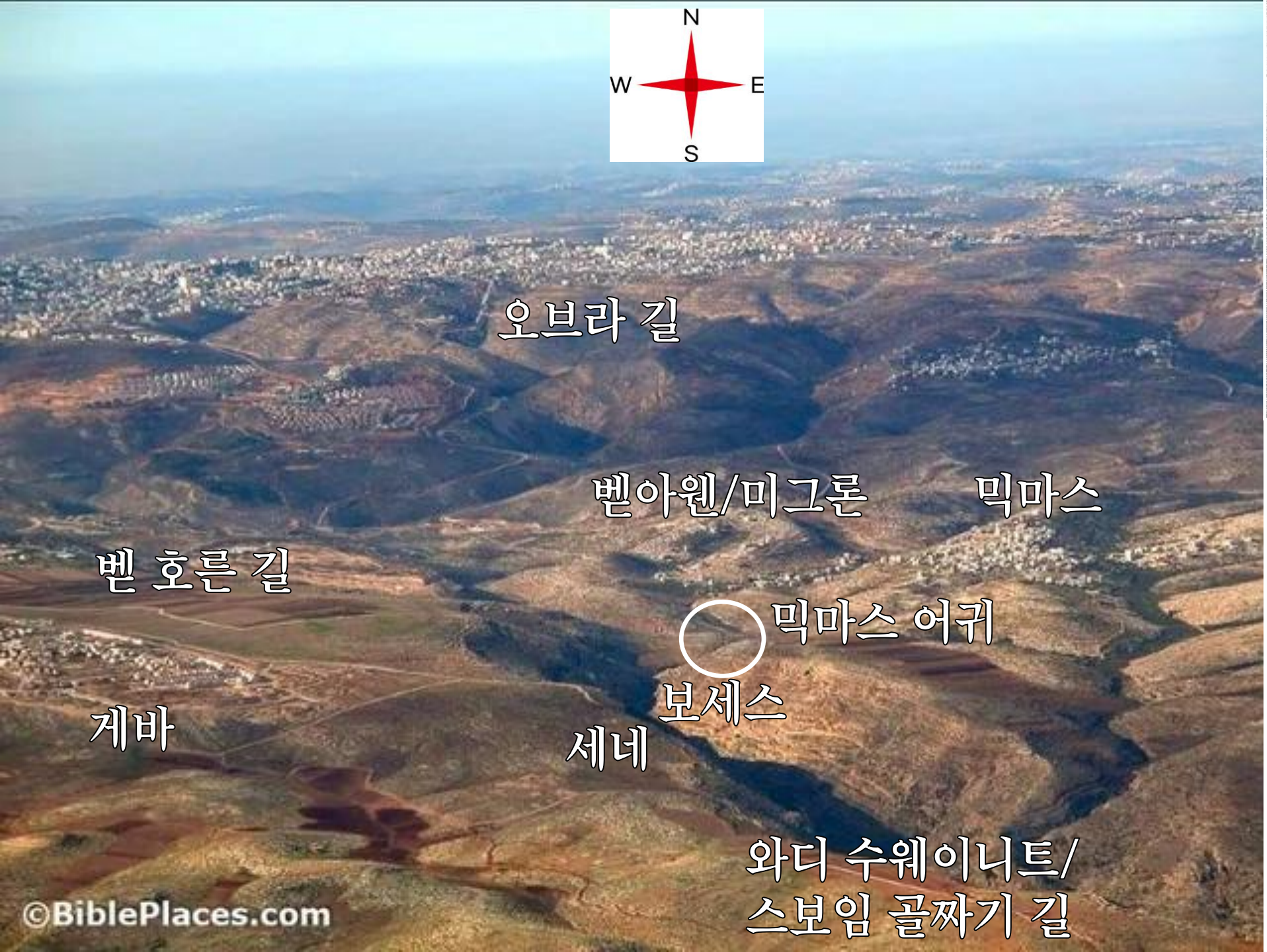
사무엘상 13장 1-23절

[16]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 쳤더니,
[17] 노략꾼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18] 한 대는 벧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19] 그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20]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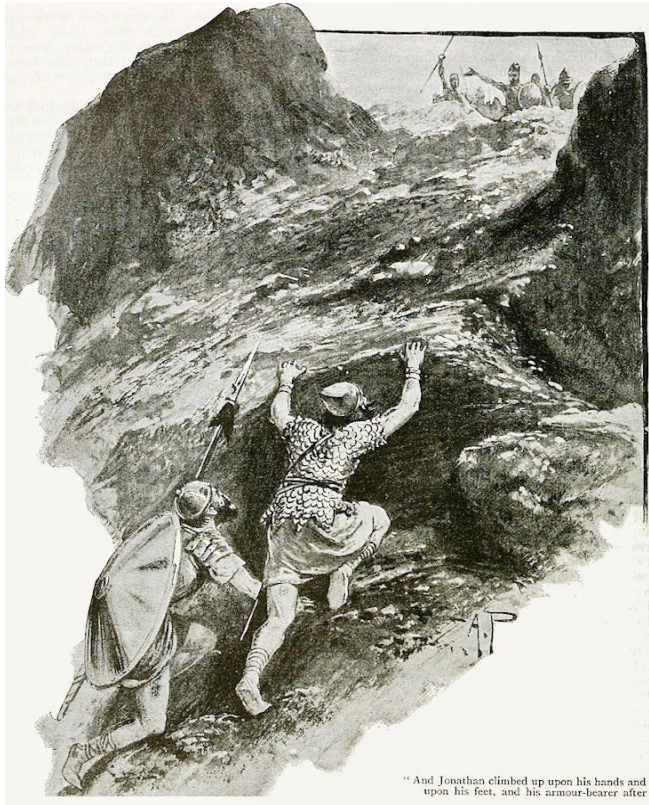
사무엘상 13장 1-23절

[21]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22]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23]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Jerusalem
예루살렘
라헬의 묘실
라마
게바
믹마스
Good Samaritan Inn
Wadi Qilt
Ascent of Adummim
Cypros
여리고
Herodian Palaces In Jericho
W
S
N
E
길갈


N
W
E
S
오브라 길
벧아웬/미그론
믹마스
벧 호른 길
믹마스 어귀
보세스
게바
세네
와디 수웨이니트/
스보임 골짜기 길
©BiblePlaces.com




"And Jonathan climbed up upon his hands and upon his feet, and his armour-bearer after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기 전


믹마스(Michmash)와 게바(Geba) 근처에 있는 협곡: 세네와 보세스

믹마스(Michmash)와 게바(Geba) 근처에 있는 협곡




Ophrah
Mount Zemaraim?
Bethel?
Beth-horon (Lower)
Jeshanah?
Ebenezer Monument?
Mizpah
Beth-horon (Upper)
Michmash
Geba
To PHILISTIA
Ramah
Gibeon
Aijalon
Gibeah
Kiriath-jearim
0
2
4 mi
0
4 km
Jebus (Jerusalem)



와디 수웨이니트(Wadi Suweinit): 믹마스(Michmash)와 게바(Geba) 사이에 있으며,
와디 파라(Wadi Farah)를 거쳐 와디 켈트(Wadi Qilt)에 합류하는 거대한 단층 계곡.
스보임 골짜기(Zeboim Valley): 수웨이니트에서 갈라져 길갈 방향으로 향하는 골짜기


사울이 더 많은 군사를 소집하기 위하여 길갈로 후퇴함
블레셋이 세 군데로 공격대를 파견함
게바에서 사울의 군대가 요나단과 합류함 (길갈 ->기브아-> 게바)
EPHRAIM
SHUAL
Jordan River
오브라
Ophrah
WILDERNESS OF BETH-AVEN?
Bethel
Beth-horon (Lower & Upper)
벧 호른
Beth-aven?
Migron?
(2) 요나단의 블레셋 수비대 공격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3만의 군사를 믹마스에 배치하자, 믹마스에 주둔하던 사울과 백성들은 더 많은 군사를 소집하기 위해 길갈 (Gigal)로 후퇴함 (삼상13:4)
Michmash
믹마스
Jericho
Gilgal?
길갈
To GILEAD and GAD
Ramah
Gibeon
Geba
게바
스보임 골짜기
ZEBOIM VALLEY?
High Place of Gibeah?
BENJAMIN
Gibeah
기브아
(1) 2천 명의 사울의 군대가 믹마스(Michmash)에서 주둔하는 동안 기브아(Gibeah)에 주둔해 있던 요나단(1천 명)은 게바(Geba)에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함 (삼상13:1-2)
(3) 3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 배치하자, 많은 이스사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숨거나 요단강을 건너 갓이나 길르앗으로 도망감
사울은 두려움이 더욱 커져가면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크게 책망을 받음, 그후 사울과 그의 군대는 게바(Geba)에서 요나단의 군대와 합류함 (삼상13:5-16)
Jebus
JUDAH

사무엘상 13장 1-23절

- 사무엘상 13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란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받들어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구약성경에서 크게 강조하는 것이나 유대교에서 오늘날까지 크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살길이라는 것입니다.
-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의 살길이나 선민이 되는 조건이 말씀을 사랑하고 받아드려 문자적인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쓴 엘리트들은 제2모세(메시아)가 와서 세울 '다가올 세상'(Olam Ha-Ba)을 '희망'(Ha-Tikvah)하며, 그 때까지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참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를 묻고 그 답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 그것은 유대민족혈통이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교신앙을 간직한 공동체가 참 이스라엘이며,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망해서 제국들의 속주 식민으로 살아가지만, 유대민족 혈통과 유대교신앙이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한 것이 아니고, 유대민족혈통이 보존되는 한 참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것이며, 계명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교신앙이 유지되는 한 참 이스라엘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 유대교가 계명들을 실천하는 종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의 준수 여부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다고 믿기에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 같은 교훈이 사무엘상 13장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의교회들은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의식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킬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가 되어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의 순수성과 본래성과 그 능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합니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1.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라”(삼상 13:1-4).

- 사무엘상 13장 1절은 매우 난해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어성경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해(한 살)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이년간(두 해동안) 다스렸다”입니다.
- 이 본문을 개정, 개역, 바른 성경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년에”라고 했고, 새번역과 영어성경 NIV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마흔두 해였다.”고 했으며, 가톨릭성경은 “사울이 임금이 된 것은 서른 살 때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두 해 동안 다스렸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 또 영어성경 NASB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서른 두해였다."라고 했고, 가장 오래된 영어성경 KJV는 "사울은 일 년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이년간 통치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 일부 학자들은 KJV 본문 그대로 '사울이 왕이 된 지 일 년이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 이처럼 사무엘상 13장 1절의 번역이 제각각인 것은 히브리어성경 본문에 나이를 밝히는 숫자가 없이 "해(년)의 아들"이라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칠십인역(LXX)과 공동번역에는 1절 전체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 일부 번역본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를 '서른 살'"이라고 한 것은 칠십인역 후대 사본에 따른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마흔 두해였다'"고 한 것은 히브리어성경 본문의 '둘(두)' 앞에 10 단위가 빠졌을 것으로 보고, 사도행전 13장 21절의 "40년"에다 "두 해"를 더해서 나온 것입니다.
- 이런 차이는 필사자의 실수에서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 게다가 구약성경시대에 필사된 사본들일수록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고, 따라서 대조해볼 필사본들이 많지 않습니다.
- 결론: 사무엘상 13장 1절을 학자들은 숫자가 누락되었거나 원문이 손상되어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 상대적으로 기록연대가 늦은 고대 신약성경 헬라어 필사본들은 남아 있는 것이 워낙 많고, 본문비평(사본학)이 발달해서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은 원본(비록 원본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에 99.99%에 가깝다고 봅니다.
- 참고로 인쇄술이 발명된 것은 주후 1450년입니다. 그리고 1452년부터 3년에 걸쳐서 구텐베르크 성경이 180부 인쇄되었는데, 필사본 생산 속도와 비교하여 15배가 빨랐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의 해석

1. 문제점

-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MT)의 문자적 직역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세(Ben-Shanah, בֶּן־שָׁנָה)였고,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다." בֶּן־שָׁנָה שָׁאוּל בְּמָלְכוֹ וּשְׁתֵּי שָׁנִים מָלַךְ עַל־יִשְׂרָאֵל׃

- 현실적 모순점: 아들 요나단의 존재
  - 2절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미 군대를 이끄는 '장성한 청년 전사'로 등장
  - 왕의 나이가 1세이거나 총 통치기간이 2년뿐이라는 것은 역사적·신체적 정황상 불가능
  - 고대 필사 과정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글자가 유실되었음이 명백함

2. 기독교 성경학계의 접근: 사본학적 복원

- 왜 30세 또는 40세로 번역하는가?
  - 30세 즉위설(NIV, NASB 등): 요나단이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청년 장교였다고 가정할 때, 사울의 즉위 나이를 최소 '30세'로 역산하여 유실된 본문을 복원한 것
  - 40세 즉위설(개역개정 등): 사울의 막내아들 이스보셋이 사울 사후 왕이 될 때 40세(삼하 2:10)였던 점과 사도행전 13장 21절의 '40년간 다스렸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즉위 나이를 '40세'로 추정하여 번역에 반영

- 현대 주요 번역본들의 대처 방식
  - 개역개정: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년에...”
  - NIV: “Saul was thirty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over Israel forty-two years.”
  - 새번역 / 공동번역: 본문의 훼손을 인정하고 나이 부분을 비워두거나 주석으로 처리
    - 새번역: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마흔 두 해였다.”

앞 절에 대한 새번역의 해설

-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이를 밝히는 숫자가 없음. 칠십인역에는 1절 전체가 없음. 여기 '서른 살'이라고 한 것은 칠십인 역 후대 사본에 나와 있는 것임. '개역한글판'에는 '사십 세'
- ㉡히브리어 본문의 '둘(두)'은 앞의 10단위가 빠져 있는 것임. 그가 대략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것에 근거하여 (행 13:21), 최근의 역본들을 따라 '마흔 두 해'라고 함

3. 유대교 전통 랍비 및 탈굼의 접근: 영적·은유적 해석

- 텍스트의 권위 인정: 글자를 수정하지 않고 의미를 조화
  - 죄 없는 1세 아이와 같았다(탈무드 Yoma 22b, 라시): '1세(Ben-Shanah, בֶּן־שָׁנָה)'를 육체적 나이가 아닌 영적 상태로 해석.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 죄의 때가 묻지 않은 갓난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전했음을 뜻하는 문학적 수사로 받아들임
  - 즉위 첫해의 연대기적 의미: '벤-샤나'를 '즉위 원년(the first year)'으로 해석하여, 사울의 공식 통치 1년 차가 지나고 '2년 차(우쉬테이 샤님, וּשְׁתֵּי שָׁנִים)'에 접어들었을 때 요나단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다는 역사적 시점으로 이해

- **요나단의 청년 등장과의 조화**
  - 탈굼 요나단(Targum)의 의역: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죄가 없는) 1년 된 아이와 같았으며..."
  - 랍비들은 사울이 현실적으로 중년의 나이였음을 당연히 인지했으나, 성경 텍스트의 '1세'라는 상징적 가치와 요나단의 실제 활약을 신학적 차원에서 결합
  - **영적 교훈:** 기독교나 유대교 모두 사울의 초기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 겸손했으나, 통치 2년 차를 기점으로 인간 중심적인 권력을 의지하며 **불순종의 길(사울 왕조 몰락의 서막)로 들어섰음을 경고하는 분기점**이라는 데 동의함

사무엘상 13장 1-23절

- 출애굽 연도를 1446년으로 봤을 때, 사울이 주전 1050년에 즉위하여 40년간, 다윗이 주전 1010년에 즉위하여 40년간, 솔로몬이 주전 970년에 즉위하여 40년간 통치한 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40년이 역사적(순수)으로 정확한 통치 기간이었는지 아니면 신학적(의미)인 통치 기간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의 통치에 관한 사무엘상의 기록은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3장 21절은 사울의 통치기간이 40년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또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사울에게 장성한 아들 요나단이 있었고,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하여 큰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사울이 즉위한지 최소 10년에서 30년 정도 지난 시기에 베냐민 산지에서 펼쳐진 전투였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사울의 통치기간 동안에도 블레셋은 여전히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 사이의 완충지대였던 베냐민 산지의 여러 성읍들에 자신들의 수비대를 두고 있었다는 것과 다윗왕국시대가 도래하기까지 꾸준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했던 것은 그들이 철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루는 장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살길이었다는 것입니다.

- 이스라엘의 처지와 형편에 나의 처지와 형편을 대입해보면, 내가 어떤 전략과 기지로 주어진 삶을 살아야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이 나옵니다.
- 그 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 최후 승리, 궁극적 승리를 얻는 비결이다는 것입니다.
- 우리 각자의 개인사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 죄와 허물과 받아 누린 은총, 현재의 평점 등을 냉정히 평가한 후 이스라엘 민족사에 비교해보면,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떤 전략과 기지로 살아야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이 나옵니다.
- 그 답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삼상 13:5-18).

- 사울은 암몬을 물리친 후에 삼천 명을 택하여 상비군을 베냐민 산지에 주둔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이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벧엘 산에 있게 하고, 일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2절)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기브아 북쪽, 벧아웬 남쪽에 위치한 게바에 주둔한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길갈로 내려가 군사를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Jerusalem
예루살렘
라헬의 묘실
라마
기브아
1천명
게바
믹마스
2천명
Good Samaritan
Inn
Wadi Qilt
Ascent of Adummim
Cypros
여리고
Herodian Palaces
In Jericho
W
S
N
E
길갈

- 반면에 블레셋은 벧아웬 동쪽 믹마스에 어마 무시한 군사들을 집결시켰습니다. 병거(전차)가 삼만, 마병이 육천, 백성(보병)이 “해변의 모래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줄행랑을 친 후에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기” 바빴습니다. 블레셋이 똘똘 뭉친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래알 같이 흩어졌습니다. 블레셋의 위세가 등등했던 반면에 사울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 설상가상으로 칠일 후에 길갈로 오기로 약조한 사무엘조차 정한 기한에 도착하지 않자 겁을 먹은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에게 남은 자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주관할 사무엘이 약정한 칠 일째 날에도 도착하지 않았고, 이에 겁을 먹은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떠났던 것입니다.
- 사울 왕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조바심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급했던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주관할 제사를 자신이 주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 학자들은 이때 사울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엘리의 증손자 아히야에 의해서 시행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히야는 당시 에봇을 착용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14:3).

사무엘상 13장 1-23절

- 따라서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제사는 사무엘이 주관했어야 했고, 사울이 지시받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13-14절)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 이 말씀은 꼭 사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리와 원칙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무엘의 이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하신 계시록 13장 10절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한 히브리서 6장 12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 사무엘은 번제 드리기를 마쳤을 때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한 것은 추측컨대 아직 해가 남아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바뀝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 사울이 사무엘을 칠 일간 기다린 것은 맞지만, 완전한 칠일이 아닌 육일하고 반나절 정도 지난 때였던 것 같습니다.
- 사울은 하나님의 일군답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렸어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급함은 자신의 왕국의 미래를 결정짓게 하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사울의 평생을 좌우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 그만큼 인내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3. “그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삼상 13:19-23).

-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늦지 않게 찾아오십니다(He’s still on time/in His perfect time. 요 11:35-44).
- 힐 요한(John J. Hill) 선교사는 만 26세 때인 1939년 6월 21일 서울에 도착해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였으나 태평양전쟁의 징후로 1940년 11월 16일 급히 미국으로 철수하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힐은 목회를 하던 중 1944년 10월 5일 군목학교에 입학하여 5주간의 훈련을 받고 중위로 임관되었습니다.
- 힐이 탄 군함이 1945년 4월 7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였습니다.

- 도시는 일본군에 의해서 거의 파괴되었고, 끔찍한 잔학행위가 자행되었음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산 채로 불태워지고 여성과 아이들이 총검에 찢겨서 신체가 벌어진 채였습니다.
- 힐은 규모가 큰 수용소(로스바뇨스 Los Baños/필리핀 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 수용소, 산토 토마스 대학교 캠퍼스 수용소의 과밀로 1943년 5월부터 수용소로 이용, 수용소에서 사망한 레슬리 울프 선교사의 경우 이 두 수용소 모두에 수감됨)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힐은 일본군에 잡혀서 수감된 후 기아상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인 그리스도의 교회들 소속 선교사들을 발견하고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 그들은 레슬리 울프(Leslie Wolfe)의 사모, 윌리스 헤일(J. Willis Hale) 부부, 레이 칼슨(Ray Carlson) 부부와 자녀들, 에디스 쉼멜(Edith Shimmel)과 에델 존스(Ethel Jones)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척하였지만, 해방당시 그들의 건강상태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 에디스 쉼멜(Edith Shimmel)과는 도쿄 요츠야선교부에서 윌리엄 커닝햄 선교사 부인 에밀리 보이드(Emily Boyd Cunningham) 여사와 함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을 순방하였습니다. 1941년 4월 1일 새로운 종교법의 시행으로 일본과 조선에서의 선교가 모두 막히자 필리핀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필리핀까지 점령하여 1942년 4월부터 44년 7월까지 주요 선교사들은 산토 토마스 대학교 캠퍼스 수용소에, 나머지는 가택 연금하였고, 이후 미군의 반격이 임박하자 로스바뇨스 수용소에 수감하였습니다.
- 에디스 쉼멜은 1950년에 필리핀 선교 동역자였던 에델 존스와 함께 하와이로 건너가 오아후섬에 마일리 크리스천 교회(Maili Christian Church)를 개척하였습니다.



서울 제2교회 성경공부반(이인범이 매일 2시간씩 강의, 1937년)
뒷줄 좌측부터 커닝햄 부인, 이난기 담임목사, 이인범 목사, 쉼멜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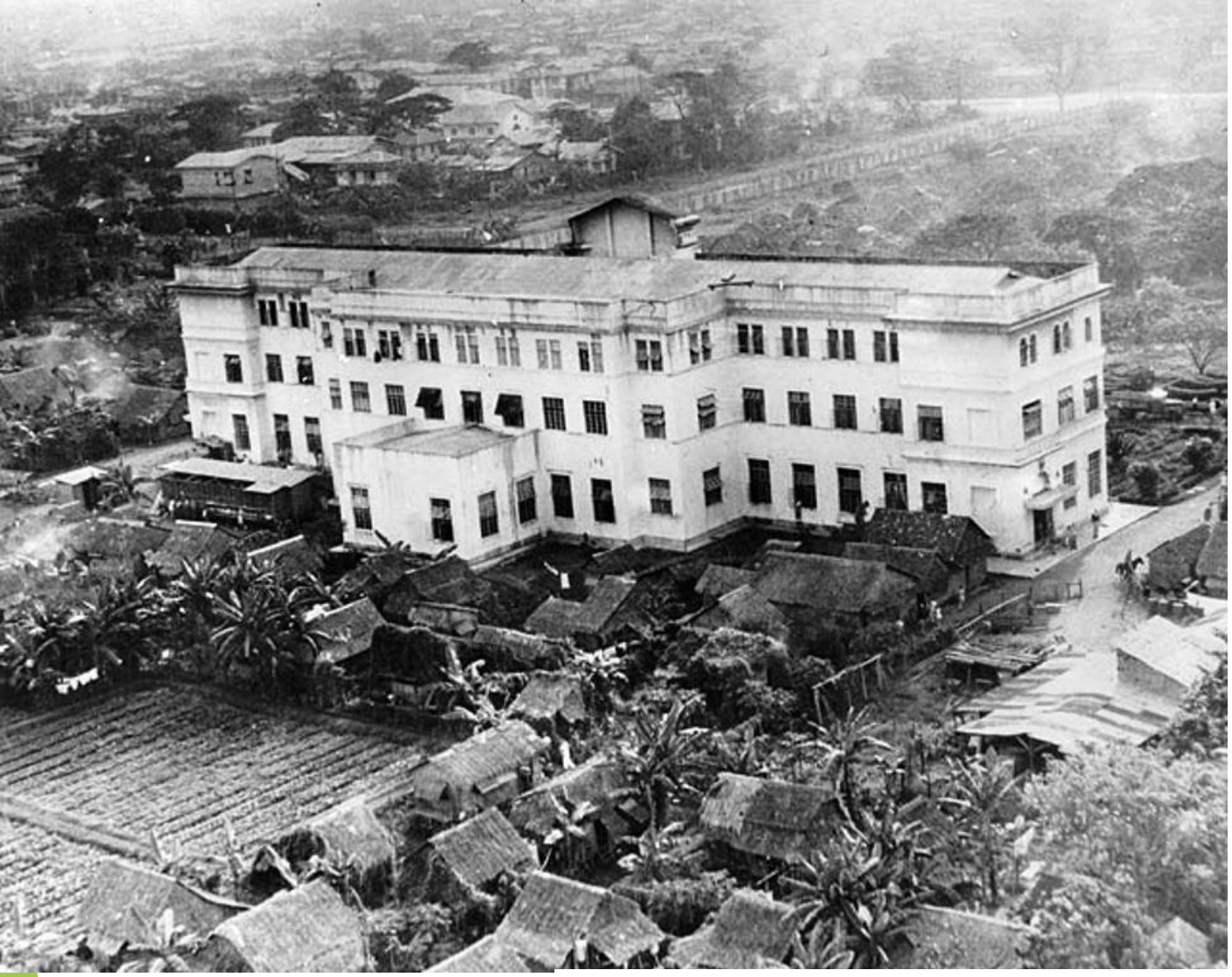
인천금곡동기독교회 유년주일학교(1937년 4월 11일)
중앙의 두 외국인은 커닝햄 부인과 쉼멜 양, 우측이 정삼선 전도자








LIFE





산토 토마스 대학교 수용소(1942.1-45.2)
3-4천명의 외국인들이 기숙사와 캠퍼스에 억류됨
수용자들이 식량 부족과 질병으로 고통 당함





산토 토마스 대학교 본관(1611년 4월 28일 설립)
본관 앞에서 석방을 환호하는 모습(1945년 2월 5일)





로스 바뇨스(Los Baños) 필리핀 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 수용소의 관리 소무소였던 베이커 홀(Baker Hall)과 수용소 시설

- 힐은 그리스도의교회들의 필리핀 선교의 개척자 레슬리 울프가 대략 두 주일 전에 사망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선교사 울프는 수감생활로 인한 극심한 영양결핍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 힐 중위는 군용비상식량들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까지 남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에 남아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겪고 있었던 헌신적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 산토 토마스 수용소는 1945년 2월 3일, 로스 바뇨스 수용소는 23일에 각각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연합국 국적의 민간인 수용자들은 해방 후에도 시가전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본국 송환이 가능해질 때까지 수용소에 머물려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용시설은 그해 9월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 미군들이 로스 바뇨스 수용소(Los Baños Internment Camp)를 기습하여 선교사들 및 그들의 가족들을 구출한 날은 일본군들이 수감자들을 기관총으로 몰살하기로 계획하고 그 실행날짜를 단 하루 남긴 날이었습니다.
- 당시 일본군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수용소의 연합군 민간인과 포로들을 전원 처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실제로 일본군이 대규모 학살(총살)을 집행하기로 예정했던 날짜를 불과 하루 앞둔 1945년 2월 23일 새벽, 미군과 필리핀 게릴라 연합군이 기습 작전을 감행하여 이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 단 하루 차이로 그들은 하나님이 늦지 않게 그들에게 보낸 미군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4일 늦게”(Four Days Late) 및 “그분의 완벽한 때”(In His Perfect Time)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늦지 않게 찾아오십니다.
-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 사무엘과 사울의 시대는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옮겨가던 시기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했던 것은 그들이 철기를 사용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 19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루는 장인이 없었습니다. 철병거도 없었고, 말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게다가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철을 다루는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하여 극도로 경계하였습니다.
-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다”(20-21절)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 설상가상으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22절)고 했습니다.
- 철병거(전차) 삼만, 마병 육천, 창과 칼을 손에 쥔 수많은 보병들에 맞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쥔 것은 농기구뿐이었습니다.
-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이 미리 일어나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 23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고 하였습니다.
- 여기서 “어귀”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마아바르’(מַעְבָּר)로써 얕은 개울 또는 수로를 뜻합니다.
- 블레셋은 전투에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선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고 물리칠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 여기서 우리는 “지금 신(臣)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 있나이다. 죽을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고 말한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각오한 임전무퇴의 정신을 되새겨보아도 좋을 듯싶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3절

-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의 330여 척을 거의 전멸에 가깝게 격퇴했던 것처럼, 이 싸움도 이스라엘의 승리가 점쳐집니다.
- 성경은 특히 계시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곧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며,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몹시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며, 좌절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방의 하나님,

사무엘상 13장 1-23절

- 게임을 진두지휘하시며 1-3쿼터의 열세를 역전시킬 슈퍼스타 또는 비밀병기를 숨겨놓으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셨던 부분이 아마도 사울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하신 '최후 승리'라는 언약(운명)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6-14장 연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삼상 7:12)

사무엘상 14장 1-52절

[1]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2]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육백 명 가량이며
[3]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4]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사무엘상 14장 1-52절

[5]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6]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8]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11]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12]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13]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4]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갈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자가 이십 명 가량이라.
[15]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6]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 저리 흩어지더라.
[17]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무엘상 14장 1-52절

[18]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 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19]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20] 사울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21]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사무엘상 14장 1-52절

[22]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23]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벧아웬을 지나니라.
[24]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25]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26]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사무엘상 14장 1-52절

[27]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28] 그 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29]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30]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사무엘상 14장 1-52절

[31] 그 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32]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더니,
[33]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 오라 하고,
[34]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무엘상 14장 1-52절

[35]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36]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37]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38]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사무엘상 14장 1-52절

[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40]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41]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42]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무엘상 14장 1-5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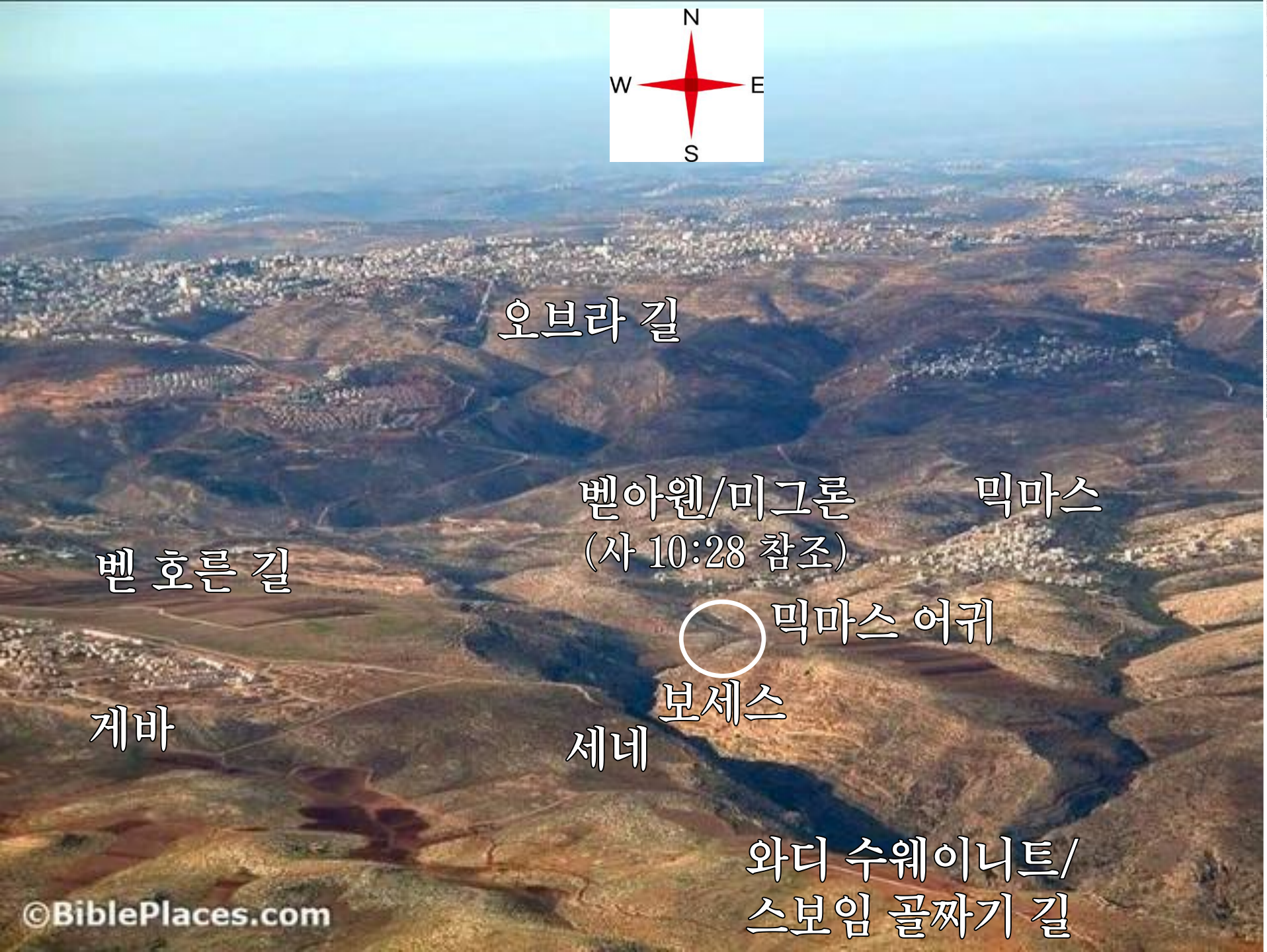
[43]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44]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45]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무엘상 14장 1-5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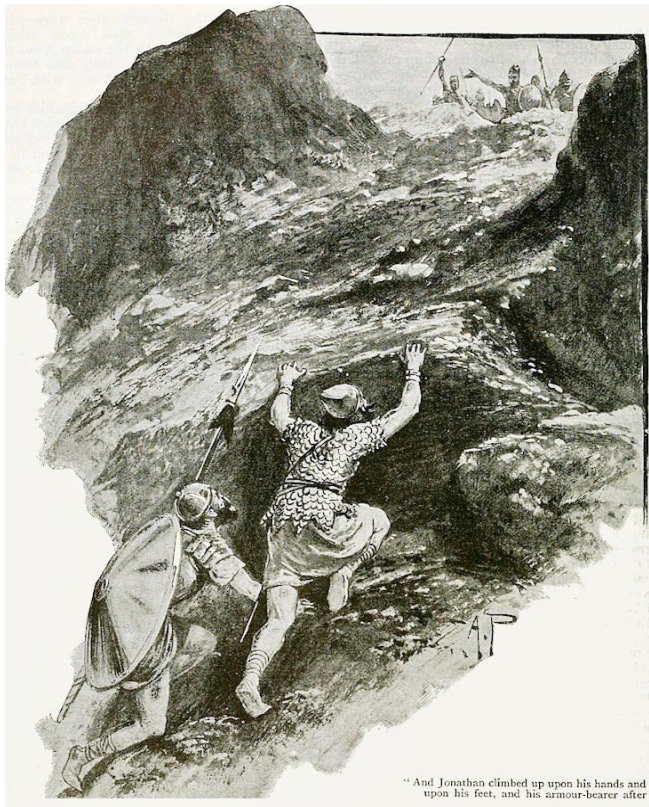
[46]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47]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48]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49]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무엘상 14장 1-52절

[50]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51]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52]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모았더라.


N
W
E
S
오브라 길
벧아웬/미그론
(사 10:28 참조)
믹마스
벧 호른 길
믹마스 어귀
보세스
게바
세네
와디 수웨이니트/
스보임 골짜기 길
©BiblePlaces.com




"And Jonathan climbed up upon his hands and upon his feet, and his armour-bearer after


믹마스(Michmash)와 게바(Geba) 근처에 있는 협곡: 세네와 보세스

게바(Geba)와 기브아(Gibeah) 지명 비교

구분	게바 (Geba)	기브아 (Gibeah)
단어의 뜻	히브리어로 '언덕'	히브리어로 '높은 곳', '언덕'
지리적 위치	블레셋(믹마스) 바로 맞은편 전방 기지	사울 왕의 고향이자 이스라엘 본진 (남서쪽 약 7km)
실제 군사 위치	요나단과 600명 군사가 대치하던 실제 장소	사울 왕의 수도이자 광역 작전 구역을 뜻함
혼용의 원인	① 어근과 철자가 매우 유사함, ② 고대 필사자들의 번역/필사 과정에서 오기 발생	

사무엘상 14장 지명 미스터리의 3가지 원인

01. 언어학적 원인

- 유사한 철자와 의미
  - 두 지명 모두 '언덕'을 뜻하는 같은 어근에서 유래
  - 철자가 매우 비슷하여 고대 사본 필사 과정 중 오기 가능
  - 70인역 및 현대 일부 번역본은 문맥에 따라 '게바'로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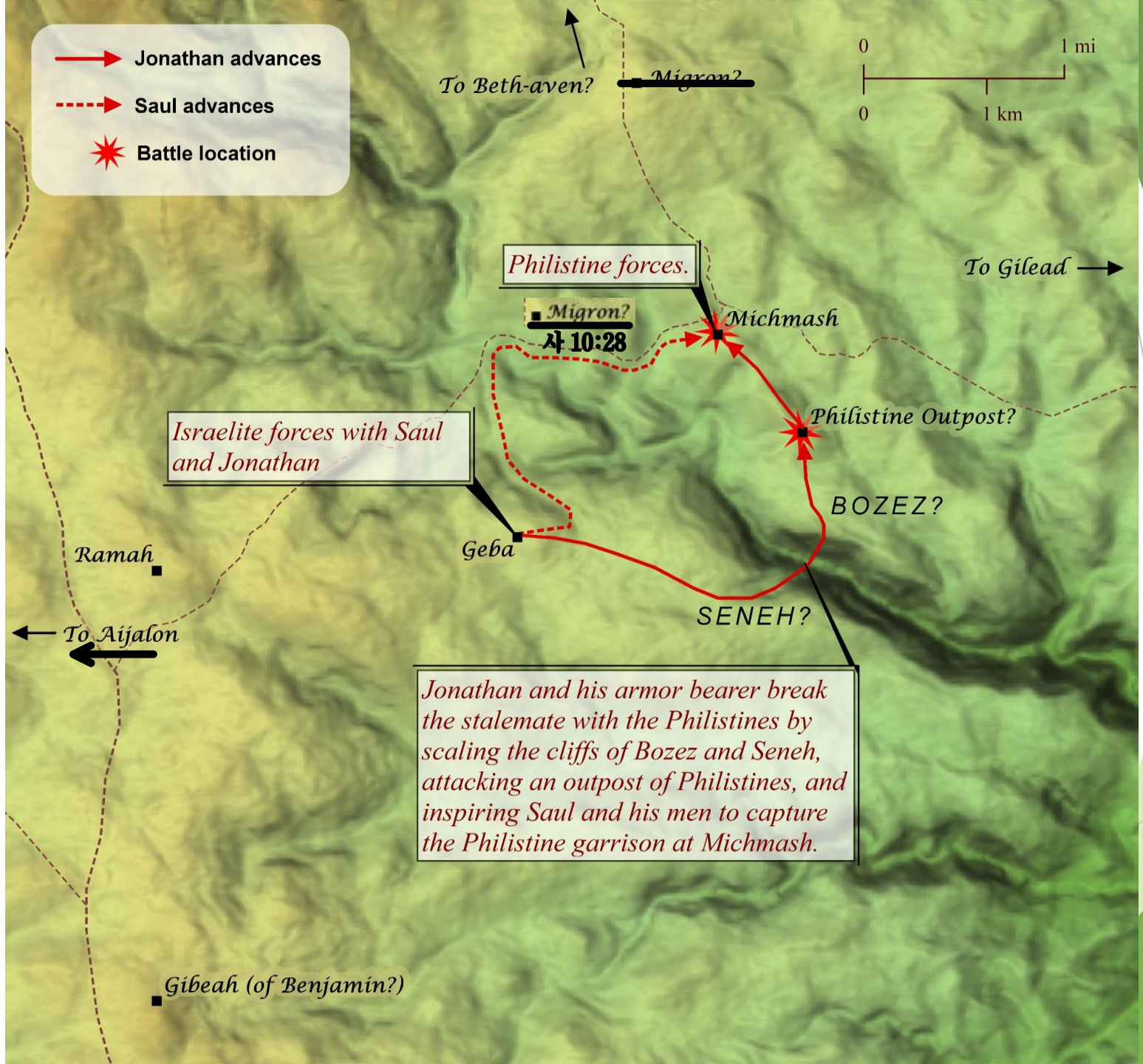
02. 전술적 원인

- 문맥상 실제 위치는 게바
  - 요나단이 기습한 바위 절벽 (보세스/세나)는 게바 맞은 편
  - 7km 떨어진 기브아 본진에서는 즉각적인 기습 대응이 불가능
  - 사울의 군대는 믹마스 바로 앞 (게바 전방기지)에 주둔

03. 정치적 원인

- 기브아의 광역 명칭화
  - 기브아는 사울 왕의 수도이자 왕권의 중심지임
  - 베냐민 고원 지대 전체나 사울 군대의 작전 구역 전체를 통틀어 일컫는 대표 지명

[결론] 요나단과 군사들의 실제 기지는 '게바'이며,
성경의 '기브아' 표기는 단어의 유사성으로 인한 필사 오류입니다.


Jonathan advances
Saul advances
Battle location
To Beth-aven?
Migron?
0
1 mi
0
1 km
Philistine forces.
To Gilead
Migron?
사 10:28
Michmash
Philistine Outpost?
Israelite forces with Saul and Jonathan
BOZEZ?
Geba
Ramah
SENEH?
To Aijalon
Jonathan and his armor bearer break the stalemate with the Philistines by scaling the cliffs of Bozez and Seneh, attacking an outpost of Philistines, and inspiring Saul and his men to capture the Philistine garrison at Michmash.
Gibeah (of Benjamin?)

Copilot
로 작성

믹마스 전투의 승리 요인

— 작은 믿음이 만든 위대한 승리 —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다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26)

① 지형



- 협곡과 절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전초기지
- 블레셋의 수적 우위가 제한됨

② 기습



-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 단 두 명의 공격
- 전초부대 약 20명 격파

③ 기술 격차 극복



- 블레셋은 철기 무기 독점
- 이스라엘은 심각한 무장 열세

④ 하나님의 개입



- 블레셋 전영에 큰 공포와 혼란 발생
- 피아식별이 무너지고 전군 붕괴

결론

"믹마스 전투는 불리한 지형·무장·병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극적인 승리였다."



믿음이
역사를
바꿉니다.

ChapGPT
로 작성

사무엘상 14장 – 믹마스 전투의 승리 요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사 블레셋을 치게 하셨더라" (삼상 14:6)



1 믿음의 용기 (14:1–6)
요나단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웠습니다.

2 하나님의 주권 (14:6–15)
여호와께서 친히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3 두려움 없는 순종 (14:7–15)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신속히 따랐습니다.

4 하나님의 도우심 (14:16–20)
블레셋이 자멸하여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습니다.

믹마스 전투의 승리는
믿음과 **순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삼상 14:6, 15)

Google로 작성

사무엘상 14장 : 믹마스 전투의 승리 요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삼상 14:6)





1. 요나단의 믿음

- 부하 한 명과 함께 블레셋 진영을 향해 바위 구릉을 기어오른 담대한 용기
- 상황과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



2. 불리한 조건 극복

- 협곡과 절벽으로 둘러싸인 믹마스의 험난한 지형적 한계 돌파
- 철기 무기를 독점한 블레셋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무장 수준 극복



3.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

- 땅의 진동(지진)과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에 보내신 초자연적 공포
- 피아식별이 무너져 블레셋 군대 스스로 자중지란에 빠지게 만드심



4. 사울의 종교적 한계

- 군사들에게 무리한 금식을 명령한 사울 왕의 독단적인 맹세
- 승리의 순간에 오히려 군사들을 지치게 만든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

"믹마스 전투의 승리는 인간의 조건과 무기, 병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6~7백 평의 넓은 땅에서 어떻게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20명을 물리쳤을까요?

요나단과 병기든 자는 세네 절벽을 내려가 보세스 절벽을 오른 후 블레셋 군 20명을 물리쳤습니다!



1. 믹마스 전투의 '기형적인 지형' (협곡과 요새)

요나단과 무기 든 자는
블레셋 군대가 설마
이 험한 절벽을
오르겠느냐며 방심한 틈을 타,
손발로 바위를 붙잡고
절벽을 기어올랐습니다.



2. 깔때기 효과를 노린 '통로 차단과 각개격파'

진입로가 매우 좁은 바위 틈새여서,
20명의 블레셋 군사는
한꺼번에 에워싸지 못하고
한두 명씩 차례대로 진입했습니다.

요나단이 앞에서 적을 쳐서
넘어뜨리면, 무기 든 자가
곧바로 확인 사살하며
1:1 또는 2:1의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3. 완벽한 기습으로 인한 심리적 공황 (Panic)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구굴(동굴)에 숨어 떨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명이 튀어나와
정예 수비대를 베어 넘기자,
"이 들 뒤에 이스라엘 대군이
매복해 올라오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대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 무기의 질적 차이 (철기 vs 청동기/석기)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는 철공이 없어
사울 왕과 요나단 단 두 사람만
철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졌지만,
초소병들은 값비싼 철기 무기 대신
청동기나 조잡한 무기를 들고 있었고,
요나단의 압도적인 화력과 공격 속도는
그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결론: 6~7백 평은 블레셋에게는 "도망칠 곳 없는 낭떠러지 바위 위"였고, 요나단에게는 "적들을 한 구석에 몰아넣고 차례대로 격파할 수 있는 최적의 전술적 요충지"였습니다!

블레셋 전초기지 보초들이 청동기나 조잡한 무기를 소지했을 가능성:

- 철기의 높은 희소성
- 하급 병사의 장비 차별
- 말단 감시소의 특성

믹마스 초소는 대규모 본진이 아닌 단순 감시 전초 기지였으며, 특히 이스라엘 군을 약체로 보아 방심했기 때문에 최고급 철기 무기를 배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요나단은 철제 검을 소지했으므로 블레셋 초소병들을 압도할 수 있었다.

사무엘상 14장 1-5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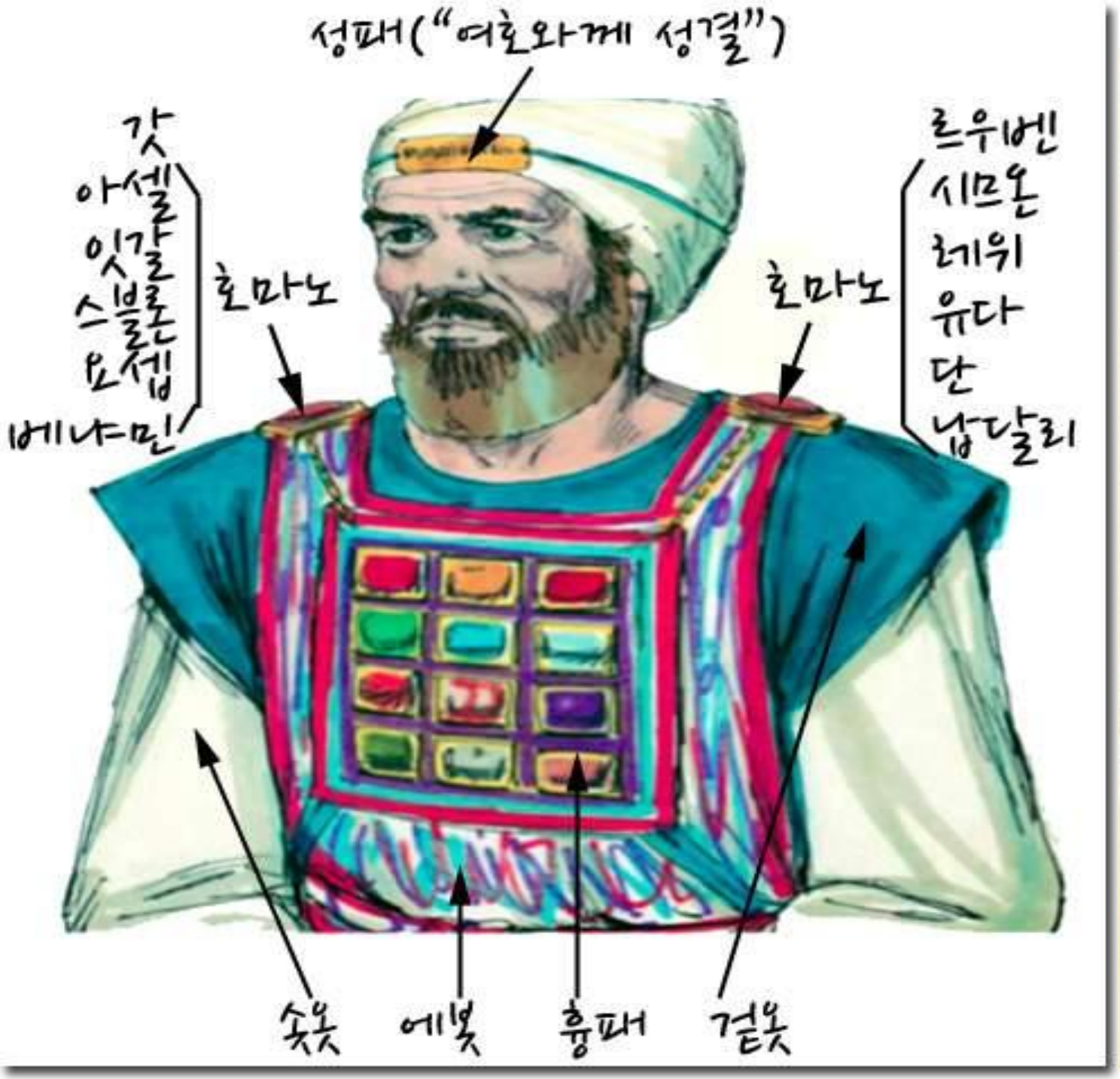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 사무엘상 14장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용맹스러움과 믿음**이 잘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 어귀 절벽에 자신들의 파수대를 세우자 요나단은 단독으로 파수대를 쳐들어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비밀리에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여기서 소년이 든 무기는 아마도 방패와 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나단은 철로 만든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2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 이때 사울은 "기브아(게바) 변두리 미그론(벧아웬, 사 10:28 참조)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에봇(אֵפוֹד)을 착용한 아히야와 언약궤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 13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어귀"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마아바르'(מַעְבָּר)로써 얕은 개울 또는 수로를 뜻합니다.
- 이 개울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개울 양쪽에 높고 험한 암벽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였습니다.


성패("여호와께 성결")
갓
아셀
잇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호마노
호마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속옷
에봇
흉패
겉옷


대제사장(Kohen Gadol)의 예복(출 28장)
관(39절)
금패(36-38절)
견대(7-14절)
흉패(15-29절)
우림과 둠밈
(30절)
띠(8절)
속옷(39절)
에봇(6-8절)
겉옷
(에봇받침)
(31-34절)
석류와 금방울
(33-35절)

사무엘상 14장 1-52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 또 한쪽 암벽은 믹마스 맞은편에 있었고, 다른 쪽 암벽은 게바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암벽 위 믹마스 산언덕에 파수대(מַצָּב, 정세, 상황, 상태)를 만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에 좋은 위치였습니다. 이곳은 험한 곳이어서 군사들이 백병전을 펼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 이 점을 파악한 요나단은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6절)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블레셋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2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 무기를 든 소년도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라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을 얻고자 하여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8-10절)고 말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섰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2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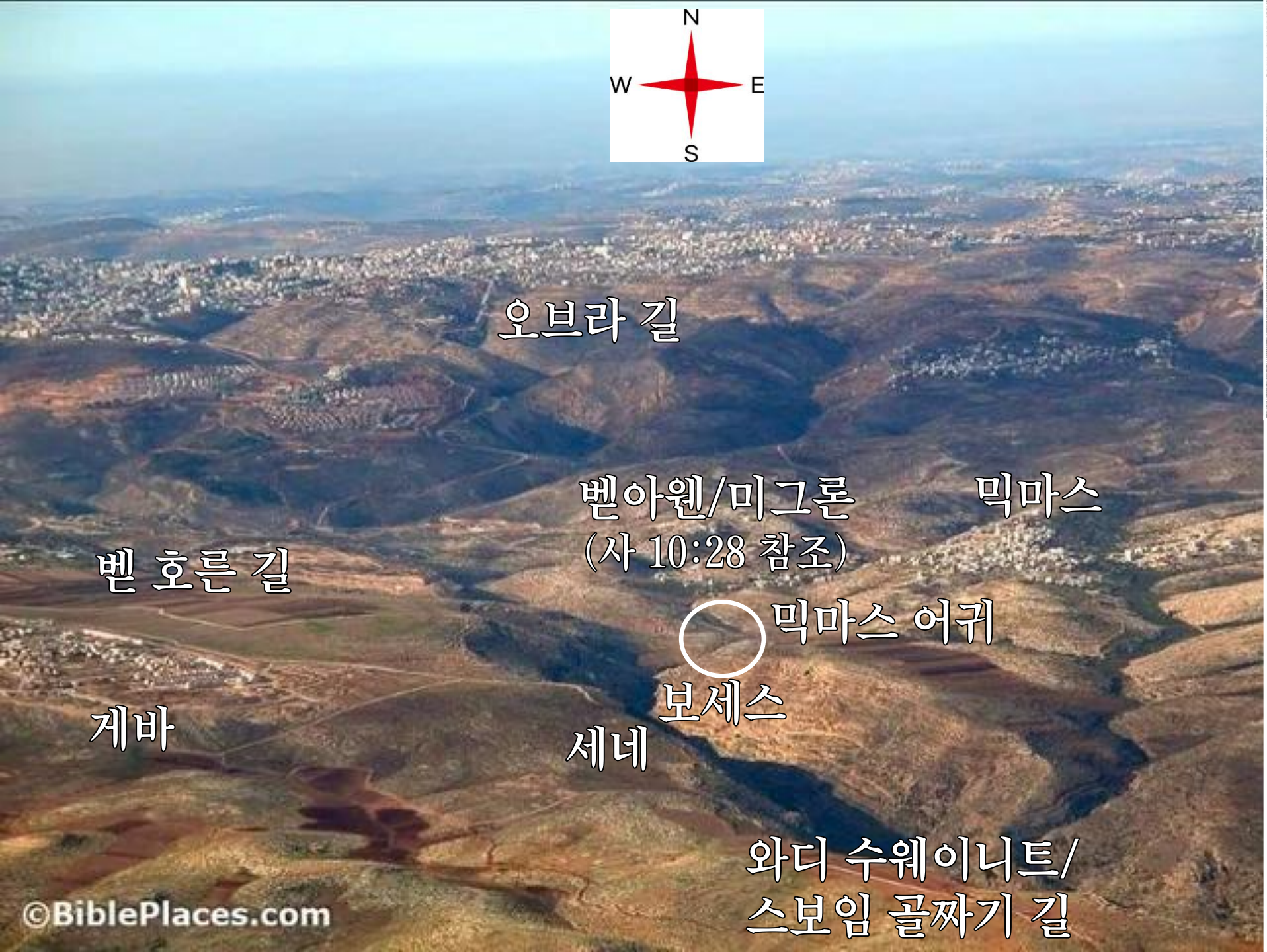
-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채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내려가 넓은 곳에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여 험한 암벽 위로 올라오라고 유인하였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올라오게 한 곳은 일대일로 밖에는 달리 싸울 수 없는 절벽 위 경사지였기 때문입니다. 옳거니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습니다."(13절).

- 일대일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의 상대가 못되었습니다. 앞장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쓰러뜨리면 무기를 든 소년이 따라가며 확인사살을 하였습니다.
- 14절은 "반나절 갈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이십 명 가량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반나절 갈이 땅"이란 600평 정도를 말합니다. 13세기 때에는 겨리의 황소가 하루에 갈수 있는 땅의 면적을 1에이커로 삼았다고 합니다. 1에이커는 1224평 정도입니다.
- 믹마스 절벽 위에서 펼쳐진 이 전투를 지켜본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15절)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진을 일으켜 이 전쟁에 함께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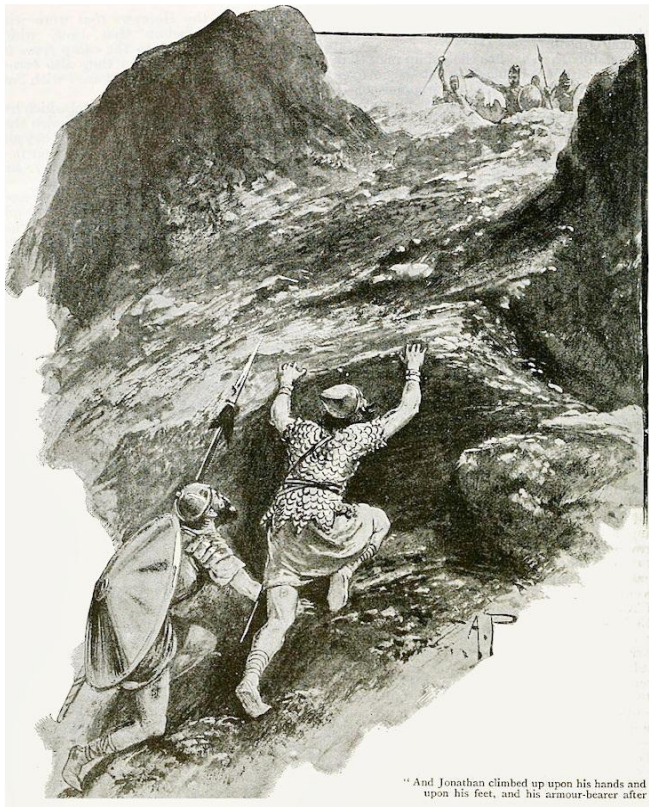
사무엘상 14장 1-52절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벧아웬을 지나니라"

- 믹마스 절벽 위에서 펼쳐진 전투를 지켜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산지 기브아(게바 혹은 미그론)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이때 파수꾼은 대략 1.5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파수꾼은 블레셋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로 인해 용기를 잃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혼란스러운 장면뿐 아니라, 그들의 아우성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울 왕에게 즉각 보고되었습니다. 사울은 점호를 통해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N
W
E
S
오브라 길
벧아웬/미그론
(사 10:28 참조)
믹마스
벧 호른 길
믹마스 어귀
보세스
게바
세네
와디 수웨이니트/
스보임 골짜기 길
©BiblePlaces.com




"And Jonathan climbed up upon his hands and upon his feet, and his armour-bearer after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벧아웬을 지나니라"

-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공격할지 말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황이 점점 더 이스라엘 편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이내 포기하고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울은 전진을 살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진중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 자기편끼리 칼로 서로 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군에 편입되었던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 전황은 점점 더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52절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벧아웬을 지나니라"

- 이 사람들은 블레셋 군에 편성되어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던 용병이었거나 사로잡혀가 징용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들은 한때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일지라도, 자기 지파만 아니었다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군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14장 1-5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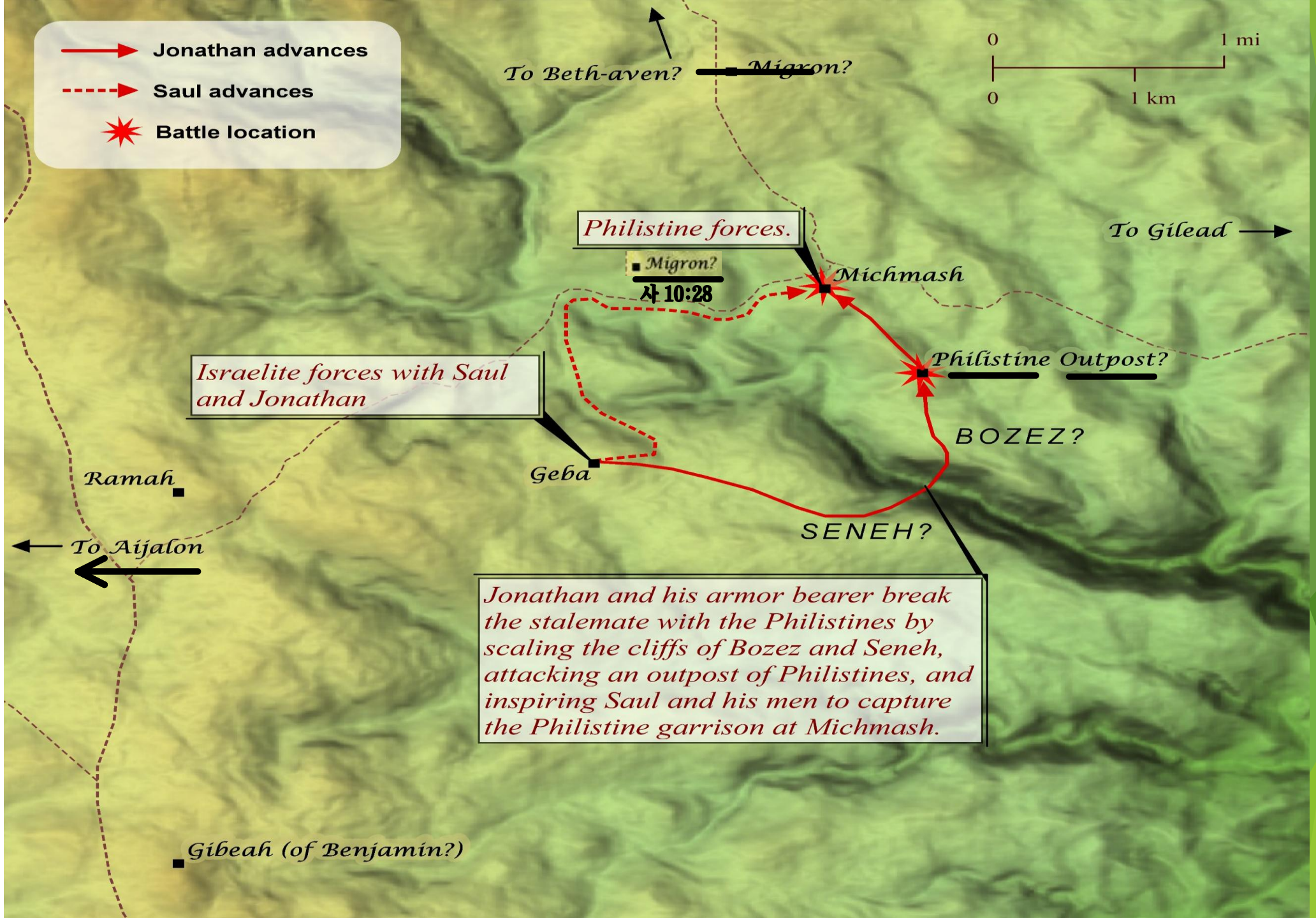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벧아웬을 지나니라"

-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합류하였습니다"(21절). 게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벧아웬을 지나니라"(22-23절)고 했습니다.
- 여기서 '벧아웬'은 믹마스 서쪽 약 1.2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벧아웬을 지났다"는 뜻은 '벧아웬 동편' 믹마스에 주둔했던 블레셋 족속의 군대가 자신들의 성읍 방향인 서쪽으로 패주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52절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벧아웬을 지나니라"

- 31절에서는 "그 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 아얄론은 믹마스로부터 서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블레셋과의 국경에 인접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사울이 이 날에 금식을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24절에서 이 날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했던 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Jonathan advances
Saul advances
Battle location
To Beth-aven?
Migron?
0
1 mi
0
1 km
Philistine forces.
Migron?
사 10:28
Michmash
To Gilead
Philistine Outpost?
Israelite forces with Saul and Jonathan
BOZEZ?
Geba
Ramah
SENEH?
To Aijalon
Jonathan and his armor bearer break the stalemate with the Philistines by scaling the cliffs of Bozez and Seneh, attacking an outpost of Philistines, and inspiring Saul and his men to capture the Philistine garrison at Michmash.
Gibeah (of Benjamin?)

사무엘상 14장 1-52절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벧아웬을 지나니라"

- **첫째는** 워낙 불리한 전투였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백성이 전멸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 **둘째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기 위한 기도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회를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게 하거나 도망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52절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벧아웬을 지나니라"

- 따라서 백성들은 배가 고팠고 몹시 피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수풀에 들어가 먹을 것을 찾다가 꿀을 발견했으나 저주 받을 것이 두려워 먹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은 금식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27절)고 하였습니다.
- 요나단은 사울이 그 날에 금식을 명령한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2절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벧아웬을 지나니라"

- 백성들이 먹고 힘을 냈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태도에 고무되었는지, 아니면 **해가 지고 날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는지, 허기에 지친 백성들은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까지 먹었습니다"(32절).
- **고기를 피째 먹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피를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52절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벧아웬을 지나니라"

- 오늘날에도 유대교인들은 피를 완전히 뺀 고기가 아니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 이에 사울은 큰 돌을 굴려오게 하고 백성들에게 거기로 와서 그 밤에 율법대로 고기를 잡아먹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울은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35절).

사무엘상 14장 1-52절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 백성이 먹은 후에 사울은 그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했고, 백성은 찬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제사장이었던 아히야는 사울 왕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보자고 제안하였고, 사울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37절).
- 그러자 사울은 지휘관들을 불러 모우고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38절)고 제안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2절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아니한 원인이 자신과 요나단에게 있는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있는지를 갈라 세운 후에 **제비뽑기**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두고 다시 제비뽑기를 하였더니 이번에는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 요나단은 사실대로 말하고 죽기를 자청하였습니다. 사울은, 비록 요나단이 자신이 내린 명령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어긴 것이긴 했지만, 처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2절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 그러자 백성들이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 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45절).
- 그리하여 요나단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로써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감"으로써 전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사무엘상 6-14장 연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u>에벤에셀</u>이라 하니라”(7:12)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무엘상 6-14장 연구

- 구약성경에서 '야훼'를 '여호와'로,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복을 누린다.
- 여호와 하나님은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피조물인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고 신뢰하는 한, 끝까지 함께 하셨고, 도우셨으며, 극히 열악하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하신다.
- 위기는 회개하여 여호와께 대한 충성을 쇄신할 기회이다.
- 신앙쇄신은 4천 년간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작고 힘없는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게 한 힘이다.

사무엘상 6-14장 연구

-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복 받는 비결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은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로 옮긴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해야 하고 그 방법을 생각을 해야 풍성한 인생추수를 거둔다.

사무엘상 6-14장 연구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8:1-22)

- 사람이 택(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대가(응보)가 따른다.
- 대가(응보)는 인과응보이며,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일부만 징계하신 것일 수 있다.
-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징계도 하신다.
- 더글라스 A. 포스터, "그는(알렉산더 캠벨)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하나님께 징계도 받은 사람이었다."고 했다(〈알렉산더 캠벨의 생애〉에서).
- 인간은 죄와 허물을 통제해야 하지만, 징계를 통제할 수는 없다.
- 그러므로 징계에 순응하는 동시에 회개가 따라야 한다.
-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의 반복(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게 된다.

사무엘상 6-14장 연구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8:1-22)

-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은 성경의 출애굽사건과 광야생활의 신앙체험들, 바벨론 유배로부터의 해방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체험들을, 비록 그 체험들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비록 혈통이나 민족이 달랐더라도, 그 체험들을 기억하고 공감하며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로 수용하고 그 삶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승리와 영광과 하늘 땅(나라)을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믿음의 끈, 희망의 끈, 인내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사무엘상 6-14장 연구

- 사울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 그러므로 빛과생명교회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2027년 표어)가 되기를 희망한다.

With faith=믿음으로!

- "믿음, faith"이란 바라는 것들이 이뤄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실체가 된다는 확신 곧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티크바'(그 희망)와 '에무나'(신실함)을 말한다.
- "믿음, faith"은 주어진 것(달란트, 재능)에 +더해질 때 '시너지'(synergy) 곧 협업, 상승, 기적을 일으킨다.
- "시너지, συνεργός"란 σύν(함께)+ἔργον(노동) 곧 협업을 뜻한다.

사무엘상 6-14장 연구

- 사무엘상에는 히브리 문자의 특성상 오기 또는 해석의 문제가 발견된다.
- 6장 19절, “벧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지라”에서 (오만)은 일부 사본에 나오지 않는다.



사무엘상 13장 5절의 해석

- 요나단이 칼 한 자루로 블레셋 초병 20명을 무찌른 후 블레셋의 대군과 싸워 승리한 것은 다윗이 물맷돌 한 개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후 블레셋의 대군을 물리친 것과 동일.
- 이스라엘(칼 두 자루와 6백명) vs. 블레셋(병거 삼만과 마병 6천명)
- 병거 삼만은 3백으로 해석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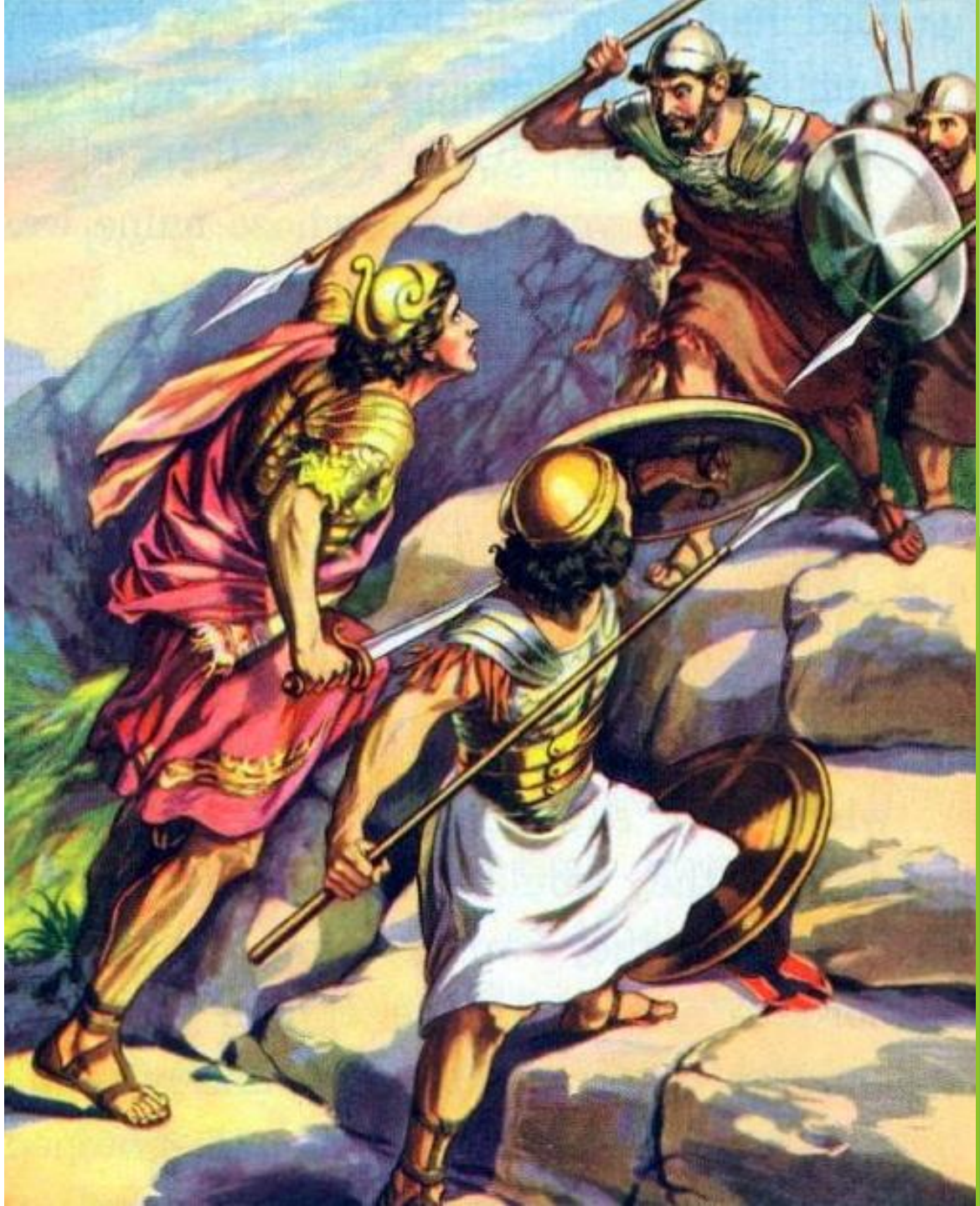
רֶכֶב	אֶלֶף	שְׁלֹשִׁים
레케브	엘레프	슬로쉼
전차	천,부대,분대	30

- 전차 30분대=병거 10대 x 30분대=300대



사무엘상 13장 5절의 해석

- "병거가 삼만이요, 마병이 육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는 블레셋의 압도적인 위세와 이스라엘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강조한 것.
-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나 창이 있었다는 것은 열악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13:22).
-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묘사.



사무엘상 6-14장 연구

- 야훼 하나님은 죄와 허물 많은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주셨다. 길갈에서의 사울의 실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전쟁에서의 패배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사울 왕권이 차후 다윗에게 넘겨질 뿐이었다.
- 이 같은 예언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북에서 남으로,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중심이 옮겨지게 될 것과 그리스도께서 유다지파에서 나오실 것에 관한 것이다. 비록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겠지만,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다.

사무엘상 6-14장 연구

- 하나님은 죄와 허물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도 하시지만,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신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선한 결과를 끌어내신다.
- 14장 47-48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고 하였다.
- 사울과 이스라엘이 거둔 인생 추수였다. 하나님께 많이 부족한 사울과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거둘 수 있었던 추수였다.


AIM HIGH
오름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